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석 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어 관용구의 이해도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은 미

한국어 관용구의 이해도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

최석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은 미

인 준 서

정은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관용구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관용구는 우리말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일상어이며, 이러한 관용구를 한국어 학습자가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말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관점에서의 관용구 교육을 위한 관용구의 이해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관용구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및 정리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재에 실린 관용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대학 교재 분석 결과 관용구 교육내용이 대학 교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았다.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이 초급 교재에서는 각 대학 교재별로 통일감 있게 다루어졌지만, 중급과 고급 교재에서는 관용구의 난이도와 학습해야 할 관용구수가 각 대학별로 차이가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대학 교재에서 관용구를 교육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 풀어야 할 난이도의 문제와 학습 관용구의 수 결정 그리고 교육방안의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수요자인 한국어 학습자 관점에서 관용구의 이해도를 설문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 단어의 이해도가 관용구의 이해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구성 단어의 수준이 어려우면 관용구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어화자는 관용구를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구성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관용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구성 단어의 뜻을 모르면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의 의미는 기존의 모어화자 관점에서의 관용구 학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구 학습과는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어화자는 관용 표현을 일상에서 많이 접하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정도가 미진하거나 역사, 문화적 배경지식이 부족한 한국어 학습자는

구성단어를 선행적으로 학습하고 관용구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추가적으로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관용구의 의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학습자의 수준, 연령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기간, 체류기간, 성별 등은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대학별 교재분석 그리고 기존 관용구에 대한 선행연구 등에 근거하여 관용구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을 실시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관용구의 난이도는 사용빈도와 의미 투명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 사전 의미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기준을 어휘의 난이도와 의미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초급으로 분류된 관용구는 어휘수준 하와 반투명의 조합에 해당한다. 즉 어휘수준이 낮고 관용성이 낮은 조합이다. 중급 관용구는 대체로 초급 관용구에 비해 의미 투명성이 약해지고, 어휘의 수준도 초급에 비해 높다. 어휘수준이 낮아도 의미 투명성은 반불투명한 조합과 어휘수준이 중간 정도 수준이면서 반투명이거나 반불투명한 조합이다. 고급으로 분류된 관용구는 초·중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수준이 높고 의미 투명성이 반불투명하거나 불투명한 경우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용구 난이도의 기준 마련은 본 연구의 중요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용구 교수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버나드 실의 3단계 모형을 도입하였다. 단계별 교수방안은 도입 - 의미 전달 - 확인 연습 - 통합 활용 - 정리 단계로 전개하였다. 각 단계별 교수 내용은 초급, 중급, 고급 관용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해야 할 관용구는 우선 어휘 난이도와 의미 투명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각 교수단계별로 초급자는 어휘 중심, 중급자는 문맥과 상황 중심, 고급자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중심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관용구는 한국고유의 언어이고 문화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 한국어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어휘이고 유창한 한국말을 하려면 꼭 필요한

언어표현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관용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앞으로 관용구 교육은 다른 문화권의 배경지식과 함께 한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관용구를 교육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용구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의식과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에 관용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 관용구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뜻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생성, 소멸되는 변화를 연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고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어화자도 관용구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외국인 관점에서의 관용구 이해도 분석과 난이도 설정 그리고 교수방안을 통하여 한국어 교수자들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어휘 중심의 관용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관용구 목록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관용구의 일부는 기존의 문헌들을 참고하였으나 나머지 일부 관용구는 임의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분석의 목적상 다양한 관용구 목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00개의 관용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해야할 대표 관용구가 아니라 본 연구에서 관용구 이해도와 교수방안을 위해 필요한 분석 목적용 관용구임을 밝혀둔다.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2
1.2. 선행연구 검토	4
1.2.1. 국어학에서의 관용구 연구	4
1.2.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구 연구	12
1.3. 연구의 방법	20
II. 한국어 교재의 관용구 교육 현황	22
2.1. 한국어 교재의 관용구 교육 분석	22
2.1.1. 경희대 한국어 교재 특성	23
2.1.2. 고려대 한국어 교재 특성	25
2.1.3. 서강대 한국어 교재 특성	29
2.1.4. 서울대 한국어 교재 특성	31
2.1.5. 연세대 한국어 교재 특성	33
2.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제시방법의 문제	35
III. 관용구 이해에 따른 난이도 분석	46
3.1. 관용구의 개념과 특성	46
3.2. 관용구 목록선정	51
3.3. 이해도에 따른 관용구 특성 분석	56
3.3.1.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의 특성	61
3.3.2. 이해도가 중간인 관용구의 특성	63
3.3.3. 이해도가 낮은 관용구의 특성	63
3.3.4.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서의 관용구 이해도 분석결과	65
3.3.5. 관용구의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관계	66
3.4. 한·중 관용구의 유사성과 이해도의 관계	75
IV.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방안	82
4.1. 관용구 교육 방안	82
4.1.1. 언어교육 이론	82
4.1.2. 학습자 수준별 관용구 난이도 설정	84

4.1.3. 관용구 교수 학습 단계	91
4.2. 관용구 단계별 학습 교육 방안	93
4.2.1. 초급 단계 : 어휘 의미를 활용한 관용구 교육	94
4.2.2. 중급 단계 : 문맥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	101
4.2.3. 고급 단계: 문화 배경 설명을 통한 관용구 교육	108
V. 결 론	117
참고 문헌	121
ABSTRACT	129
* 부 록	133

표 차례

<표1-1> 관용구 용어 정의	7
<표2-1> 경희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25
<표2-2> 고려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27
<표2-3> 서강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30
<표2-4>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32
<표2-5>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33
<표2-6> 세 교재이상 공통으로 나온 관용구	39
<표3-1> 조사 표본 특성	54
<표3-2> 조사 대상 중국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5
<표3-3> 의미 이해 여부에 따른 관용구 순위	56
<표3-4> 설문조사에 의한 관용구 이해도 분류	60
<표3-5> 학습자 수준에 따른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에 대한 기술통계량	66
<표3-6> 관용구 구성단어, 관용구 뜻의 이해, 관용구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68
<표3-7>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관계	69
<표3-8> 초급학습자의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69
<표3-9> 중급학습자의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70
<표3-10> 상급학습자의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71
<표3-11> 관용구의 이해와 사용에 영향요인 분석 결과	73
<표3-12> 학습자 수준별 관용구 이해에 따른 차이분석	74
<표3-13> 한국 관용구와 중국 관용구의 유사성 비교	76
<표3-14> 한국어 관용구와 중국어 관용구의 유사성과 이해도	80
<표4-1> 어휘 난이도와 의미 투명도에 따른 관용구 난이도 설정	86
<표4-2> 어휘 수준과 의미 투명도에 따른 초급 관용구 목록	87
<표4-3> 어휘 수준과 의미 투명도에 따른 중급 관용구 목록	87
<표4-4> 어휘 수준과 의미 투명도에 따른 고급 관용구 목록	88
<표4-5> 연구자별 관용구 교수 단계	92
<표4-6> 초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	95
<표4-7> 중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	102
<표4-8> 고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	110

I. 서 론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대되고 한류열풍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1990년 이후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을 전후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에 국·내외 각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지속적으로 생겨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와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워야 하는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 개발, 한국어 교사 확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한국 문화 체험학습 등이 갖춰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사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적극적으로 다문화시대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들뿐 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주요 언어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한류열풍과 한국의 문학작품이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한국과 한국어와 한국어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문화가 아울러 알려지고 있어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언어로 인정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노력도 계속 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한국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각 나라의 문화차이는 그들만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문화에 대한 편견은 언어교육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국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교육도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중 우리말을 맛깔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관용구¹⁾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이해하고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의 정서와 문화와 역사가 내포되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 관용구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용구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용구에 포함된 개별 구성단어의 뜻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인의 삶이 반영된 관용구는 오랫동안 우리민족의 정서와 우리문화가 융합되어 한국인의 모습이 다양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원할하게 표현하기 위해 관용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언어 속에 한국인의 삶이 내재되어 있는 관용구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육할 때 어휘 난이도와 의미 투명성에 근거한 쉬운 관용구부터 학습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이고 추가적인 관용구 이해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관용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를 습득하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관용구 교육의 일환으로서 주요 대학의 교재 분석과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구 이해도 분석을

1) '관용어, 관용구, 관용표현, 익은말, 속어, 이디엄' 등 다양한 용어 중 관용구를 사용한 이유는 김종택(1971), 김문창(1974), 박영순(1985), 최경봉(1992) 등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관용구 개념이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구나 절로 이루어져 단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관용구의 형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문금현(1996)에서 관용표현의 형식적 기준에서 관용어의 '어(語)'를 단어자격으로 본 형식적 기준을 수용하였다.

통해 이해도에 따른 관용구의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어휘 난이도와 의미 투명성을 기준으로 관용구의 난이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관용구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실제 교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관용구는 그 나라 민족의 일상 언어이다. 또한 관용구는 그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때 생동감 있게 해주고 그 나라의 풍부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용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세대를 통해 전승된 관용구는 그 나라의 문화, 사회, 역사가 혼합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상적 대화뿐만 아니라 소설, 수필, 시 등 문학 작품과 광고, 드라마, 영화 속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며, 신문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정치, 경제, 사회면에 적절한 관용구가 사용되어 문장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한국어 학습자의 공통된 목표는 모어화자와 같은 수준의 유창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모어화자에게는 일상어와 같은 관용구를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관용구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 생성된 언어로 한국인이 아니라면 외국인 학습자가 관용구를 습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관용구는 외국인이 단순히 배워 모어화자와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²⁾ 관용구 학습은 한국인들의 문화, 역사,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함께 배워야 한다. 게다가 관용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제3의 새로운 뜻을 생성하기에 외국인 학습자가 관용구를 교육받아 모어화자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 Bialystock(1982)은 언어지식의 체계와 그 지식을 언어사용을 위한 처리체계와 구별하였다. 언어지식의 체계란 학습자가 몸에 익힌 목표 언어의 언어규칙 체계에 대한 지식이며, 처리 체계란 그 지식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끄집어내는 통제적인 절차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박덕제·박성현(2011:19 재인용)

첫째, 한국어 교육이 활발한 대학의 학습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분석을 통해 관용구 교육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서 관용구의 이해도와 이해도에 따른 관용구의 특성을 분석하며, 관용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어휘 이해 중심적 관용구 교육에 기반한 관용구 난이도 설정을 위하여 관용구에 포함된 어휘의 난이도와 의미 투명성에 기준한 관용구 난이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어휘 확장, 문맥과 상황의 이해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배경지식에 기반한 학습자 수준별 교수방안을 제시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1.2.1. 국어학에서의 관용구 연구

한국어 관용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관용구 연구는 관용구의 개념 규정이나 범위, 관용구 검증방법, 관용구의 유형기준, 관용구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인지미론 관점에서 관용구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관용구의 개념과 검증에 대해서는 김종택(1971), 김문창(1974), 최경봉(1992), 양영희(1995), 김향숙(2003), 권경일(2005), 이재춘(2010)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종택(1971)은 관용어를 일반적인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이디엄 검진법의 설정하였다. 이디엄 검진법으로 상대음미법과 부정음미법을 제시하였다.³⁾ 이는 이디엄에서 구성요소간의 의미결합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검진방법이라는데 의의가 있

3) 김종택(1971)에서 '상대음미법(相對吟味法)'은 상대어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관용구로 판정하는 검증방법이다. 이는 일반구조는 치환이 가능하나 특수구조 관용구는 '에타다'가 '에끄다'로 치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정음미법(否定吟味法)'은 구성요소의 내부적인 긴밀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 '안'이 내부에 끼어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다. 관용어를 광의의 관용어와 협의의 관용어로 분류하고, '관용어'는 광의의 관용어인 상위의 개념으로 보고 '숙어'는 협의의 관용어로 구분하여 관용어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또한 의미론적 숙어와 통사론적 숙어로 분류하여 호응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합성어, 속담, 고사성어 등 광범위한 관용어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정하였다. 김문창(1974)은 이디엄을 관용어라 하고 일반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일종의 화석 형태들이라고 하였다. 관용어는 속담, 성어, 은어, 비유어, 수수께끼 등을 포괄하는 상위범주로 보고 숙어는 이들과 달리 하위로 분류하였다. 황희영(1978)은 익힘말은 말뜻이 의미소의 표면구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른 뜻으로 표현되어 한국 언어사회에서만 익혀서 비로소 통할 수 있는 관습어구라 하였다. 박영순(1985)은 관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된 언어형태로서 비논리적이고 탈문법적이지만 언중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말이라 하였다.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복수구조이지만 단일의미를 가졌고 개개 단어의미의 결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진 특수 언어 군이라 하였다.

심재기(1986)는 대체로 어휘적 차원의 관용표현에는 숙어, 은어, 비속어, 고사성어, 금기담, 길흉담, 해몽담, 격언, 금언, 잠언, 수수께끼, 인사말 등이 있고 숙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와 동일한 통사적 및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군의 결합어휘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강현화(1987)는 관용어를 문장이 완성되지 않고 또 다른 명사를 요구하는 구(句)라 하고 하였다. 강위규(1990)는 말할 이가 특정 상황에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특이한 형식의 표현이 그 언어사회에서 대중성을 얻어 익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을 관용 표현이라 하였다. 최경봉(1992)은 관용어가 단일한 의미를 창출하는 둘 이상 자립성분의 어휘 복합체이면서 구성어휘의 성분 의미가 살아 있지 않은 언어단위이고, 비유적 표현이 대중성을 얻어 익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이라 하였다. 홍철기(1994)는 관용어라는 용어는 어휘소로 이루어진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소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휘론의 일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용어는 의미면에서 제3의 단일의미를 가지면서 생성적인 면에서는 두 개의 구성요소가 대중성을 얻어 관용적으로 사용된 형태이고 단일어에서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은 기본의미

에서 확대전이 된 부차의미 혹은 연상의미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양영희(1995)는 관용표현은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구 이상의 단위로 언어 공동체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형식이라 하였다. 성광수(1995)는 관용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그 구조와 의미 그리고 통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관용어 개념 규정에 지나친 구속력을 가하기보다는 관용어와 이것이 포함된 그 상위 단위로서의 관용표현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용표현의 이해와 구사능력에 따른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였다. 오제운(1998)은 관용어란 그 나라 언중이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말로써 둘 이상의 어사가 긴밀히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화석형으로 문자적 의미와는 다른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황 효과 표현의 어구나 문장이라고 말하였다. 김영철(2000)은 관용어란 둘 이상의 어휘소가 결합된 구나 절로, 비유표현이 화석화되어 구성요소의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단일의미를 가지는, 그 언어사회에서 대중성을 얻어 통용되는 특이한 언어형식이라 하였다.

김향숙(2003)은 관용어는 둘 이상의 어절이 결합되어서 그 단어가 지닌 각각의 1차적인 의미를 잃고 제3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의미와 형태가 화석화된 구 이상의 구조를 가졌고 구절형이지만 의미는 단일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대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권경일(2005)은 관용구란 구성이 항상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구 이상의 구성을 취한다는 형식적 성격을 말하였다. 또한 의미적 특성을 반영하는 용어인 '관용구(phrase)'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재춘(2010)은 관용구의 개념은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상호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형성하여 관용적으로 쓰이는 언어 형식이라고 정의하였다.⁵⁾

일부 학자의 관용구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성광수(1995)의 관용표현의 범주는 관용어, 속담(관용적 속담), 고사성어(또는 관용적 속어), 언어(관용적 언어, 언어적 언어), 인사말(관용적 인사말)등이 있다.

5) 이재춘(2010), 「관용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p.25

<표1-1> 관용구 용어 정의

연구자	용어	개념
김종택 (1971)	관용어	둘 이상의 단어와 함께 이어져서, 혹은 상응하여 쓰여서 그 결합이 전체로서 어떤 고정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김문창 (1974)	숙어	숙어는 두 어사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절로서 문법·의미·통사 등 제 관점에서 볼 때, 특수한 구조를 가지며 각 구성간의 결합도가 특별히 긴밀하여 일반적으로 분리불가능한 일종의 화석형들이다.
박영순 (1985)	관용어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복수구조이지만 단일의 의미를 가지며 개개 단어의 의미의 결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진 특수 언어군이다.
최경봉 (1992)	관용어	단일한 의미를 창출하는 둘 이상 자립성분의 어휘 복합체이면서 구성 어휘성분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은 언어단위이고, 비유적 표현이 대중성을 얻어 익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이다.
양영희 (1995)	관용표현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구 이상의 단위로 언어공동체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형식이 관용표현이다.
권경일 (2005)	관용구	항상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구 이상의 구성을 취한다는 형식적 성격을 드러내고 또한 의미적 특성을 반영하는 용어인 '관용구'(phraseme)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재춘 (2010)	관용구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상호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형성하여 관용적으로 쓰이는 언어 형식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관용구의 공통적인 형식적 특징이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를 수용하였고 의미적 특성은 합성성과 비합성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관용구(phraseme)⁶⁾로 정하였다.

6) 권경일(2005:13)에서 Phraseme은 의미적 불투명성뿐만 아니라 언어단위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용어라고 하였다.

관용구의 유형분류는 관용구에 대한 유형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유형분류는 크게 형식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서술할 수 있다. 김종택(1971)은 관용어를 체언형, 용언형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⁷⁾ 이디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김문창(1974)은 속어의 유형을 의미론적 속어와 통사적 속어로 나누고 두 어사 이상으로 통합된 구를 관용구의 기본형이라고 하였다. 황희영(1978)은 관용구를 ‘익힘말’이라는 한국 고유어를 쓰고 2,700여개의 관용어 목록을 수집하여 부분 관용어와 완전 관용어로 구분하였다. 관용구의 유형을 글월형식, 말마디형식, 낱말형식으로 분류하였고 조어법상의 유형으로는 합성어, 익힘말, 첨용어 등으로 설정하였다. 박영순(1985)은 관용어를 구조적인 면과 의미적인 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구조적인 면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복수구조이지만, 단일의미를 가지는 특수 언어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관용어의 생성 원인으로서는 언어경제 원리와 본능적인 인간심리현상으로 지적한 뒤, 관용어가 되기 위한 조건자질과 발달과정을 보여주었다. 정옥주(1985)는 관용어의 하위범주를 관용단어, 관용구, 관용문으로 나누었다.⁸⁾ 관용어의 유형은 그 방법에 따라 구조론적 분류, 의미론적 분류, 품사론적 분류로 나누었다. 구조론적 분류에서 관용어는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로 나누었고 제3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관용구는 구나 절의 형태이고 관용의미에는 연상의미효과, 상황적 의미, 감정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관용문은 문장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관용적 표현이고 제3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심재기(1986)의 연구에서 어휘적 차원의 관용표현에는 속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금기어 등이 있고 어구 및 문장차원의 관용표현에는 속담, 고사성어, 금기담, 길흉담, 해몽담, 격언, 금언, 잠언, 수수께끼, 인사말 등이 있다고 하였다. 강현화(1987)는 관용구의 통사적 특이성이나 변이성이 일반 문장과

7) 체언형은 둘 이상의 어소가 통사적으로 결합하여 구나 절을 이루고 있는 경우인데 서술어가 체언 혹은 용언의 체언형을 유지하고 있다. 용언형은 관용어의 어미가 용언으로 끝나는 어구로서, 대표적으로 ‘목적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 ‘서술어(연결형)’의 구조를 지니며 의미는 구성요소의 뜻 결합이 아닌 제3의 뜻을 형성한다. 또한 용언형 관용어는 조사가 생략된 채 쓰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8) 정옥주(1987)는 종래의 속어는 영어의(Idiomatic) Phrase로서 관용구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관용어는 관용어(관용단어), 관용구(관용구절)=속어, 관용문(관용문장, 관용적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비교하여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고 속어와 다의어 형식과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강위규(1990)는 생성적인 각도에서 관용표현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규정하였고 관용어의 유형을 자립적 관용어와 비자립적 관용어로 나누었다. 자립적 관용어는 '단어형'과 '구절용'으로, 비자립적 관용어는 '문법소형'과 '틀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자립적 구절용 관용표현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문금현(1996)은 관용표현을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나누었다. 광의의 관용표현은 다의어를 구성요소로 가진 상용구절, 간접화행표현, 인사말, 완곡어법에 의해 생긴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고, 협의의 관용표현은 순수 합성어, 순수 관용어, 속담적 관용구, 순수 관용절, 속담적 관용절, 순수 관용문, 속담적 관용문으로 나누었다.

권경일(2005)은 3,830개의 관용구의 목록을 가지고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기능을 중심으로 한 유형으로 어휘적 관용구, 문법적 관용구, 담화적 관용구로 나누었고, 의미적 유형으로 동작 표현 관용구와 상태 표현 관용구로 나누었다. 관용구 연구가 문법론의 분석적 시각을 끌어들여 관용구의 기능적 측면이나 표현효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사전 편찬과 같은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관용구 연구는 개별관용어구의 다양한 표현효과, 기능이나 어법에 대한 연구가 실제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용구에 대한 연구에서 형태 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엄밀히 구별되지 않고 서로 뒤섞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김문창(1974)은 도치 규칙, 어휘삽입 규칙, 어휘치환 규칙, 삭제 규칙, 확장 규칙 등 통사적 특징으로 일반적인 구 구성과 관용구 구성을 구분하였다. 황희영(1978)은 관용어가 통사적인 외형구조를 갖추었다고 하였다. 그 구성요소인 형태소들만으로 그 표현의 뜻이 추출될 수 없는 것은 관용어의 의미가 한국어 사회에서만 통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옥주(1985)는 속어의 유형을 의미론적 속어와 통사론적 속어로 나누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속어가 특별한 구조는 아니나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며 필수공기의 관계에 놓이는 둘 이상의 어사로 구성된 연쇄어군이라고 말하였다.

강현화(1987)는 속어표현의 형태·통사적인 변형 여부가 일반 표현과 속어표현을 구분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속어표현의 형태·통사적인 변형 제약은 일반적인 원리에 따른 제약으로 보았다. 속어표현의 통사적 특징은 그 문자 의미 그대로 해석되는 직설적 표현과 새로이 굳어져 쓰이는 관용적 표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관용표현은 문맥에 따라 직설의미 혹은 활용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용표현은 직설표현의 비유가 굳어진 표현이므로, 본래의 직설표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굳어진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강위규(1990)는 의미론적 관점과 통어론적 관점을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낱말차원의 관용표현은 [+차용성, +동의성, +은유성, +대중성]의 자질을 갖고, 구절형식의 관용표현은 [+고정성] 자질이 포함되고, 비자립적 관용표현은 [+은유성] 자질 대신에 [+고정성] 자질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관용표현의 특성을 자질로서 차용성, 동의성, 은유성, 대중성, 고정성으로 명확히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단어형 관용표현은 대치, 꾸밈말 덧붙이기에 제약이 있고 구절용 관용표현은 대치, 꾸밈말 덧붙이기, 매김마디 형성, 피동·사동, 분열문에 의한 초점화, 대응화 등의 변형에 제약이 있다. 비자립적 관용표현은 거의 모든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고정된 형식이라고 하였다.

최경봉(1992)은 관용어의 형태·통사적 유형을 어휘적 관용어와 구적 관용어로 구분하였다. 어휘적 관용어는 어휘적 단어형 관용어와 통사적 단어형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관용어의 어휘적 성격과 통사규칙상의 투명성을 연결하기 위해 일반 통사규칙을 수용하게 되는 이유를 '구조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관용어의 의미적 분류는 생성원인과 정도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정도성에 따른 분류로 근접투명,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의 4가지 층위로 분류하였다. 유형분류의 기준은 의미의 전이여부, 단일 의미소 형성 여부, 의미적 관련성 단절 여부, 유추가능성 여부 등으로 설정하였다. 관용어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금현(1996)은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광의의 관용표현이라 하였다. 관용표현은 형식적 차원에서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그리고 관용문으로 구분하였고 그 중에서 관용어는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고 정의하

였다. 그리고 의미적 차원은 의미특성과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의미에 따라 감정 및 심리표현, 행위 표현, 상황표현, 일이나 존재 표현으로 나누었고, 관용표현과 그 구성요소 간의 축자적 관계에 따라 불투명한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 반투명한 유형으로 나누었다.

정옥주(1985)연구에서 의미론적 분류에는 감정을 중심으로 비유성, 완곡성, 풍자성, 과장성, 비속성, 모순성, 반어성, 단축성, 교훈성으로 분류하였고 품사론적 분류에는 기존의 품사의 관점에서 보았다. 관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생성과정에서 통시적인 고찰을 하지는 못하였다.

김향숙(2003)은 감정표현 관용어를 통하여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등의 언어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감정표현 관용어가 대부분 신체어로 표현되는 것은 감정이 인간의 물리적·생리적 활동경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어는 감정표현 관용어 생성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권경일(2009)은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동작이나 내적인 감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감정표현의 관용구라 주장하였다. 감정표현의 관용구는 실제의 동작이나 신체기관의 상태 등과 관련을 가질 수 있지만, 이와 구별되는 전이된 의미를 가지고 특정한 감정 상태에 대응되어 쓰이는 복합어휘 형식이라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관용구를 인지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이 여럿 작성되었는데 김영철(2000), 용은미(2000), 김향숙(2001), 심지연(2009) 등이 그것이다. 김영철(2000)은 관용어에 나타나는 도상성⁹⁾의 원리에 따르면 합성의 원리가 자연성과 현저성에 의해 인간의 인지체계가 쉽고, 단순하고, 긍정적인 면을 더 잘 인지하고 이에 따라 합성성의 어순에도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 중 적극적인 요소를 선호¹⁰⁾한다고 하였다. 용은미(2000)는 분노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용기속의 액체의 열, 불, 응어리 등과 같은 은유적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분노'를 구체적 존재로 동일시하여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인지과정의 결

9) 김영철(2000:44)에서 도상성이란 '기호에 사물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즉, '개념:사고:의미'의 모습이 언어의 형태:구조에 투영된 것이라 하였다.

10) 김영철(2000:47)은 '피눈물이 나다, 피땀 흘리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요소인 피가 눈물이나 땀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어순에 앞선다고 하였다.

과로 보았다. 분노 표현 관용어들을 인지적 관점에서 환유나 은유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는 입장에서 그 생성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노 표현 관용어가 의미적으로 합성성, 투명성, 원형성인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향숙(2001)은 한국인들이 개별 감정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지언어학에서의 개념은유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추상적인 감정을 개념은유를 통하여 의미를 개념화하면 감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의 검토 대상 500여 항목은 다양한 실제 자료에서 발췌하여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등의 감정표현 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감정표현의 언어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심지연(2009)은 관용어를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제 언어 현실에 적용하여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관용의미에서 합성성이 나타나는 51개 관용어를 인지적 방법에 따라 의미의 합성성을 은유에 따른 것, 환유에 따른 것, 은·환유를 통한 것, 관습적 지식을 통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관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쳐 관용의미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1.2.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구 연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구에 대한 교육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구 연구도 본격화하게 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특징적 구분은 외국어로서의 관용구 교육에 대한 전반적 논의, 문화와 연관된 관용구 교육,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분석 및 지도방안 그리고 특정언어권과 학습자 수준별 관용구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이영숙(1992), 유덕자(1998), 문금현(1998), 전해영(2001)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구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정숙(1997), 이재춘(2010), 김민정(2011)에서는 문화 교육과 함께 관용구 교육이 논의되었다. 송혜원(2005), 박용배(2006), 박소연(2007), 임혜진(2007)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늘면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분석 및 지도방안이 논의되었고 하수정(2006), 송현아(2008), 황정아

(2008), 신혜인(2010), 박효뢰(2010), 응계지(2010), 이남(2010), 장정정(2010)에서는 한국의 관용구와 다른 언어권의 관용구와 대조분석 한 연구가 논의되었다.

1990년 이전에 이미 박영순(1989)연구에서 외국인에게 관용어 및 속담을 가르침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어를 정리 보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문화교육을 통해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기초어휘와 한국어 속의 문화적 요소로서 관용구를 포함시키고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관용구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관용구 교육 및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역시 1990년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관용구 교육과 관련된 논의로 이영숙(1992)의 연구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한국어만의 언어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한국의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경우 중급 이상 과정에서 관용어 학습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이라 하였다. 한국의 신체어는 대부분 단음절이고 2음절은 얼굴, 어깨, 다리, 가슴, 머리 등이 있고 한자어는 간, 위, 장, 폐 등이 있다. 신체 관용어의 의미에는 어휘 의미, 은유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은유 의미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신체 관용어의 생성요소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나누어진다.¹¹⁾ 관용어는 개별언어의 의미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어휘이고 외국인에게 관용어를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덕자(1998)연구에서 한국어교재에 있는 관용표현의 목록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문화적 배경 설명을 통한 교육, 문맥이나 상황을 통한 교육, 의미의 결합적 관계를 통한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용구에 대한 여러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유

11) 이영숙(1992)에서 신체 관용어의 내적 요소에는 '등이 휘다(모양), 손이 크다(크기), 제 눈의 안경(기능)' 등이 있고 신체 관용어의 외적 요소에는 '역사 및 문화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요소와 시대상황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형 분류와 교육 방안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문금현(1998)연구에서 외국인이 배워야 할 관용목록은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관용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들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지도가 높은 관용구는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고 인지도가 낮은 관용구는 구어, 유행어, 비속어이다. 한국어교재분석으로 통시적·공시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목록을 설정한 다음 외국인들의 인지도,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관용어의 목록을 선정하여 학습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관용표현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고 관용구의 빈도조사도 시도하였다.

전혜영(2001)은 관용표현의 교육 방향을 관용표현의 범위, 기초 관용 표현의 목록 선정, 구어적 관용표현과 문어적 관용표현 제시, 학습 단계에 따른 난이도 조정 등 체계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버나드 실의 3단계 방법론¹²⁾에 의해 체계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다른 연구에서의 관용구 교육은 의미전달이나 이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이 연구는 체계적으로 어휘를 학습하는 이론을 도입하여 통합 활용단계까지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초급, 중급, 고급단계의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분석 및 지도방안에서 송혜원(2005)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표현 198개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화자에게 설문¹³⁾을 실시하여 관용표현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었다. 단계별 지도를 의미 연습, 확인 연습, 통합 활용으로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도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박용배(2006)는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목록을 사용빈도와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200개를 선정하고 초급, 중급, 고급 3단계로 나눈 뒤 B. Seal(1991)의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12) 버나드 실의 3단계교수법이란 '의미전달 단계, 이해확인을 위한 연습 단계, 통합 활용단계'이다.

13) 설문조사에서 사용빈도는 20~40대의 대한민국 일반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투명도는 한국어교육학, 국문학, 국어교육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의 공헌은 관용어 목록을 표현영역과 이해영역으로 나눈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임혜진(2007)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육용 도서에서 관용표현 목록을 수집하여 의미의 투영도와 사용빈도에 따라 객관적 기준으로 재분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과 교육 관련자들의 설문조사만으로 의미의 투영도와 사용빈도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관용구를 개별어휘수준과 상관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혜령(2007)은 관용표현의 목록을 전체 교과과정에서 123개를 선정하였다. 초급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의 목록을 작성하고 문맥유추, 멀티미디어, 역할극, 놀이 활동을 통한 지도방안 등 다양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여 수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하지만 목록선정의 객관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¹⁴⁾

박소연(2007)연구에서 등급별 난이도, 의미의 투명성, 사용 빈도, 문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관용어 목록 125개를 선정하였고, 교육 방안으로는 B. Seal의 이론을 활용하고 도입, 제시, 연습, 활용, 정리의 틀을 적용하여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용표현의 모든 목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¹⁵⁾

김은경(2010)은 학습수준이 비슷한 외국인 학습자에게 통일된 관용어 목록으로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교수 방안을 설명, 연습, 활용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자유연상, 상황판단방법, 문맥활용방법, 비슷한 뜻의 다른 관용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용어를 연구하였다. 구효진(2011)은 관용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습교재를 분석하고 각 교재에서 관용표현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어휘 교육에 있어 관용표현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교재별 관용표현의 수적 차이가 현저히 나고

14) 최경봉(1992)은 세대 차이에 따라, 문금현(1996)은 세대차이, 남녀차이, 직업 및 교육정도에 따라 관용구 사용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관용구 개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관용구의 목록선정 기준도 광범위하다. 본고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선정, 2차 선정, 3차 선정으로 관용구 목록 100개를 선정하였지만 목록선정의 객관성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다.

15) 성광수(1995)는 관용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그 구조와 의미 그리고 통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관용어를 지도하는 방식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최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과 함께 관용구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정숙(1997)연구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목표는 목표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및 감정까지 포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시 함께 교육해야 할 한국문화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요소, 속담·관용어·문화적 지시어 등의 문화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요소, 화법과 경어법, 한국의 역사적 사건 및 기관, 지리학적 기념물 등의 정치 경제적 요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 방법도 현장 학습이나 실제 자료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문화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재춘(2010)연구에서 관용구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어 문화요소를 추출해냄으로써 문화교육 자료로서의 관용구의 가치를 밝혔다. 한국어 문화를 교육하는데 교수·학습 모형을 B. Seal의 어휘교수방법을 기초로 하여 제시, 설명, 연습, 활용의 4단계로 구성하여 관용구 속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는데 앞으로는 현대에 생성된 관용구 연구도 시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앞서 논의한 김정숙(1997)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은 과거에 생성된 문화교육보다 현재의 문화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민정(2011)은 문화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120개를 선정하고 그 속에 있는 한국문화 요소를 살펴보았다. 관용표현을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으로 관용표현의 유래담을 활용한 문화수업, 문화충격을 활용한 문화수업, 대중매체 속 관용표현을 활용한 문화수업, 학습자 모국 관용표현과의 비교를 통한 문화수업, 관용표현 발생 상황 역할극을 통한 문화수업,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수업으로 나누었고 문화수업모형에서 보충·심화단계에서 한국어 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남과 함께 한국어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많아져 자신의 모국어 체계와 대조·분석하는 논문들이 많아졌다. 즉, 양쪽 언어에 능통한 한국어 학습

자에 의해 학습자 모어와의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수정(2006), 송현아(2008), 황정아(2008), 신혜인(2010), 이양금(2010), 박효뢰(2010), 용계지(2010), 이남(2010), 장정정(2010)에서는 다른 언어권의 대조분석을 통한 관용구 연구가 논의되었다.

하수정(2006)은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과정을 다방면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단순히 모국어와의 직역이 아닌 문맥을 통한 이해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학습 전략의 경우 국가 간 문화권과 언어권의 차이를 많이 보여 이러한 대조분석을 보편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송현아(2008)는 몽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몽골어와 한국어를 비교·대조하여 몽골인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용어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용어 목록의 선정과 배열을 정하여 한국어 관용어 교육방안과 교수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실제 대화에서 관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이 주로 읽기 테스트를 통해서 의미를 확인하거나 문제 풀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 체계적인 언어 학습에는 한계가 있다. 황정아(2008)는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구의 표현 양상을 밝히고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관용구를 비교, 연구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사물에 대한 인식 등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다. 관용구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를 연관시켜 언어 문화교육에 있어서 관용구의 활용의 중요성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신혜인(2010)은 한국어 교재 및 한국인의 실생활에 나타난 관용표현, 인식 조사 등의 분석결과를 150개 선정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관용표현을 단계별로 지도하여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 활동을 통해 교육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목록 선정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양금(2010)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사에게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설문조사하였다. 한국어 교사 95명중 72%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을 돕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 중 중국어권이 85%로 제일 많고 이해도도 제일 높을 것 같은 언어권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언어권이 다르고 관용구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교재가 달라질 필요는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관용구를 학습자의 모국어와 대조하는 학습이 도움이 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고¹⁶⁾ 그 이유는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조는 관용구를 빨리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영 관용어 대조 분석에 따르면 난이도 등급을 의미와 표현이 일치하는 항목, 의미는 같으나 표현이 일부분 다른 항목, 한국어에서 관용어이나 영어에서는 관용어가 아닌 항목, 한국어의 관용어가 영어표현에 없는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사용된 관용어 수는 한국어 관용어 182개이다. 실험 수업 결과 영어와 한국어 관용어를 대조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성취도가 높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문화교육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막효퇴(2010)는 한국과 중국의 음식 관련 관용표현 중에서 의미와 표현형식이 같은 것, 의미와 표현형식이 다른 것, 의미와 표현형식은 같고 의미가 다른 것, 한국어에만 있는 것, 중국어에만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수사법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나 중국어 관용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효과적인지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옹계지(2010)는 눈, 머리, 손, 입과 같은 기본 신체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어의 의미를 비교, 대조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용어가 똑같이 표현되는 것, 어휘구성은 다르면서 의미가 같은 것, 의미는 다르면서 어휘구성은 같은 것, 한국어에만 있는 것, 중국어에만 있는 것으로 살펴보았다.

이남(2010)은 한·중 신체 중 ‘손과 발을 중심으로’ 관용어를 비교 연구하였다. 신체어휘 중 손은 ‘노력’의 확장의미를 갖고 있고 발은 ‘움직임’, ‘공간’ 등의 확장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두 나라의 신체 관련 관용어 ‘손’과 ‘발’를 ‘동형동의, 이형이의, 동형이의, 한국에만 있는 관용어, 중국에만 있는 관용어’를 비교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정정(2010)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표현 방식이 비슷한 신체기관, 의식주, 자연환경 등 유사하게 관련된 것이 많으나 양국의 자연환경 및 풍속 습

16) 문금현(1998)은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한 것부터 학습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였다. 송현아(2008)연구에서 초급과 중급 초반에 모국어 관용구와 비슷한 관용구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문맥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 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관용표현의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표현의 형태를 동형동의, 부분동형동의, 이형동의로 분류하였다. 초급에는 유사성에서 동형동의형, 투명성에서 반투명, 중급에서는 유사성에서 부분동형동의형, 투명성에서 반불투명, 고급에서는 유사성에서 이형동의형, 투명성에서 불투명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 관용표현을 교육할 때 양국 상호간의 민족성, 생활환경 등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였지만 분석한 관용표현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을 위한 관용구교육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전공하여 자신의 모국어에 있는 관용구와 비교, 대조 분석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음식이나 신체 일부분을 비교, 대조하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관용구 연구와 기존 연구는 대학교재 분석과 난이도 분석 그리고 교육방안 측면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출발은 난이도 분석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관용구 교육에서 어휘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관용구의 이해도 분석을 실시하여 관용구 이해에 있어서 모어화자와는 달리 관용구에 포함된 어휘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어휘 난이도와 의미 투명성에 따른 새로운 관용구 난이도 설정을 제시하였다.

1.3. 연구의 방법

관용구 교육은 언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관용구의 의미는 구성어휘의 개별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 관점에서 관용구에 대한 주변 지식체계가 부족하면 모어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이 관용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방안과 교수에 필요한 교안을 제시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주요 논점은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서의 한국어 관용구 이해도 분석과 교육 방안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선행된 연구들¹⁷⁾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한국어 교재 중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5개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관용구 목록을 살펴보고 난 다음 관용구 교육에 대한 문제점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재분석과 관용구 이해도 분석에 기반한 교육방안 및 교안 제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제1장에서 지금까지 관용구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국어학에서의 관용구 연구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관용구 연구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본고의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제2장에서는 교재분석을 통해 대학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에 대한 내용과 구성을 이해한다. 아울러 대학별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즉,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구 교육이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교재 중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5개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선택하여 각 대학의 관용구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각 대학 교재를 통해 관용구 목록을 살펴보고 난 다음 관용구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선 관용구의 개념과 관용구의 특징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

1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관용구 선행연구로 유덕자(1998), 문금현(1998), 전혜영(2001), 송혜원(2005), 박용배(2006), 박소연(2007), 임혜진(2007) 등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구 교육이기 때문에 모어화자의 관용구의 난이도에 따른 이해도를 설정하기보다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구의 이해도를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고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관용구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관용구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이해도의 정도에 따라 나타난 관용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100개의 관용구에 대한 구성 단어 이해, 관용구의 이해, 관용구 사용의 수준 등을 측정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관용구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문화배경을 제한해야 관용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조사대상에 혼합하여 조사하는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지식 등의 영향으로 관용구 이해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 장에서 끝부분은 한국어 관용구와 중국어 관용구와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모국어 관용구의 이해가 한국어 관용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관용구 이해와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상관분석은 어휘의 이해, 관용구의 이해, 그리고 관용구 사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였으며, 분산분석은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관용구 이해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였고, 끝으로 회귀분석은 관용구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였다.

_제 4장에서는 어휘의 난이도와 의미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 관용구를 분류하였으며, 또한 관용표현의 교수 학습방안을 많은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교수 학습 5단계방식을 적용하여 초급, 중급, 고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즉, 수업지도안에서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 단계로 관용구를 교수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수업지도안은 어휘중심적 사고와 의미의 투명성 그리고 모어화자가 속한 중국의 유사 관용 등을 고려하였다.

II. 한국어 교재의 관용구 교육 현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각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재는 학습자의 학습목표, 학습자의 언어수준, 학습자의 나라, 학습자의 문화 등에 따라 만들어져야하고 이에 따른 한국어교육 목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워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의 교육기관은 교재를 각각 제작하여 대학마다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르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교육도 대학별로 교재의 내용과 구성이 다르다.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관용구가 한국어교재에서 관용구 교육이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어 교재 중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5개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선택하여 각 대학의 관용구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살펴본다. 이어 각 대학 교재를 통해 살펴 본 관용구 목록을 살펴보고 난 다음 관용구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한국어 교재의 관용구 교육 분석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교재를 중심으로 교육되어지고 있다.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관용구의 교육내용이 달라지므로 교재의 영향이 크다. 본고에서 검토할 대학교재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교재를 사용하였다.¹⁸⁾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실용적인 내용을 지닌 교재들이다. 최근 새로 만들어진 한국어교재는 의사소통교수법에 맞춘 구성 원리로 되어 있고 교재의 구성은 대부분 단어, 표현, 대화, 연습 문제, 듣기 지문으로 되어 있다. 각 대학마다 관용구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각 대학의 관용구의 범주를 인정하고자 하

18) 대학교재의 선정기준은 의사소통교수법이나 과제중심교수법에 맞춘 구성 원리로 되어 있고 한국어 교재에 관용구 학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재이고 논문이나 교재에서 많이 분석된 대학교재를 사용하였다.

였고 각 대학 교재에 나타난 모든 관용구를 분석 범위에 포함시켰다. 대부분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는 초급 과정에서 적게 나타나고 중·고급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대부분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구 코너를 따로 만들어 교육하거나 관용구를 본문이나 대화내용에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익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모어화자와 달리 한국어 학습자가 문맥 안에서 관용구의 뜻을 파악하여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제3의 의미가 생성된 관용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용구를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문 속에 있는 관용구의 뜻을 제대로 알고 파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관용구의 의미를 정확히 제시하고 예문이나 대화, 본문의 주제내용과 연결된 관용구를 함께 다루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전통, 역사, 문화, 관습 등의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과 함께 체계적인 관용구 교육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용구의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1.1. 경희대 한국어 교재 특성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초급 I, II 단계, 중급 I, II 단계, 고급 I, II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경희대 교재는 머리말에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학습자 활동중심, 통합교과의 실현과 함께 보편적인 외국어 교육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한국인의 심성, 생활태도, 가치관과 속담, 관용구가 교재 내용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이 경희대 교재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교재구성에서 단원명은 주제, 기능, 문법, 어휘, 발음, 과제·활동, 한국 문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 초급 II』부터 ‘한국 문화’ 코너가 있다. 한국 명절에 떡국을 먹는 관습을 설명하고, 『한국어 중급 I』은 2, 4, 6, 7, 8과에 ‘속담과 관용어’란 코너를 따로 만들어 속담과 관용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몸과 관련된 관용표현 ‘눈이 높다’, ‘입이 무겁다’, ‘콧대가 세다’, ‘귀가 얇다’, ‘손이 크다’, ‘발이 넓다’와 명사형 ‘-기’로 끝나는 ‘누워서 떡먹기, 식은 죽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늘의 별따기, 언 발에 오줌 누기, 누워서 침 뱉기’을 설명하였다. 『한국어 중급Ⅱ』 2과 ‘음식과 요리’에서 한국 명절에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먹다’는 문화설명과 생활 속의 관용표현에는 ‘한 톱 내다’, ‘눈 감아주다’, ‘눈을 감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좋다’, ‘바람을 맞다’, ‘바가지 쓰다’ 등을 제시하고 관용의미와 관용의미에 대한 부가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용구를 대화나 본문에 활용하여 학습하지 않고 뜻만 설명하는데 그쳤다. 『한국어 고급Ⅰ,Ⅱ』에서는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용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고급Ⅰ』 3과 ‘읽기 2’에서 ‘지나치게 틀에 박힌 문장만 알고 있으면 조금만 어려운 주제가 나와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 때문이다.’에서 관용구를 포함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말하기’에서 “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받아쓰고, ‘입이 아파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의 대화내용에서도 자연스럽게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다.

경희대 교재는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위해 문화항목을 각 단원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하여 구성하였다.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관용구의 뜻을 설명하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관용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관용구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다른 교재에 비해 문화 설명이 잘 되어 있다. 하지만 관용구가 문장이나 대화에 자연스럽게 나오나 관용구의 뜻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관용구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법 설명을 하기 위해 관용구를 예로 들지만 문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관용구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희대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중 빈도수가 제일 많은 관용구는 ‘마음에 들다’이고 ‘신경 쓰다, 한 톱 내다, 기가 막히다, 누워서 떡먹기, 한 배를 타다, 파김치가 되다, 눈감아 주다, 숨통이 트이다, 이 잡듯이, 첫눈에 반하다’ 등은 2번 이상 나오고 그 외의 관용구는 한 번씩 나타난다.

<표2-1> 경희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¹⁹⁾

급수		경희대 관용구
초급	I 급	마음에 들다 [듣기지문]마음에 들다
	II 급	꿈을 이루다/새끼손가락을 걸다/마음에 들다
중급	I 급	마음에 들다/눈치를 보다/눈이 높다/입이 무겁다/콧대가 세다/귀가 얇다/손이 크다/발이 넓다/속을 태우다/누워서 떡먹기/식은 죽 먹기/땡 짚고 헤엄치기/하늘의 별따기/언 발에 오줌 누기/누워서 침 뱉기
	II 급	떡국 한 그릇 더 먹다/자리를 잡다/마음에 들다/한 톱 내다/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기/눈감아 주다/눈을 감다/기가 막히다/바람을 맞다/바가지 쓰다/신경 쓰다/발이 넓다/마음 줄이다/시치미 떼다/밥 먹듯이 하다/머리를 식히다 [듣기지문] 마음에 들다/한 톱 내다/골치가 아프다/머리를 식히다 / 바람을 쐬다
고급	I 급	입이 아프다/가슴에 박히다/꿀 먹은 병어리/귀에 못이 박히다/몸이 근질근질하다/뜰에 박히다/한 배를 타다/과김치가 되다/보는 눈이 달라지다/첫눈에 반하다/눈에 선하다/쌍벽을 이루다/신경 쓰다/눈치가 보이다/꿈도 꾸지 마라/제 살 깎아먹기/눈앞이 캄캄하다/기가 막히다/바람 쐬다/세상을 뜨다
	II 급	얕느니 죽지/눈앞이 캄캄하다/숨통이 트이다/뼈를 깎다/심혈을 기울이다/신경 쓰다/눈에 띄다/손이 가다/몸이 무겁다/목에 힘을 주다/비행기 태우지 마라/이 잡듯이/짐을 털다/눈을 돌리다/일손을 놓다/상다리가 부러진다/바늘방석에 앉다/발 디딜 틈이 없다/양귀비 빨 칠 정도로/벽을 허물다/꿈도 못 꾸다/귀담아 듣다 [듣기지문] 구김살 없다/신경 쓰다

2.1.2. 고려대 한국어 교재 특성

새로 출판한 『재미있는 한국어』는 학습자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로 개발되었고 6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러두기(Introductory Remarks)와 차례

19) 대학별 관용구는 대학교재의 기준에 따라 다르고 관용구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되거나 첨가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Contents), 교재구성(Syllabus), 본문내용을 영어로 설명해 주어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은 단원주제에 해당하는 대화와 이야기로 시작하여 말하기 연습, 활동, 문화, 읽기, 쓰기, 자기평가,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마다 '문화'라는 코너가 있다. 한국 문화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서, 가치관, 생활습관 등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 2』 '문화' 코너에 한국 사람들이 '다음에 밥 한 번 먹자'의 의미를 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Most Koreans say 'Let's have a meal sometime' or 'I'll see you soon' as an etiquette in order express that they have an affection toward the listener.

『재미있는 한국어 3』에서 '얼굴이 주먹만 하다, 손바닥만 하다, 운동장만 하다, 코딱지만 하다, 배가 남산만 하다,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등은 '만'이라는 보조조사가 공통으로 들어가 관용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정신'과 관련된 관용구로 '신경을 안 쓰다, 정신이 없다, 정신을 차리다, 한 눈 팔지 않다' 등이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 4』 '언어와 표현'에서는 '눈이 높다, 코가 납작해지다, 입이 짧다, 귀가 얇다, 얼굴이 두껍다, 손이 빠르다, 발이 넓다' 등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를 설명하였다. 『재미있는 한국어 5』에서는 '손'과 관련된 관용구 '손을 벌리다, 손이 크다, 손이 작다, 손을 잡다, 손을 떼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어깨'와 관련된 관용구로는 '어깨가 가볍다, 어깨가 처지다, 어깨가 무겁다, 어깨를 겨루다, 어깨를 펴다, 어깨에 힘을 주다', '머리'와 '꼬리'에 관련된 관용구로 '머리를 맞대다, 머리를 쥐어짜다, 머리가 가볍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꼬리가 길다, 꼬리를 내리다', 등이 나타난다. 『재미있는 한국어 6』에서는 눈치와 관련된 관용구로 '눈치가 빠르다, 눈치를 보다, 눈치가 없다, 눈치를 채다, 눈치9단', 화해·갈등과 관련된 관용구로 '같은 배를 타다, 고개를 돌리다, 골이 깊어지다, 극과 극을 달리다, 손을 내밀다', 귀와 관련된 관용구로 '귀가 가볍다, 귀를 기울이다, 귀가 따갑다, 귀가 번쩍 뜨이다, 귀가 얇다, 귀를 의심하다', 신체에 관련된 관용구로 '가슴이 미어지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손에 땀을 쥐게 하다, 심장에 파고들다, 얼

굴이 뜨겁다, 피를 말리다', '물'과 관련된 관용구로 '물거품이 되다, 물 건너가다, 물과 기름, 물 썰 틈이 없다, 물이 들다, 찬물을 끼얹다, 한 물 가다', 결혼과 관련된 관용구로 '바람을 피우다, 눈이 빠다, 첫눈에 반하다, 발등을 찍고 싶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주의·부주의와 관련된 관용구로 '정신을 차리다, 한 눈 팔다, 정신이 없다' 등 고려대 한국어 교재는 관용구를 동일한 조사나 동일한 명사를 묶어 설명하거나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 같은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관용구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고려대 교재는 현재의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고 관용구를 말하기 연습과 어휘 늘리기 그리고 예문을 들어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고려대 한국어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말하기 연습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다.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온 관용구는 '신경 쓰다'이고 '마음에 들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쥐 죽은 듯이, 첫눈에 반하다 시치미 떼다, 손을 벌리다, 눈에 선하다, 손이 빠르다, 한 눈 팔다, 귀를 기울이다, 몸이 가볍다, 한 톱 내다, 물과 기름, 말이 통하다, 몸이 빠르다, 기(가) 죽다' 등은 2번 이상 나오고 그 외의 관용구는 한 번씩 나타난다.

<표2-2> 고려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급수	고려대 관용구
재미있는 한국어1	마음에 들다
재미있는 한국어2	꿈을 이루다/한 톱 내다/마음에 들다/첫눈에 반하다/정신이 없다
재미있는 한국어3	신경(을) 쓰다/손가락 하나 까닥 안하다/마음이 사라지다/열 받다/큰 맘 먹다/바람을 쐬다/손바닥만 하다/운동장만 하다/코딱지만 하다/배가 남산만 하다/쥐꼬리만 하다/얼굴이 주먹만 하다/마음이 맞다/내 발등을 찍고 싶다/눈이 빠다/눈에 콩깍지가 씌었다/저울질을 하다/잘 찍다/손을 대다/한 눈 팔다/눈높이를 낮추다/말이 통하다/정신이 없다

재미있는 한국어4	머리에 쥐가 나다/신경 쓰다/꿈도 꾸지 마/손에 넣다/손이 많이 가다 /쥐 죽은 듯이/어처구니가 없다/손이 빠르다/눈이 높다/코가 납작해 지다/입이 짧다/귀가 얇다/얼굴이 두껍다/어깨가 무겁다/발이 넓다/ 기가 죽다/가뭇에 콩 나다/날개가 돋치다/시치미 떼다/몸이 가볍다/ 몸이 날아갈듯이/허리띠를 졸라매다/금 가다/에 쓰다/바람 쐬다/눈코 뜯 새 없다/눈에 선하다/입에 달고 살다/눈에 콩깍지가 썩었다/발 디 덜 곳이 없다/앞뒤가 꼭 막히다/이름을 날리다/눈이 낮다/첫눈에 반 하다/가슴이 뚫리다/온 몸이 감전이 되다/배꼽이 빠지다/각광을 받다 /손을 놓다/기가 막히다/가슴이 무너지다/눈앞이 캄캄하다/앞길이 막 막하다/뉘를 놓다/손에 잡히지 않다/하늘이 노랗다/정신이 없다/소름 이 돋다
재미있는 한국어5	손을 벌리다/손이 크다/손이 작다/손을 잡다/손을 떼다/신경 쓰다/마 음이 멧히다/간이 붓다/간에 기별도 안가다/간이 콩알만 해지다/허파 에 바람 들다/쓸개가 빠지다/배가 아프다/귀 기울이다/한 눈 팔다/물 건너가다/어깨가 가볍다/어깨가 처지다/어깨가 무겁다/어깨를 겨루다 /어깨를 펴다/어깨에 힘을 주다/머리가 가볍다/꼬리에 꼬리를 물다/ 꼬리가 길다/꼬리를 내리다/머리를 맞대다/머리를 쥐어짜다/각광 받 다/지갑을 열다/돈방석에 앉다/허리띠를 졸라매다/돼지 목에 진주 목 걸이/밑저야 본전/첫눈에 반하다
재미있는 한국어6	오르막길이 있다/내리막길이(을) 있다/기(가) 죽다/모 아니면 도/신경 쓰다/바닥을 치다/눈치를 보다/눈치가 빠르다/눈치가 없다/눈치를 채 다/눈치 9단/장벽이 높다/골이 깊다/같은 배를 타다/고개를 돌리다/ 손을 내밀다/귀를 기울이다/마음을 모으다/귀가 얇다/귀가 가볍다/귀 가 번쩍 뜨이다/귀를 의심하다/살림을 내주다/시치미를 떼다/머리가 아프다/돈을 먹이다/속을 안다/손가락질을 받다/팔자는 그만이다/손 버릇이 있다/골을 내다/속 차리다/꿇등으로 듣다/독이 오르다/눈을 감다/눈에 불이 나다/한 쪽에 치우치다/걸림돌이 되다/가슴이 미어지 다/목이 빠지게 기다리다/손에 땀을 쥐게 하다/피를 말리다/손을 벌 리다/골머리를 썩다/물과 기름/마음에 들다/물 만난 고기/물에 빠진 생쥐/물거품이 되다/물 건너가다/찬물을 끼었다/보는 눈이 있다/굴곡 이 많다/마음에 들다

2.1.3. 서강대 한국어 교재 특성

서강한국어 1A, 1B, 2A, 2B, 3A, 3B는 2008년에 새롭게 출간한 신교재이고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고 서강한국어 4A, 4B, 5A, 5B는 2000년에 출간한 기존 교재이다. 서강 한국어는 1992년부터 의사소통교수법을 채택하였고 한국어 교육과정은 문화와 말하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재의 구성은 단원표지, 문법, 대화, 과제,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단원정리로 되어 있다.

신교재는 한국어 학습자가 흥미롭게 배울 수 있게 개성 있는 만화캐릭터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반복 연습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초급자를 위한 『서강한국어 1A, 1B』는 과제를 영어로 설명하여 과제 내용을 한국어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어휘와 표현에서 품사를 구분할 수 있게 품사의 종류에 따라 모양과 색깔을 단어 앞부분에 표시하였다. 『서강한국어 3A, 4B』에 관용구 ‘눈이 높다’, ‘입이 무겁다’, ‘발이 넓다’를 읽고 말하기, 읽은 후 얘기해보고 써보게 구성되었고 관용구를 ‘단어표현’에서 기타·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서강대 교재는 ‘감상하기’에서 시, 수필, 대중가요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서강한국어 5A, 5B』에서 관용적 비유표현으로 ‘귀신같이 알아맞히다, 물 쓰듯이 쓰다, 밥 먹듯이 하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 산더미같이 많다, 얼굴이 백지장 같다’ 등으로 직유이지만 유추 없이 바로 뜻을 알 수 있는 관용구와 영화 ‘말아톤’ 영화평을 ‘가슴이 찡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손에 땀을 쥐게 하다, 즐거리가 뻔하다’를 사용하여 관용구를 자연스럽게 교육하였다. 서강대 교재는 다른 타 대학 교재에 비해 시, 수필, 소설, 동화, 대중가요, 영화, 만화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소재를 다양하게 학습에 연결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시도하였지만 관용구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강대 한국어교재에서 제일 빈도수가 많은 관용구는 ‘마음에 들다’이고 ‘신경 쓰다, 꿈을 이루다, 입에 맞다, 마음이 무겁다, 눈이 높다, 입이 무겁다, 발이 넓다, 마음이 가볍다, 기러기 아빠, 말이 통하다, 마음 졸이다, 한

턱 내다, 마음이 넓다, 가슴이 찡하다, 마음이 아프다, 줄거리가 뻘하다, 얼
굴이 백지장 같다, 한 잔 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 녹초가 되다, 꿈도
못 꾸다, 독 안에 든 쥐, 틀에 박히다, 한 눈에 보다, 밥 먹듯이, 불을 보듯
이 뻘하다, 물 쓰듯이 하다, 귀신같이 알아맞히다' 등은 2번 이상 나오고 그
외는 한 번씩 나타난다.

<표2-3> 서강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급수		서강대 관용구
1	A	없음
	B	마음에 들다/ 한 잔 하다
2	A	마음에 들다/한 잔 하다/마음이 가볍다
	B	마음에 들다/한 턱 내다/마음이 무겁다/마음이 가볍다/마음이 넓다/말이 통하다/입에 맞다
3	A	입에 맞다/마음이 넓다/말이 통하다/마음에 들다/신경 쓰다/눈이 높다/ 입이 무겁다/발이 넓다 [듣기 대본] 마음에 들다/마음이 넓다/신경 쓰다/한 턱 내다
	B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을 만큼/속이 시원하다/마음에 들다/신경 쓰다/꿈 을 이루다/입에 맞다 [듣기 대본] 신경 쓰다/마음에 들다
4	A	마음에 들다/꿈을 이루다/발 디딜 틈이 없다/꿈도 못 꾸다/가슴 아프다 [부록] 꿈도 못 꾸다/마음이 아프다
	B	한 턱 내다/발 디딜 틈조차 없다/한잔 하다/꿈을 이루다/가을을 타다/마 음에 들다/바가지로 찌우다/마음이 아프다/마음 줄이다/신경을 쓰다/눈 깜짝할 사이 [부록] 가을을 타다/손에 안 잡히다/마음에 들다/신경 쓰다/맘 줄이다
5	A	꿈을 꾸다/꿈을 이루다/가슴이 짹 차다/마음에 들다/다른 길을 걷다/한 눈에 보다/한 턱 내다/물 쓰듯이 하다/밥 먹듯이/불을 보듯이 뻘하다// 귀신같이 알아맞히다/얼굴이 백지장 같다/맛장구를 치다/눈을 뜨다/눈을 의식하다/신경 쓰다/두각을 나타내다/귀를 기울이다/뼈를 묻다/세상을 떠나다/말이 통하다/마음을 줄이다/마음이 가볍다/마음이 무겁다/마음이

	넓다 [부록] 마음이 가볍다
B	신경 쓰다/가슴이 쩡하다/손에 땀을 쥐게 하다/줄거리가 뻔하다/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말이 필요 없다/속이 상하다/얼굴이 백지장 같다/자리에 눕다/독 안에 든 쥐/틀에 박히다/첫눈에 반하다/녹초가 되다/기러기 아빠

2.1.4. 서울대 한국어 교재 특성

서울대 한국어 교재는 ‘어휘와 표현’에서 관용구를 예문으로 반복 학습시키고 생소한 단어나 문법적 요소를 지닌 구조도 반복을 통해 습득하게 하였다. 이처럼 서울대 한국어 교재는 문법적 요소를 지닌 구조와 어휘를 교육하는데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용구교육에 대한 교육방법은 단조롭다. 『서울대 한국어 3』 ‘문법과 표현’에서 ‘손을 보다’의 예시문을 보면 ‘손을 보다’의 뜻에 대한 설명 없이 예시문만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관용구를 ‘새 단어’에서 뜻을 풀이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화 내용에 ‘눈이 높다’가 나오고 ‘문법과 표현’에서 ‘눈이 높다’에 대한 예시문은 있으나 뜻은 설명하지 않고 문장 안에서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골치 아프다’ 관용구의 뜻을 ‘새 단어’에서 ‘몹시 귀찮다’(to be troublesome, to be annoying a program), ‘눈치(를) 채다’는 ‘남의 마음이나 사정을 재빨리 미루어 깨닫다’라고 설명하였지만 ‘양다리를 걸치다’는 ‘양다리’와 ‘걸치다’라는 각각의 사전적인 단어의 뜻만 적어 놓았고 관용의미는 설명하지 않았다. 본문에 나온 ‘입이 가볍다’, ‘집안이 좋다’, ‘바가지를 굶다’, ‘눈 빠지다’, ‘비행기 태우다’는 대화문이나 예문을 통한 반복 학습, 문제를 통해 학습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이와 함께 관용구의 뜻과 관용구와 관련된 유래나 역사를 함께 가르친다면 한국어 학습자가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교재 5, 6』 권은 정식 출판되지 않고 학교에서만 가르침으로 교재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2-4>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급수	서울대 관용구
1권	없음
2권	마음에 들다/한 톱 내다/입에 맞다 [듣기지문] 마음을 받다/마음에 들다
3권	한 잔 하다/귀가 가렵다/눈이 높다/손(을) 보다/한 톱 내다/마음에 들다/ 마음이 넓다/손을 보다/손발이 맞다/손이 크다/기가 막히다/마음이 맞다 /첫눈에 반하다/마음이 아프다 [듣기지문]마음에 들다
4권	마음 아프다/하늘만큼 땅만큼/마음이 넓다/마음에 들다/입이 가볍다/집 안이 좋다/바가지 굵다/비행기 태우다/눈이 빠지다(빠지게 기다리다)/입 이 무겁다/한 톱 내다/꿈을 이루다/마음이 어둡다/발이 가다/꿀치가 아 프다/손꼽아 기다리다/귀를 기울이다/입을 벌리다/쏟 살 같다/국수를 먹 다/깨가 쏟아지다/바가지를 굵다/양다리를 걸치다/제 눈에 안경/바람을 맞다/마음(을) 먹다/한 잔 하다/문을 닫다/뒷전으로 하다/신경 쓰다/(열) 손가락 안에 들다/얼굴을 내밀다/마음을 붙이다/마음을 정하다/다람쥐 체 바퀴 돌 듯/틀에 박히다 [듣기지문] 기가 막히다/마음이 아프다/꿈을 이루다/마음이 가볍다/손꼽아 기다리다 /마음 먹다/한 잔 사다/한 톱 내다/마음에 들다/신경 쓰다/마음 붙이다

제일 많이 사용한 관용구는 ‘마음에 들다’이다. 같은 문장 안에서 관용구가 반복되어 쓰인 것도 반복학습의 효과를 보기 위한 교육방법이라 보고 횡수에 포함시켰다. ‘한 톱 내다, 비행기를 태우다, 마음이 아프다, 눈이 빠지다, 신경 끄다, 손꼽아 기다리다, 눈이 높다, 기가 막히다, 마음(을) 먹다, 다람쥐 체 바퀴 돌듯, 얼굴을 내밀다, (열)손가락 안에 들다, 한 잔 하다, 입이 가볍다, 발이 가다, 꿈을 이루다, 하늘만큼 땅만큼, 뒷전으로 하다, 입이 무겁다, 마음이 맞다, 마음 붙이다, 바가지 굵다’ 등은 2번 이상 나오고 그 외의 관용구는 한 번씩 나온다.

2.1.5. 연세대 한국어 교재 특성

연세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1·2, 중급3·4, 고급5·6단계로 나뉘었고 초급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문법 또한 마찬가지로 번역되어 있어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가 수월하다. 연세 한국어1~6권은 각각 10과씩 구성되어 있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매 과의 마지막 항은 그 과에서 다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부분은 각 과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다루었다. ‘문화란’을 따로 두어 5과를 마칠 때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재는 한국 생활을 담기 위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고 관용구를 대화나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하지만 교재에 처음 제시된 관용구를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문제로 먼저 풀게 하고, 연습문제로 풀렸던 관용구를 몇과 뒤에 설명하여 관용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이 미흡하다. 제일 빈도수가 많은 관용구는 ‘신경 쓰다’이고 ‘마음에 들다 (큰)마음 먹다, 한 톱 내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 맞다, 눈코 뜰 새 없다, 한 잔하다, 몸이 가볍다, 입에 맞다, 눈에 띄다, 찬물을 끼얹다, 손뼉아 기다리다, 눈에 선하다, 귀 기울이다, 한 눈에 볼 수 있다’ 등은 2번 이상 나오고 그 외의 관용구는 한 번씩 나온다.

<표2-5>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 있는 관용구

급수	연세대 관용구
연세한국어1	한 톱 내다/한 잔 하다
연세한국어2	한 톱 내다/한 잔하다/마음에 들다/장단을 맞추다/입에 맞다/문을 닫다/얼굴이 하얗다/마음이 시원하다/몸이 가볍다 [듣기지문] 마음에 들다
연세한국어3	마음에 들다/손이 가다/몸이 가볍다/한 잔 하다/눈코 뜰 새 없이/길눈이 어둡다/자나 깨나/앉으나 서나/꼬리에 꼬리를 물고/낮이 익다/낮이 설다/두말 앓다/색안경을 끼다/신경 쓰다/입에 맞다/마음이 넓다/한 톱 내다/가슴이 막히다/가뭇에 콩 나듯하다/물 쓰듯 하다/땀이 비 오듯 하다/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다

	[듣기지문] 신경 쓰다
연세한국어4	입에 맞다/꿈도 많다/마음이 아프다/눈에 띄다/손이 크다/한 눈 팔다/한 눈에 볼 수 있다/낮을 가리다/한 턱 내다/자리를 잡다/귀 기울이다/신경 쓰다/마음 놓다/머리를 식히다/바람을 쐬다/마음이 열려 있다/눈이 높다/돈을 몰 쓰듯 하다/문이 좁다/국수를 먹다/눈코 뜰 새 없다/문턱이 닳도록/입에 침이 마르도록/눈이 빠지도록/귀가 닳도록
	[듣기지문] 신경을 쓰다
연세한국어5	손꼽아 기다리다/마음이 아프다/눈에 선하다/토끼눈을 하다/채 바퀴를 돌다/구미가 당기다/상투를 틀다/찬물을 끼었다/눈을 돌리다/마음에 들다/한 잔 하다/머리 아프다/신경 쓰다/뿌리 뽑다/칫눈에 반하다/입씨름 하다/한 탕 하다/눈이 가다/한 뭉 집다/씩을 자르다/눈길을 끌다/쥐꼬리만큼 하다/신주단지 모시듯/입놀림이 바쁘다/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넋이 나가다/말을 잃다/한눈에 볼 수 있다/손 끝 하나 까딱할 수 없다/눈을 뺄 수 없다/가슴이 아프다/눈코 뜰 새 없다
	[듣기지문] 신경을 쓰다/마음에 들다/머리가 무겁다/애를 태우다
연세한국어6	어깨가 무겁다/췌기를 박다/속을 썩이다/풀이 죽다/얕느니 죽지/돈을 몰 쓰듯이/손을 떼다/(큰)마음 먹다/손발이 되다/마음 맞다/물가에 기름 붓나/마음 놓다/마음을 줄이다/사람 살리다/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눈 감아 주다/찬물을 끼었다/손꼽아 기다리다/눈 뜬 장님/도마 위에 오르다/밑천이 없다/풀이 깊다/마음에 들다/발 맞추다/열을 올리다/문 닫다/고배를 마시다/마찰을 일으키다/마음이 아프다/신경 쓰다/입이 딱 벌어지다/판을 치다/욕을 보다/속 썩다/압력을 받다/눈에 띄다/약이 되다/골머리를 앓다/하늘이 두 쪽 나다/눈을 돌리다/귀담아 듣지 않다/뜰에 박히다
	[듣기지문] 이 잡듯/눈에 띄다/(큰)맘 먹다/마음이 아프다

2.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제시방법의 문제

위와 같이 5개 대학 교재에 초급, 중급, 고급단계²⁰⁾에 나타난 관용구를 조사해보았다. 각 학교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를 분석한 결과 각 급수별 관용구의 분포도와 교재의 난이도가 교재마다 다르다. 5개 대학 교재에서 초급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중급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고급교재에 나타난 관용구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5개 대학 교재에 나타난 초급 관용구]

마음에 들다/한 톱 내다/입에 맞다/마음을 받다/한 잔하다/장단을 맞추다/문을 닫다/얼굴이 하얗다/마음이 시원하다/몸이 가볍다/꿈을 이루다/밥 한 번 먹자/첫눈에 반하다/새끼손가락을 걸다/마음이 무겁다/마음이 가볍다/마음이 넓다/말이 통하다

‘첫눈에 반하다’는 고려대 교재에 초급으로 나오고 경희대와 서울대는 중급, 서강대와 연세대는 고급과정에서 나온다. ‘첫눈에 반하다’를 초급 관용구로 설정한 것은 각 교재마다 난이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기준점이 애매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급에 처음 나오면 초급 관용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5개 대학 교재에 ‘첫눈에 반하다’가 모두 초급 관용구에는 나오지 않고 중급이나 고급 관용구에 처음 나오는 교재도 있어 ‘첫눈에 반하다’가 중급 관용구와 고급 관용구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 이유이다. 5개 대학 교재에 나타난 ‘첫눈에 반하다’에 대한 난이도가 제 각각이지만 각 대학의 목록기준을 인정하여 포함시켰다. ‘한 톱 내다’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는 초급 관용구에 속하나 경희대, 서울대는 중급 관용구에 속한다. ‘한 잔하다’는 서강대와 연세대는 초급 관용구에 속하나 서울대는 중급 관용구에 속한다.

20) 대학교재의 초급단계는 경희대 『초급 I, II단계』,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1·2』, 『연세 한국어1·2』, 『서강한국어1A, 1B, 2A, 2B』, 『서울대 한국어1·2』가 초급에 해당되고, 중급단계는 경희대 『중급 I, II단계』,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3·4』, 『서강한국어4A, 4B, 5A, 5B』, 『서울대 한국어3·4』, 『연세 한국어3·4』가 중급에 속하고 고급단계는 경희대 『고급 I, II단계』,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5·6』, 『서강한국어5A, 5B』가 고급단계에 속한다. 또한 단계별로 5개 대학 교재에 자연스럽게 본문이나 대화내용에 나온 관용구도 포함하였다.

[5개 대학 교재에 나타난 중급 관용구]

속이 시원하다/발 디딜 틈이 없다/꿈도 못 꾸다/눈 깜짝할 사이/마음이
 넓다/신경 쓰다/한 톱 내다/손에 잡히다/들이 먹다가 하나가 죽을 만큼
 /귀가 가렵다/눈이 높다/손발이 맞다/손이 크다/마음이 맞다/첫눈에 반
 하다/마음 아프다/하늘만큼 땅만큼/입이 가볍다/집안이 좋다/바가지 굵
 다/비행기 태우다/눈이 빠지다(빠지게 기다리다)/입이 무겁다/꿈을 이루
 다/발이 가다/골치가 아프다/손꼽아 기다리다/입을 벌리다/쏟 살 같다/
 깨가 쏟아지다/양다리를 걸치다/제 눈에 안경/바람을 맞다/문을 닫다/
 신경을 끄다/숨이 막히다/뒷전으로 하다/(열)손가락 안에 들다/얼굴을
 내밀다/다람쥐 쳄 바퀴 돌 듯/틀에 박히다/마음이 가볍다/마음 붙이다/
 손이 가다/몸이 가볍다/한 잔 하다/길눈이 어둡다/자나 깨나/앉으나 서
 나/꼬리에 꼬리를 물고/낮이 익다/낮이 설다/두말 앓다/색안경을 끼고
 보다/입에 맞다/가뭇에 콩 나듯하다/땀이 비 오듯 하다/눈 녹듯이/눈에
 띄다/축 처진 어깨/마음이 통하다/한 눈 팔다/한 눈에 볼 수 있다/낮을
 가리다/자리를 잡다/마음(을) 먹다/귀 기울이다/머리를 식히다/바람을
 쐬다/물 쓰듯 하다/문이 좁다/문턱이 닳도록/입에 침이 마르도록/귀가
 닳도록/손가락 하나 까닥 안 하다/열 받다/큰맘 먹다/손바닥만 하다/운
 동장만 하다/코딱지만 하다/배가 남산만 하다/쥐꼬리만 하다/얼굴이 주
 먹만 하다/마음이 맞다/내 발등을 찍고 싶다/눈이 빠다/눈에 콩깍지가
 씌었다/저울질을 하다/잘 찍다/손을 대다/눈높이를 낮추다/말이 통하다
 /머리에 쥐가 나다/손에 넣다/손이 가다/쥐 죽은 듯이/어처구니가 없다
 /손이 빠르다/코가 납작해지다/입이 짧다/얼굴이 두껍다/어깨가 무겁다
 /기가 죽다/가뭇에 콩 나다/날개가 돌치다/몸이 가볍다/몸이 날아갈듯
 이/허리띠를 졸라매다/금 가다/애 쓰다/앞뒤가 막히다/눈에 선하다/입
 에 달고 살다/이름을 날리다/눈이 낮다/소름(이) 돋다/박차고 일어나다
 /가슴이 뚫리다/온 몸이 감전이 되다/배꼽이 빠지다/마음 놓다/눈길을
 끌다/각광을 받다/손을 놓다/기가 막히다/가슴이 무너지다/눈앞이 캄캄
 하다/뉘를 놓다/일손을 놓다/일이 손에 잡히지 않다/목소리가 커지다/
 하늘이 노랗다/십 년 감수하다/뒷바라지 하다/눈치를 보다/콧대가 세다

/귀가 얇다/발이 넓다/속을 태우다/떡국 한 그릇 더 먹다/자리를 잡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기/눈(을) 감아주다/바람을 맞다/바가지 쓰다/마
음 졸이다/시치미 떴다/밥 먹듯이 하다/목을 내다

5개 대학의 한국어 교재에서 ‘눈이 높다’와 ‘발이 넓다’는 중급 관용구로 난이도가 일치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는 중급 관용구에 속하고 경희대와 서강대에서는 고급 관용구에 속한다. ‘눈이 높다’와 ‘발이 넓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용구는 한 두 교재에 제시되고 난이도도 상이하다.

[5개 대학 교재에 나타난 고급 관용구]

기가 막히다/마음(을) 먹다/마음 붙이다/하늘만큼 땅만큼/마음이 넓다/
입이 가볍다/집안이 좋다/바가지 굵다/눈이 빠지다(빠지게 기다리다)/입
이 무겁다/발이 가다/골치가 아프다/입을 벌리다/쏟아 살 같다/국수를 먹
다/깨가 쏟아지다/양다리를 걸치다/제 눈에 안경/바람을 맞다/한 잔 하
다/문을 닫다/숨이 막히다/뒷전으로 하다/마음을 바치다/세상이 좁다/
(열)손가락 안에 들다/얼굴을 내밀다/마음을 붙이다/마음을 정하다/마
음이 맞다/꿈을 이루다/가슴이 차다/한 눈에 보다(들어오다)/한 톱 내다/
물 쓰듯이 하다/밥 먹듯이/불을 보듯이 뻥하다/귀신같이 알아맞히다/맞
장구를 치다/눈을 뜨다/눈을 의식하다/신경 쓰다/두각을 나타내다/뼈를
묻다/세상을 떠나다/말이 통하다/마음이 가볍다/마음이 무겁다/마음이
넓다/가슴이 찡하다/손에 땀을 쥐게 하다/줄거리가 뻥하다/두 마리 토
끼를 다 잡다/말이 필요 없다/속이 상하다/얼굴이 백지장 같다/자리에
눕다/독 안에 든 쥐/녹초가 되다/기러기 아빠/토끼눈을 하다/콩무니를
빼다/체 바퀴를 돌다/구미가 당기다/상투를 틀다/찬물을 끼었다/눈을
돌리다/한 잔하다/뿌리 뽑다/입씨름 하다/한 탕 하다/눈이 가다/한 뭉
잡다/싹을 자르다/눈길을 끌다/쥐꼬리만큼 하다/신주단지 모시듯/입늘
림이 바쁘다/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넋이 나가다/말을 잃다/한 눈에
볼 수 있다/손 끝 하나 까딱할 수 없다/눈을 뻗 수 없다/가슴이 아프다

/눈코 뜰 새 없다/머리가 무겁다/애를 태우다/어깨가 무겁다/뼈기를 박
 다/속을 썩이다/풀이 죽다/얕느니 죽지/물 쓰듯이/손을 떼다/(큰)마음
 먹다/손발이 되다/마음 맞다/사람 살리다/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눈 감
 아 주다/찬물을 끼었다/손꼽아 기다리다/눈 뜬 장님/도마 위에 오르다/
 밑천이 없다/골이 깊다/발(을) 맞추다/열을 올리다/문 닫다/고배를 마
 시다/마찰을 일으키다/입이 벌어지다/판을 치다/욕을 보다/속 썩다/압
 력을 받다/눈에 띄다/골머리를 앓다/하늘이 두 쪽 나다/눈을 돌리다/귀
 담아 듣지 않다/이 잡듯/손이 크다/손이 작다/손을 잡다/손을 떼다/마
 음이 멧히다/간이 붓다/간에 기별도 안가다/간이 콩알만 해지다/허파에
 바람 들다/쓸개가 빠지다/배가 아프다/한 눈 팔다/물 건너가다/어깨가
 가볍다/어깨가 처지다/어깨가 무겁다/어깨를 겨루다/어깨를 펴다/어깨
 에 힘을 주다/머리가 가볍다/꼬리에 꼬리를 물다/꼬리가 길다/꼬리를
 내리다/머리를 맞대다/머리를 쥐어짜다/각광 받다/돈방석에 앉다/허리
 띠를 졸라매다/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밑져야 본전/오르막길이 있다/내
 리막길이 있다/기(가) 죽다/모 아니면 도/굴곡이 많다/바닥을 치다/눈
 치를 보다/눈치가 빠르다/눈치가 없다/눈치를 채다/눈치 9단/장벽이 높
 다/골이 깊다/고개를 돌리다/손을 달리다/손을 내밀다/귀를 기울이다/
 귀가 얇다/귀가 가볍다/귀가 번쩍 뜨이다/귀를 의심하다/살림을 내주다
 /시치미를 떼다/머리가 아프다/약이 오르다/돈을 먹이다/속을 안다/손
 가락질을 받다/팔자는 그만이다/손버릇이 있다/골을 내다/꿇등으로 들
 다/독이 오르다/눈을 감다/눈에 불이 나다/한 쪽에 치우치다/걸림돌이
 되다/가슴이 미어지다/목이 빠지게 기다리다/손에 땀을 쥐게 하다/손을
 벌리다/골머리를 썩다/물과 기름/물 만난 고기/물에 빠진 생쥐/물 불
 안 가리다/물거품이 되다/찬물을 끼었다/보는 눈이 있다/정신이 팔리다
 /귀에 못이 박히다/몸이 근질근질하다/뜰에 박히다/한 배를 타다/파김
 치가 되다/보는 눈이 달라지다/첫눈에 반하다/눈에 선하다/가슴에 박히
 다/쌍벽을 이루다/눈치가 보이다/제 살 깎아먹기/눈앞이 캄캄하다/기가
 막히다/바람 쐬다/세상을 뜨다/뼈를 깎다/심혈을 기울이다/정신(이) 없
 다/눈에 띄다/손이 가다/몸이 무겁다/목에 힘을 주다/비행기(를) 태우

다/이 잡듯이/무거운 짐을 덜다/눈을 돌리다/일손을 놓다/한숨을 돌리다/상다리가 부러진다/바늘방석에 앉다/발 디딜 틈이 없다/양귀비 뺨칠 정도로/벽을 허물다/꿈도 못 꾸다/귀담아 듣다/구김살 없다

고급 관용구의 총 수는 서울대 교재에서 고급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수이다. 5개 대학 공통관용구는 ‘마음에 들다’, ‘신경을 쓰다’, ‘한 톱 내다’, ‘눈이 높다’, ‘첫눈에 반하다’로 총 5개이고 4개 교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관용구는 ‘발이 넓다’, ‘뜰에 박히다’, ‘꿈을 이루다’, ‘마음이 아프다’이다. 5개 교재 중 3개 교재이상 공통으로 나온 관용구는 16개이다. 각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중 3개 교재이상 공통으로 나온 관용구만을 뽑아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하였다.

<표2-6> 세 교재이상 공통으로 나온 관용구

관용구	경희대	고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마음에 들다	18(초급)	16(초급)	46(초급)	34(초급)	9(초급)
신경을 쓰다	11(중급)	11(중급)	21(중급)	9(중급)	12(중급)
한 톱 내다	4(중급)	1(초급)	5(초급)	7(초급)	11(초급)
눈이 높다	1(중급)	1(중급)	5(중급)	1(중급)	1(중급)
첫눈에 반하다	2(중급)	4(초급)	1(고급)	3(중급)	1(고급)
꿈을 이루다	1(초급)	1(초급)	10(중급)	2(중급)	
발이 넓다	4(중급)	1(중급)	5(중급)	1(중급)	
뜰에 박히다	1(고급)		1(고급)	1(중급)	1(고급)
마음이 아프다	1(고급)		3(중급)	2(중급)	5(중급)
눈에 선하다	1(고급)	2(중급)			2(고급)
귀를 기울이다			1(고급)	1(중급)	1(중급)
한 잔 하다			2(초급)	3(중급)	4(초급)
기가 막히다	3(중급)	1(중급)		6(중급)	
마음 맞다		1(중급)		3(중급)	3(고급)
입이 무겁다	1(중급)		5(중급)	2(중급)	
입에 맞다			6(초급)	2(초급)	3(초급)

5개 대학의 관용구 교육은 초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작하고 중급이 되어야 관용구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재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5개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중 공통 관용구가 5개 밖에 안 되는 것은 각 대학 교재마다 관용구의 목록기준이 다르고 한국어 교재 내용에 관용구가 필

요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관용구목록과 교육방법이 다를 수는 있으나 5개 대학 교재의 공통 관용구가 5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5개 대학 한국어 교재는 공통적으로 초급단계에서는 관용구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급, 고급단계에서 관용구를 따로 교육하는 코너가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관용구를 익힐 수 있게 대화나 본문, 연습문제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용구는 교육받아야 하는 어휘이지 저절로 습득되는 어휘는 아니다. 관용구 교육을 하여도 대학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교육은 대부분 몇 과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경희대 교재 중급에서는 ‘속담과 관용어’부분을 따로 설정하여 관용구의 뜻을 설명하였지만 연습이나 응용활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신체 관용구 ‘입이 무겁다, 눈이 높다, 손이 크다, 발이 넓다, 콧대가 세다, 첫눈에 반하다’는 관용구의 뜻만 설명하고 있다. ‘기가 막히다, 눈 감아 주다, 눈 감다, 한 톱 내다, 바가지를 썼다, 바가지요금을 냈다’ 등은 단원의 주제 ‘분실’과 관련된 관용구를 제시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이러한 구성이 다른 과에는 유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고급과정에서는 문법과 표현에서 예문으로 다루었지만 관용구의 확인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려대는 단원 주제가 ‘봉사하는 삶’으로 단원 주제와 관련된 ‘손’과 관련된 관용구를 제시하고 관용구 각각의 뜻을 찾아 연결하는 문제와 문맥을 통해 ‘손’에 관련된 관용구를 학습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과에서는 단원주제가 ‘건강한 생활’이지만 ‘건강한 생활’과는 무관한 ‘간이 붓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허파에 바람이 들다, 쓸개가 빠지다, 배가 아프다’를 제시하였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건강한 생활’에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를 모아 제시했지만 본문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관용구를 제시하였다. ‘어깨, 머리, 꼬리’에 관련된 관용구도 마찬가지이다. 제시된 관용구를 본문이나 대화내용과 관련지어 함께 익히게 한다면 한국어 학습자가 실생활에 응용하여 사용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고려대 교재에 나타난 관용구 교육은 동일한 명사, 동일한 주제 등으로 관용구를 학습하게 하여 효율적이긴 하나 단순히 외우는 관용구 학습에서 벗어나 대화, 말하기 연습, 활동, 듣기, 쓰기

와 연결된 유기적인 관용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강한국어 5B』는 영화 ‘말아톤’을 보고 ‘손에 땀을 쥐게 하다’, ‘가슴이 찡하다’, ‘줄거리가 뻘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관용구로 영화평을 체크하게 하였고 ‘말아톤’의 관객 평도 ‘손에 땀을 쥐게 하다’, ‘가슴이 찡하다’, ‘줄거리가 뻘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를 사용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관용구를 반복 학습시켰다. 단원의 주제와도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었고 ‘말아톤’과 관련된 질문도 의도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영화!’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찡하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까?’라고 한 뒤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십시오’고 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다’, ‘가슴이 찡하다’, ‘줄거리가 뻘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를 활용하여 말하기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단원 주제와 연결된 관용구를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하게 하고 말하기까지 유도하고 있다. 단원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확일적이고 단순하게 관용구를 교육한 교재와 달리 관용구를 교육하는 구성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유기적으로 관용구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서울대는 관용구를 교재의 본문, 문법과 표현, 연습에 제시하고 있으나 ‘바가지, 굵다, 양다리, 걸치다, 깨, 쏟아지다’는 새 단어에서 각 단어의 사전적인 뜻만 풀이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관용구의 뜻을 풀이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연: 적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바가지를 굵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점점 식지 않을까?

준석: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너처럼 멋있는 여자는 그림의 떡이겠다.

지연: 아이, 비행기 그만 태워. 네 여자 친구는 네가 졸업할 날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아?

준석: 하여튼 네 말을 들으니 이제부터 여자 친구에게 더 잘 해줘야겠다. 혹시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서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이 되네.

「한국어 4」

위의 대화내용을 보면 관용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관용구를 익히도록 하였다. 대화에 나온 관용구를 ‘문법과 표현’에서 ‘나는 우리 엄마가 바가지 굵는 걸 본 적이 없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바가지 굵는 일도 생겨요’, ‘돈 문제 때문에 바가지 굵는 사람이 제일 많다.’의 예문으로 반복 학습하였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도 대화문이나 예문을 통해 반복학습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배운 관용구를 보기에 제시하고 빈칸 채우기를 통해 학습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새 단어에서 관용구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있다.

연세대 교재는 관용구를 대화나 본문에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한 톱 내다’를 유형연습에서 ‘날마다 늦는 사람은 한 톱 내기로 합시다.’ 2권 본문에서는 ‘선생님은 아무 옷이나 어울려요.’, ‘허허,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군. 퇴근 후에 한 톱 내야겠는데요.’의 대화내용에서 관용구의 의미를 화맥을 통해 이해시키고 있다. 연세한국어는 중급, 고급 단계에서도 대화 내용에 자연스럽게 관용구를 사용하였지만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내용만으로 관용구의 뜻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중급, 고급 단계로 갈수록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고급수준의 관용구를 제시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관용구 ‘눈이 빠지도록, 귀가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은 ‘-도록’의 문법 설명에 제시된 관용구이다. ‘-도록’의 문법 설명을 하기 위해 관용구의 예가 필요하였다.

5 대학의 한국어 교재가 제시하는 관용구 교육방법의 기준이 다르지만 각 대학교재의 중심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구는 한국어 교재의 본문, 대화, 문법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관용구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교재 안에 자연스럽게 관용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언어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활한 언어소통에 필요한 언어영역이므로 체계적인 관용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지현(2007)은 어휘학습에 대한 실험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²¹⁾ 1차 어휘평가를 하고 일주일 후에 2차 어휘 평가를 실험한 결과 선다형주석집단이 어휘학습량이 가장 많았다. 단일주석집단의 경우 어휘학습량이 선다형주석

21) 박지현(2009:115-134)은 태국의 세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4학년 학생 51명에게 텍스트 유형에 따라 세 선다형 주석, 단일주석, 무주석으로 어휘평가를 하였다.

집단과 차이가 없었으나 2차 평가점수가 1차 평가점수보다 기억효과가 떨어졌다. 무주석 집단은 두 집단의 절반 정도였다. 박지현(2007)의 어휘학습에 대한 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박민진(2009)는 일상생활에서 관용구를 기억해 내는 쉬운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해 무주석, 의미만을 제시하는 주석, 의미+활용예문을 제시하는 텍스트를 실험하였다.²²⁾

[예1 의미주석 텍스트]

<p>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애를 먹고 있으면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내가 아무 때나 전화를 해도 싫어하지 않고 내말을 모두 들어주는 그런 친구이다.</p>	<p>애를 먹다 큰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p>
--	--------------------------------

[예2 의미+예문주석 텍스트]

<p>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애를 먹고 있으면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내가 아무 때나 전화를 해도 싫어하지 않고 내말을 모두 들어주는 그런 친구이다.</p>	<p>애를 먹다 큰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 ① 길이 미끄러워서 운전하기에 애를 먹었다. ②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을 참느라고 애 먹었어요</p>
--	---

실험결과 1, 2차 어휘평가 모두 의미와 예문을 함께 제시한 집단의 어휘평가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의미주석 집단이고, 무주석 집단의 경우 점수가 아주 낮았다. 1주일 후에 실시된 2차 어휘평가는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여 실험의 정확도를 파악하려 했다. 실험결과 의미를 제시하는 주석보다 의미와 예문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어휘학습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22) 박민진, 「주석이 한국어 관용어의 우연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증명되었다.²³⁾ 관용구 주석도 관용구 학습에 도움을 주지만 의미주석과 더불어 예문을 제시해주면 학습효과가 더 높아진다.

위의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어 학습자는 관용구를 대화나 본문, 예시문에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박민진(2009)이 주석이 한국어 관용구에 미치는 우연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처럼 단순하게라도 관용구의 뜻을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새 단어에서 관용구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대화, 본문에서만 익히도록 하는 관용구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는 몇 과에만 집중적으로 관용구를 설명하는데 그치거나 대화나 본문내용, 예시문을 통해 스스로 학습자가 이해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급, 고급과정의 관용구는 문화적 배경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일상어와 다름없이 본문이나 대화에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모어화자는 고급수준의 관용구에 사용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도 관습적으로 익힌 관용구의 뜻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화자와 달리 실생활에서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가 관용의미로 전이될 때 관용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단어의 뜻을 익히는 것은 관용구 교육의 기본이다.

5개 대학 교재의 관용구 분석결과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구가 대학교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관용구의 단계별 제시와 출현 빈도가 초급에서는 어느 정도는 통일감 있게 이루어졌지만 중급, 고급과정에서 사용되는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과 범위는 각 대학교재의 자체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학교재에서 관용구 교육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육되어질 필요가 있지만 대학교재마다 관용구 목록선정과 난이도가 상이하고 유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의 관용구 교육은 각 대학마다의 기준과 학습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방법이 더 유용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용구가 문맥이나 대화에 사용될 때 일반어보다 관용구를 기억해 내기 어렵고 관용구를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는 것이 한국어 학습

23) 박택제·박성현(2011:272-275), 『외국어 습득론과 한국어 교수』

자에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여 관용구 교육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는 습관적으로 익혀 온 모어화자와 달리 관용구와 관용구에 내포되어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모어화자에게는 일상어와 다름없이 쓰이는 관용구이지만 관용구를 교육받는 대상이 모어화자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는 어휘부터 이해해야 한다. 관용구를 이루는 단어로 관용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 방안으로 어휘의 의미와 어휘의 연상의미를 통하여 관용의미를 파악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하나의 표현에 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관용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문맥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 방안으로 관용구 교육을 하고자 한다. 또한 언어는 문화가 같이 융화되어 관용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관용구에 문화가 내포되어 있는 언어와 유래나 역사, 한국문화와 관련된 관용구를 설명하여 관용구의 형성배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관용구의 뜻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관용구 교육 방안에 앞서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칠 관용구 목록을 선정하고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관용구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휘의 이해와 관용구 이해와 사용간의 관계, 모국어 관용구와 한국어 관용구와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3장에서는 외국인 학습자 중 중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관용구 이해에 따른 난이도 분석

3.1. 관용구의 개념과 특성

관용구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연구자들에 의해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관용구의 단위를 단어에서 구절복합 그리고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본론에 앞서 관용구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연구자들에 의한 관용구의 정의를 살펴보자. 김종택(1971)은 둘 이상의 단어와 함께 이어지고 혹은 상응하게 쓰여 그 결합이 전체로 어떤 고정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고, 김문창(1974)은 두 어사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절로서 문법, 의미, 통사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각 구성요소 간의 결합도 긴밀하여 일반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화석형이라고 하였다. 박영순(1985)은 관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된 언어형태로서 구조적으로는 두 단어의 이상이 결합된 복수구조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단일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최경봉(1992)은 관용어는 단일한 의미를 창출하는 둘 이상 자립성분의 어휘 복합체라 하였고, 오제운(1998)은 그 나라 언중이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말로써 둘 이상의 어사가 긴밀히 결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권경일(2005)은 관용구가 구성이 항상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구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관용구의 용어는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관용구의 개념을 정리하면, '관용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구나 절로 이루어지고 단일 의미를 가지는 언어이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관용구의 여러 가지 용어 중 '관용어', '관용구', '관용표현'이 보편적으로 자주 쓰인다. 관용표현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표현'은 일반적으로 문장뿐만 아니라 문장보다 더 큰 언어 형식에서도 쓰인다.²⁴⁾ 그러므로 관용구를 관용표현으로 혼재하여 사용하는

24) 문금현(1996)에서 관용표현을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나누고 협의의 관용표현에서 구성형식에 따라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으로 분류하였다.

것은 적절하지 않다.²⁵⁾ 관용어의 개념은 어휘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였고 관용어가 관용구나 관용표현 보다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지만²⁶⁾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자들이 정의한 관용구의 형식적 특성이 용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기로 하겠다.²⁷⁾ 본 연구의 관용구에 대한 의미적 특성으로는 단어 이상의 구나 절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함으로 고정적인 특성을 지닌 의미의 불투명성을 지칭하는 ‘idiom’ 대신 ‘Phraseme’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²⁸⁾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관용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구나 절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의미는 비합성성과 합성성을 가진 언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구의 범주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범위로 규정되어 왔다.²⁹⁾ 본 연구에서는 관용구 교육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관용구의 범주로 첫째, 관용구의 형태적 특성에 의해 복합어를 제외하고 구, 절, 문장으로 정한다. 둘째, 유행어, 은어, 수수께끼, 인사말, 고사성어는 관용구에서 제외한다. 셋째, 은유·직유표현이라도 고정성, 대중성에 의해 비유적 추론 없이 바로 이해되는 표현은 관용구에 포함한다. 넷째, 속담에서 비롯된 체언형 관용구는³⁰⁾ 속담이 축소되고 결합성이 증가하여 관용구로 변하였다.

25) 심재기(1986)는 어휘적 관용표현은 속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금기어 등으로 문장차원의 관용표현은 속담, 고사성어, 금기어, 격언, 인사말 등으로 분류하였다. 심재기(2003)는 관용표현이 용어의 불일치는 보이지만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착된 듯 하었다고 하였다. 김지혜(2006)는 관용표현에 관용어, 속담, 성어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26) 김부경(2005)은 관용어는 관습적으로 쓰이는 고정된 형태의 말로서 의미상 하나의 단어로 치환되며 반드시 구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용어로 ‘관용어’를 취하였다고 하였다.

27) 문금현(1996)에서 협의의 관용표현 형식적 기준에서 관용어의 ‘어(語)’를 단어자격으로 보았다. 김지혜(2006)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단어로 지칭해야 하는데 ‘관용어’란 용어가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단어 이상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재춘(2010)은 ‘관용구’라는 용어에 형태적 특징인 구(句)가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28) 권경일(2005:13)에서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쓰이는 구(句) 구성에 대하여 phraseme과 idiom이라고 용어가 쓰여 왔다고 하였다. 이 두 용어의 차이는 주로 구 소련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학에서는 phraseme이 영·미의 문학의 언어학에서 idiom을 주된 용어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idiom은 고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 중에서 의미적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phraseme은 언어단위를 광범위하게 가리킨다고 하였다.

29) 문금현(1996)은 관용구 범주를 광의의 관용표현으로는 격언, 금기담, 은유표현, 직유표현, 간접화행표현, 인사말 등의 상투적 표현, 다의어를 구성하는 상용구절로 보았고 협의의 관용표현은 순수 융합 합성어, 순수 관용어, 순수 관용구, 속담적 관용구, 순수 관용절, 속담적 관용절, 순수 관용문, 속담적 관용문, 속담문으로 보았다.

속담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아 속담과 관용구의 경계구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³¹⁾ 속담에서 관용구로 변한 체언형 관용구는 관용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다섯째, 관용적 연어는 구성요소의 전의적 의미에 기초하여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하나의 단위처럼 쓰이는 구성이다. 관용적 연어는 연어 구성 중에서 그들의 결합 관계가 통사·의미론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관용성을 관용적 연어라 하는데 이들의 결합관계는 선택제약의 관계를 벗어나 구성요소의 의미전이로 인한 관용적 결합 관계로 보아³²⁾ 관용구에 포함시켰다. 여섯째, 상투적 비유표현은³³⁾ 일정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고정적 형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인 관용표현 역시 관용구가 되었다. 일곱째, 관용구와 다의어는 비유적인 성격과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다는 면에서 혼동이 온다. 다의어는 기본의미와 파생의미 사이의 유연성을 가지지만 관용구는 유연성을 가지지 못하고 유의형이나 반의형에만 제한되어 구성요소의 교체가 가능한 다의어와 다르다.³⁴⁾ 하지만 관용구의 생성은 의미변화나 의미확대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의어의 의미변화의 정도에 따라 관용구로 인정할지 다의어로 인정할지 기준이 애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관용구에 포함시켰다.³⁵⁾

30) 주영진(2001),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되기 원리」에서 속담에서 관용구로 넘어가는 중심 원리는 축소, 결속, 중복, 유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관용구로 변했지만 속담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고 공존하는 예로 ‘(부스럼을 긁으면) 가려운 범이다 → 긁어 부스럼,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 오리발 내민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같은 값이면’ 등이 있다고 하였다. 김지혜(2006)는 ‘닭 잡아 오리발 내민다’는 속담은 ‘오리발 내민다’, ‘오리발’로 의미가 전달되고, 문장형식을 갖춘 속담은 속담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오리발 내민다’ ‘오리발’은 관용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31)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문화 300 취미 한어속어』에서 체언형 관용구 ‘누워서 떡먹기, 누워서 침뱉기, 땅 짚고 헤엄치기, 도토리 키재기, 울며 겨자먹기’ 등이 중국에서 출판된 책에는 속담에 포함되어 있어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32) 김진혜(2000)는 광의의 연어는 통사 의미론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가 동일한 문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어휘들의 공기관계라 하고, 협의의 연어는 특정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간의 제한적 공기관계라고 정의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광의의 연어는 ‘밥을 먹다’이고, 협의의 연어는 ‘웃음을 사다’로 기본적인 의미에서 전의되어 ‘비웃음을 당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관용적 연어라고 하였다. 권경일(2004:29 재인용)

33) 상투적 비유표현에는 ‘눈 깜짝 할 사이, 손 하나 까닥 안하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등이 있다.

34) 문금현(2006:147-148),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35) 최경봉(1992)에서 다의어는 동음어와의 차별성에 의해 그 영역을 비교적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의미적 관련성을 어디까지 두어야 할 것인가는 문제로 남는다고 하였다. 문금현(2006)은 관용구절 중에는 구성요소 중 다의어를 거친 후에 관용화가 된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혼동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의 관용구 범주는 복합어를 제외하고 구, 절, 문장으로 정하고 은유·직유표현이라도 고정성, 대중성에 의해 비유적 추론 없이 바로 이해되는 표현, 속담에서 관용구로 변한 체언형 관용구, 관용적 연어, 상투적 비유표현 등이다. 그리고 의미전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의어를 관용구에 포함시켰고, 유행어, 은어, 수수께끼, 인사말, 고사성어 등은 관용구에서 제외하였다.

관용구는 구(句)나 구(句) 이상의 구조를 가졌고 의미는 단일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대치할 수 있다.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것은 관용구를 구성하는 어휘들이다. 관용구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의미가 전이되거나 비유에 의해 관용의미가 생성되기도 한다. 직설표현의 문자적 의미가 관용구의 의미해석과 관용구의 구성에 [+연상의미효과, +상황적 의미, +감정가치]가³⁶⁾ 포함되어 관용구의 구성성분의 의미가 전체 의미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용구가 분해성을 가지며 그 부분들의 의미가 전체 관용구의 의미와 정도성에 따라 투명성이 달라져 관용구의 합성성의 정도가 달라진다.³⁷⁾ 이것은 관용구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연관성을 분리하기보다 관용적 맥락에서 직설의미와 관용의미가 공존함을 뜻한다.

관용의미는 관용구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가 전이되어 관용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제3의 관용의미를 가지는 것까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학자들은 관용구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상관성을 유추의 정도에 따라 나누었다. 합성성의 원리에 의한 관용표현의 정도성은 의미적 투명성³⁸⁾에 따라 달라진다. 관용구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36) 정옥주(1985)는 관용어(관용단어), 관용구(관용구절)=속어, 관용문(관용문장, 관용적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관용어는 단일어로 제 3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고 관용구는 구나 절의 형태이고 관용의미에는 [+연상의 의미효과, +상황적 의미, +감정가치]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37) 송혜원(2005:14)연구에서 '의미의 투명도란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의 예측 가능성 또는 유연성(motivation)의 정도를 뜻하며 문자의미가 더 이상 이해될 수 없을 때 불투명어가 되는 것이며 투명어는 글자 그대로의 직설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하였다. 최경봉(1992)은 합성성의 원리에 의한 관용표현의 정도성을 의미적 투명성에 따라 근접투명,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중의 하나로 나누었다 박영순(1985)은 관용구의 의미를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의미의 반투명, 의미의 반불투명, 의미의 불투명형으로 나누었다.

38) 유태자(1997)는 관용구의 의미의 투명성은 세대나 사람 개개인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도 구분이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상관성에 의해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의미 투명성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단계 수준별 관용구 교육을 할 수 있다.

문금현(1996)은 각 어휘의 원래 의미가 전체 의미에 반영되는 정도를 투명도라 하였는데 투명도에 따라 반투명한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 불투명한 유형으로 나누었다. 반투명성은 어휘의 원래 의미와 관용의미와의 관계성이 강하여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관용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이다. 반투명한 유형은 초급 단계에 해당되어 관용의미를 유추하는데 용이하고 관용구를 이루는 어휘가 상대적으로 쉬워야한다. 즉, 직설의미만으로 관용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관용구이다. 반불투명한 유형은 어휘의 원래 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의 관계성이 약하지만 어휘의 원래 의미에 의해서 관용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고 생성배경을 짐작하는데 있어서도 불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관용구는 관용의미를 직설의미로 의미를 유추하는데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으나 반투명한 유형의 관용구에 비해 관용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반불투명한 유형에 속하는 관용구의 어휘는 중급수준이다. 중급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역사,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관용구가 생성된 유래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어느 정도 관용구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원활한 언어구사를 위하여 문맥이나 발화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용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불투명한 유형은 어휘의 고유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성이 없고 관용의미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연상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생성배경도 짐작할 수 없는 관용구라 하였다. 관용구가 불투명한 것일수록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유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불투명한 유형은 관용구 교육에 있어서 대체로 고급 수준에 해당한다. 고급 단계는 자의성이 강하여 축자의미로 전혀 관용의미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생성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유래, 현재 잘 쓰이지 않는 고어, 서민들의 생활 사이에서 저절로 형성된 관용구 등이 사용되어 의미 연상이나 유추가 어렵다. 하지만 고급단계의 외국인 학습자는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용구를 배워야 하고 구어적 관용구뿐만 아니라 소설, 에세이, 신문에 나오는 문어적

관용구도 배워야 한다.³⁹⁾ 고급 수준의 관용구도 다양한 문맥에 많이 나타나며 일상어와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용구는 난이도가 높아 어휘의 뜻과 유래를 제대로 학습시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처럼 관용구는 어휘의 원래 의미가 전체 의미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관용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제3의 관용 의미를 갖는 것까지 존재한다.⁴⁰⁾

위와 같이 관용구를 반투명한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 불투명한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관용구의 분류기준은 세대에 따라 직업에 따라 개개인이 기준에 따라 달리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관용구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와 같은 분류가 학습효과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의 결과이다.

3.2. 관용구 목록선정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용구 목록 기준을 선정하고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 관용구의 선정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빈도수이다. 관용구의 수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쓰이지만 한

39) 전해영(2001)에서 초급, 중급단계는 구어적 관용표현을 배워야 하고 고급단계에서는 문어적 관용구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40) 문금현(1996)은 전통적으로 관용구는 비합성성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의미자질 전이현상에서 $A+B=C$ 의 과정에서 A의 여러 의미자질 중에서 $[a^*]$ 가 부각되고 B의 여러 자질 중에서 $[+β]$ 가 부각되어 연상되는 의미에 의해서 C라는 관용의미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국 비유적 의미라고 하는 것들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순수하게 생성될 수 없기에 완전히 비합성적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연(2009)은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의 관용구의 의미범주 구조에는 합성성이 나타나지 않는 관용구(원형적 관용구)와 합성성이 나타나는 관용구(비원형적 관용구)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의미의 합성성에 따라 구성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관용구의 관용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의미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관용구(semanticly decomposable idioms), 그 관용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 단어들의 은유적 사상을 통한 개념화를 거쳐서 관용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인 비정상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관용구((abnormally decomposable idioms), 투명성이 달라지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 단어들의 의미로는 그 관용구의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의미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관용구(semanticly non-decomposable idioms)가 있다고 하였다. 전통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에서 관용의미의 합성성에서 완전히 제3의 의미를 갖는 관용구는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에는 일치한다고 하였다.

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관용구를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의미의 투명성 정도와 난이도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용구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관용구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언어교육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모어화자에게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어일 뿐이고 실생활에서 늘 쓰이는 언어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용구는 외국인 학습자가 배워야 할 언어교육의 한 부분이다.⁴¹⁾

관용구 설문조사와 관용구의 교육 방안에 앞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 교재를 통해 관용구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각 대학의 한국어 교재의 내용과 교수방법에 따라 관용구 목록이 선정되어 다섯 대학의 관용구 목록에서 공통된 관용구가 다섯 개뿐이었다. 각 대학의 한국어 교재는 중급, 고급단계로 갈수록 단계별 관용구가 교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도 분석과 관련한 관용구 목록 선정을 실시하였다. 1차 선정은 문금현(1996)의 연구 결과 통시적, 공시적으로 사용된 관용구와 5개 대학 한국어 교재에 나온 관용구, 『우리말 속어 1000가지』, 『한국인이 자주 쓰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뽑아낸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에 실려 있는 관용구 100개, 박영준 최경봉의 『관용어사전』에 나온 관용구를 참조하여 300개를 뽑았다. 2차 선정은 1차 선정에서 뽑은 관용구 300개를 현대에서 사용하는 관용구를 기록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⁴²⁾의 관용구와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관용구

41)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 ‘언어 사용(언어 학습 포함)은 인간이 개인으로서, 또 사회적 행위자로서 일반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특히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을 발전시키는 행위이고 인간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나온 주제에 대해 텍스트를 다양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언어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언어 사용 능력에는 일반적 능력, 의사소통적 언어능력, 의사소통적 언어활동이 있는데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에 관용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관용구가 의사소통적 언어능력을 위해 언어교육을 할 때 배워야 할 영역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일러두기’에서 ‘관용구의 수록 범위는 현대에서 사용하는 관용구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Ⅱ』에서 ‘1. 속담/관용구/합성어/용례 구분 기준에서 1) 속담과 관용어의 구별 통사구조는 속담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관용구는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속담은 축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관용의미를 유추하기는 쉬우나 관용구는 관용성의 정도에 따라서 축자의미와의 유연성이 다른 하지만, 속담보다는 의미를 유추해 내기가 쉽지 않다. 수사적 차원에서 속담은 현실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지만, 관용구의 경우는 과장된 표현이 많다. 화용론적 차원에서 속담은 받

78개를 추출하였다. 3차 선정은 기존 목록에 안 뽑힌 것인데 『관용어사전』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관용구에 중복되어 나타나고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이야기 되고 빈도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은 22개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본 연구의 설문지는 관용구에 포함된 단어의 이해와 관용구 자체 의미의 이해 그리고 관용구의 사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연구와 한국어 교재 그리고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있는 관용구 등을 기초로 하여 초급부터 고급수준까지의 관용구 100개를 선정하고, 이를 국내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에 걸쳐서 직접 면접법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대상은 국내 대학에서 학습하고 있는 예비 대학생, 대학생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방문한 한국어 현지 교수 등이다. 설문조사의 현실적인 제약 사항 등으로 국내 일부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한국어 수강생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관용구 관련 설문은 실제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외국인 학습자의 관용구 이해에 대한 정량적 정보

화상에서도 어떤 고정된 틀을 가지거나 직유나 인용 형식과 함께 쓰인다. 반면에 관용구는 문장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2) ①중간에 조사의 개입이 불가능하면 합성어로 보아 붙여 쓴다. ② ‘있다’, ‘없다’가 짝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도 합성어로 보아 붙여 쓴다. ‘있다’ 앞에 조사 ‘이/가’를 넣어야만 말이 성립해도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③ ‘맛있다, 맛없다, 멋있다, 멋없다,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위의 원칙과 달리 한 단어로 본다. 특히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 음운론적인 단어경계를 상실했다. ④ ‘-없이’가 붙는 말은 ‘없다’가 표제어로 올라있는 한에서만 표제어로 인정한다. 곧 ‘없다’라는 표제어가 없으면 ‘없이’라는 표제어도 없다.

3) 관용구와 용례의 구별표제어의 뜻풀이 자체로 전체구의 뜻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용례로 처리한다. 즉 ‘병을 앓다’와 같은 ‘병’의 뜻은 ‘앓다’의 뜻으로 전체구의 뜻풀이가 파악되기 때문에 관용구로 보지 않고 용례로 본다. 2. 능동형, 주동형에 대해 피동형과 사동형의 관용구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능동형, 주동형, 피동형, 사동형 모두를 관용구로 등재한다. 3. 「조선말 대사전」에만 있는 속담이나 관용구도 표제어로 선정한다. 4. 관용구나 속담은 현대 국어 표준어로 쓰이는 것을 등재한다. 1) 구성성분 중에 방언 또는 고어가 섞여 있어도 해당 관용구/속담 전체가 표준어로 인정된다면 등재한다. 2) 관용구의 경우는 해당 표제어가 비표준어나 방언인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는 해당 표제어를 표준형으로 수정한 후 표준 어형 아래 관용구를 등재한다. 3) 관용구나 속담의 구성성분이 모두 표준어이지만 속담·관용구 전체가 방언으로 판단되면 삭제한다. 4) 생략 가능한 성분은 () 안에 제시한다’고 하였다. pp.474-481

(quantitative information)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근거로 관용구에 대한 이해분석과 교육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3-1> 조사 표본 특성

조사	내용
조사대상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주로 경희대, 외국어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생과 직업인 대상)
예비조사	2012년 6월1일-2012년 6월 14일
본 조사기간	2012년 7월1일-2012년 7월 15일
설문조사	- 총 배포된 설문지 : 250부 - 회수된 설문지 : 212부 - 폐기된 설문지 : 12부 - 분석된 설문지 수 : 200부

조사에 앞서 설문문항과 설문방식의 초기 문제점을 이해하고 보완하고자 10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2012년 6월 1일-2012년 6월 14일에 먼저 실시하였으며, 본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일-2012년 7월 15일까지 약 15일간 동안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사전에 실시한 이유는 관용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조사이고 조사자가 설문지를 아무리 치밀하게 만들어도 경험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설문이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과정에서도 관용구란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설문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3-1>은 관용구 설문 조사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표3-2> 조사 대상 중국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00)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n=190)	남성	49	26%
	여성	141	74%
연령 (n=200)	10대	12	6%
	20대	181	91%
	30대	7	3%
직업 (n=200)	대학생 및 언어교육원 학생	156	78%
	대학원생	1	1%
	교사	2	1%
	기타	41	20%
체류기간 (n=159)	6개월미만	31	19%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75	47%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36	23%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5	3%
	36개월 이상	12	8%
학습기간 (n=168)	6개월미만	19	11%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4	20%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47	28%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45	27%
	36개월 이상	22	13%

* 비율(%)에서 소수점 이하 단위 절삭, n은 조사에 응답한 유효기입수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3-2>와 같다. 총 200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이 49명(26%), 여성이 141명(74%)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 중 여성비율이 높은 현 상황을 반영한다. 연령 분포는 10대가 12명(6%), 20대가 181명(91%), 30대(3%)로, 20대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직업은 대부분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과 언어교육원생이 156명(78%)으로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체류기간은 6개월 미만이 31명(1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75명(47%),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 36명(23%),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5명(3%), 36개월 이상이 12명(8%)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중국 등 해외 거주지에서의 학습을 포함한 학습기간은 6개월 미만이 19명(11%),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 34명(2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47명(28%),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45명(27%), 36개월 이상이 22명(13%)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특성은 연령대는 20대, 직업은 대학생 또는 언어교육원 학생, 한국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학습기간은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이해도에 따른 관용구 특성 분석

설문조사 목적으로 선정된 관용구 목록 100개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설문조사하여 관용구 이해도를 조사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방안의 틀을 마련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인이 생각하는 관용구의 이해도와 외국인 학습자가 생각하는 관용구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어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100개의 관용구 목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용구를 교육받는 대상이 모어화자가 아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생활속에서 관용구를 학습하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어휘와 관용구 습득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는 모어화자와 달리 어휘의 이해와 문화의 이질성 등으로 인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관용구 이해를 어렵게 한다. 관용구의 구성단어 이해, 의미의 이해, 사용에 따른 100개 관용구의 이해 및 사용빈도수는 <표 3-3>에 나타난 결과와 같다.

<표3-3> 의미 이해 여부에 따른 관용구 순위

순번	관용구	단어 이해 빈도수	단어 이해 비율	의미 이해 빈도수	의미 이해 비율	사용 빈도수	사용 비율
1	꿈을 깨다	146	73.0%	155	77.5%	102	51.0%
2	귀가 얇다	136	68.0%	144	72.0%	100	50.0%
3	머리가 복잡하다	133	66.5%	143	71.5%	91	45.5%

4	손이 크다	139	69.5%	142	71.0%	107	53.5%
5	눈이 맞다	126	63.0%	126	63.0%	88	44.0%
6	신경을 쓰다	122	61.0%	125	62.5%	119	59.5%
7	귀가 아프다	138	69.0%	124	62.0%	76	38.0%
8	입을 맞추다	124	62.0%	124	62.0%	85	42.5%
9	그림의 떡	120	60.0%	121	60.5%	94	47.0%
10	같은 값이면	139	69.5%	119	59.5%	81	40.5%
11	말을 잃다	124	62.0%	112	56.0%	69	34.5%
12	그림이 좋다	131	65.5%	111	55.5%	77	38.5%
13	이야기가 다르다	127	63.5%	110	55.0%	65	32.5%
14	사람 죽이다	131	65.5%	108	54.0%	67	33.5%
15	바람이 들다	118	59.0%	99	49.5%	61	30.5%
16	색안경을 쓰다	99	49.5%	99	49.5%	56	28.0%
17	간이 떨어지다	114	57.0%	97	48.5%	49	24.5%
18	자리가 잡히다	109	54.5%	97	48.5%	55	27.5%
19	말을 돌리다	104	52.0%	94	47.0%	58	29.0%
20	귀를 기울이다	105	52.5%	90	45.0%	64	32.0%
21	눈코 뜰 사이 없다	92	46.0%	89	44.5%	56	28.0%
22	눈에 띄다	95	47.5%	87	43.5%	57	28.5%
23	구경도 못하다	120	60.0%	86	43.0%	51	25.5%
24	국물도 없다	113	56.5%	80	40.0%	40	20.0%
25	고사를 지내다	108	54.0%	78	39.0%	45	22.5%
26	손가락질을 받다	97	48.5%	78	39.0%	39	19.5%
27	콩밥을 먹다	104	52.0%	78	39.0%	39	19.5%
28	양다리를 걸치다	85	42.5%	77	38.5%	50	25.0%
29	눈 하나 깜짝 안하다	116	58.0%	75	37.5%	44	22.0%
30	바가지를 쓰다	98	49.0%	74	37.0%	45	22.5%
31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	99	49.5%	74	37.0%	37	18.5%
32	귀에 못이 박히다	99	49.5%	71	35.5%	40	20.0%
33	별 볼 일 없다	91	45.5%	70	35.0%	51	25.5%
34	가슴이 찢리다	85	42.5%	68	34.0%	33	16.5%
35	다리를 놓다	107	53.5%	68	34.0%	38	19.0%
36	속이 보이다	91	45.5%	68	34.0%	36	18.0%

37	가슴에 새기다	93	46.5%	67	33.5%	30	15.0%
38	팔자에 없다	80	40.0%	66	33.0%	29	14.5%
39	피땀을 흘리다	74	37.0%	65	32.5%	42	21.0%
40	웬 떡이나	85	42.5%	64	32.0%	40	20.0%
41	금이 가다	107	53.5%	60	30.0%	36	18.0%
42	가면을 벗다	86	43.0%	59	29.5%	24	12.0%
43	둘도 없다	88	44.0%	59	29.5%	29	14.5%
44	머리를 맞대다	87	43.5%	58	29.0%	32	16.0%
45	안면을 바꾸다	84	42.0%	58	29.0%	27	13.5%
46	허리띠를 졸라매다	63	31.5%	58	29.0%	34	17.0%
47	뒤를 거두다	76	38.0%	57	28.5%	23	11.5%
48	등을 돌리다	80	40.0%	56	28.0%	35	17.5%
49	눈이 빠다	73	36.5%	55	27.5%	26	13.0%
50	쥐구멍을 찾다	75	37.5%	54	27.0%	28	14.0%
51	발 등에 불 떨어지다	79	39.5%	53	26.5%	31	15.5%
52	손을 벌리다	90	45.0%	53	26.5%	31	15.5%
53	코웃음을 치다	72	36.0%	53	26.5%	26	13.0%
54	뼈와 살이 되다	89	44.5%	52	26.0%	24	12.0%
55	허리가 휘다	77	38.5%	52	26.0%	25	12.5%
56	다리를 뻗고 자다	75	37.5%	51	25.5%	31	15.5%
57	깨가 쏟아지다	76	38.0%	50	25.0%	27	13.5%
58	밑도 끝도 없다	87	43.5%	49	24.5%	24	12.0%
59	명함을 내밀다	75	37.5%	48	24.0%	25	12.5%
60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	64	32.0%	46	23.0%	18	9.0%
61	입에 발린 소리	79	39.5%	45	22.5%	22	11.0%
62	바닥을 기다	71	35.5%	44	22.0%	22	11.0%
63	간이 콩알만 하다	47	23.5%	43	21.5%	30	15.0%
64	한 우물을 파다	64	32.0%	43	21.5%	27	13.5%
65	돼지 먹따는 소리	66	33.0%	41	20.5%	20	10.0%
66	간이 붓다	74	37.0%	40	20.0%	17	8.5%
67	돈방석에 앉다	60	30.0%	40	20.0%	19	9.5%
68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50	25.0%	40	20.0%	22	11.0%
69	어깨를 겨루다	56	28.0%	40	20.0%	20	10.0%

70	간에 기별도 안간다	59	29.5%	39	19.5%	22	11.0%
71	무게를 잡다	77	38.5%	38	19.0%	16	8.0%
72	녹초가 되다	79	39.5%	37	18.5%	21	10.5%
73	맺고 끊다	70	35.0%	37	18.5%	23	11.5%
74	파김치가 되다	65	32.5%	36	18.0%	18	9.0%
75	상다리가 휘어지다	50	25.0%	35	17.5%	22	11.0%
76	콩가루가 되다	63	31.5%	35	17.5%	15	7.5%
77	가랑이가 찢어지다	52	26.0%	33	16.5%	11	5.5%
78	엷지른 물	52	26.0%	32	16.0%	20	10.0%
79	적을 두다	64	32.0%	31	15.5%	16	8.0%
80	뒷짐을 지다	51	25.5%	29	14.5%	11	5.5%
81	볼 장 다 보다	65	32.5%	29	14.5%	17	8.5%
82	쥐뿔도 없다	51	25.5%	26	13.0%	14	7.0%
83	감투를 쓰다	49	24.5%	25	12.5%	19	9.5%
84	구색이 맞다	58	29.0%	25	12.5%	11	5.5%
85	북장단을 치다	52	26.0%	25	12.5%	14	7.0%
86	싸을 밟다	48	24.0%	25	12.5%	14	7.0%
87	주둥이를 놀리다	50	25.0%	25	12.5%	17	8.5%
88	알랑방귀를 뀌다	43	21.5%	23	11.5%	14	7.0%
89	입방아를 찧다	41	20.5%	23	11.5%	16	8.0%
90	좁이 쭈시다	44	22.0%	23	11.5%	6	3.0%
91	총대를 메다	40	20.0%	23	11.5%	14	7.0%
92	칼자루를 쥐다	34	17.0%	23	11.5%	13	6.5%
93	뼈대가 있다	57	28.5%	22	11.0%	14	7.0%
94	낙동강 오리알	40	20.0%	21	10.5%	10	5.0%
95	등골이 오싹하다	32	16.0%	21	10.5%	18	9.0%
96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27	13.5%	20	10.0%	6	3.0%
97	싸수가 노랗다	38	19.0%	19	9.5%	10	5.0%
98	종지부를 찍다	36	18.0%	19	9.5%	15	7.5%
99	골수에 맺히다	44	22.0%	15	7.5%	11	5.5%
100	오지랖이 넓다	36	18.0%	14	7.0%	9	4.5%
	평균	82	40.8%	61	30.5%	36	18.1%

<표3-3>에서 표본 관용구 중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았던 관용구는 ‘꿈을 깨다’로 조사되었으며, 200명의 77.5%인 155명이 관용구의 뜻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51%인 102명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본 것으로 대답하였다. 가장 이해도가 낮았던 관용구는 ‘오지랖이 넓다’로 200명의 7.0%인 14명만이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6명이 ‘오지랖’과 ‘넓다’라는 단어의 뜻을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중국인 학습자는 4.5%인 9명에 불과하였다. 가장 이해도 높았던 ‘꿈을 깨다’라는 관용구는 응답의 73%인 146명이 구성된 단어의 개별 뜻을 이해한다고 답변하였다.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관용구는 ‘신경을 쓰다’로 200명 중 119명인 59.5%가 사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200명 응답자중 평균적으로 관용구에 대해 40.8%정도가 관용구에 포함된 단어를 이해하였으며, 30.5%는 뜻의 이해를, 18.1%는 사용을 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관용구에 포함된 개별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사용의 단계에 까지 이르는 수준은 더욱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에 의해 100개의 표본 관용구를 각각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 33개, 이해도가 중간인 관용구 34개, 이해도가 낮은 관용구 33개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4>는 100개의 설문대상 관용구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 관점에서 분류한 이해도 수준별 관용구이다. 통계분석의 편의상 이해도의 정도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표3-4> 설문조사에 의한 관용구 이해도 분류⁴³⁾

난이도	관용구
그룹 I: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 (33개)	꿈을 깨다, 귀가 얇다, 머리가 복잡하다, 손이 크다, 눈이 맞다, 신경을 쓰다, 귀가 아프다, 입을 맞추다, 그림의 떡, 같은 값이면, 말을 잃다, 그림이 좋다,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 죽이다, 바람이 들다, 색안경을 쓰다, 간이 떨어진다, 자리가 잡히다, 말을 돌리다, 귀를 기울이다, 눈코 뜰 사이 없다, 눈에 띄다, 구경도 못하다, 국물도 없다, 고사를 지내다, 손가락

43) 관용구의 이해도에 따라 그룹 I(이해도가 높은 관용구), 그룹 II(이해도가 중간인 관용구), 그룹 III(이해도가 낮은 관용구)로 구분한다. ‘그룹 I, II, III’로 표현한 것은 설문 분석 결과를 설명할 때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질을 받다, 콩밥을 먹다, 양다리를 걸치다, 눈 하나 깜짝 안하다, 바가지 를 쓰다,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 귀에 못이 박히다, 별 볼 일 없다,
그룹II: 이해도 가 중간인 관용구 (34개)	가슴이 찢리다, 다리를 놓다, 속이 보이다, 가슴에 새기다, 팔자에 없다, 피땀을 흘리다, 웬 떡이나, 금이 가다, 가면을 벗다, 돌도 없다, 머리를 맞대다, 안면을 바꾸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뒤를 거두다, 등을 돌리다, 눈이 빠다, 쥐구멍을 찾다, 발등에 불 떨어지다, 손을 벌리다, 코웃음을 치다, 뼈와 살이 되다, 허리가 휘다, 다리를 뺀고 자다, 깨가 쏟아지다, 밑도 끝도 없다, 명함을 내밀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 입에 발린 소 리, 바닥을 기다, 간이 콩알만 하다, 한 우물을 파다, 돼지 먹따는 소리, 간이 붓다, 돈방석에 앉다
그룹III: 이해도 가 낮은 관용구 (33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어깨를 겨루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무게를 잡 다, 녹초가 되다, 맺고 끊다, 파김치가 되다, 상다리가 휘어지다, 콩가루 가 되다, 가랑이가 찢어지다, 옹지른 물, 적을 두다, 뒷짐을 지다, 불 장 다 보다, 쥐뿔도 없다, 감투를 쓰다, 구색이 맞다, 복장단을 치다, 싹을 밟다, 주둥이를 놀리다, 알랑방귀를 쐬다, 입방아를 찼다, 쯤이 쭈시다, 총대를 메다, 칼자루를 쥐다, 뼈대가 있다, 낙동강 오리알, 등골이 오싹 하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싹수가 노랗다, 종지부를 찍다, 골수에 맺 히다, 오지랖이 넓다

3.3.1.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의 특성

중국인 학습자가 선택한 이해가 높은 관용구는 관용구를 구성하는 어휘가 쉽고 축자적 의미만으로 관용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관용구가 많다. 또한 한국어 관용구와 중국어 관용구가 동형동의(同形同意)인 형태가 다른 그룹에 비해 많았으며, 기본 신체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해도가 높은 그룹 I 은 초급 관용구 수준에 해당하는 관용구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룹 I 의 관용구는 ‘귀가 얇다, 머리가 복잡하다, 손이 크다, 눈이 맞다, 귀가 아프다, 입을 맞추다, 간이 떨어진다, 귀를 기울이다, 눈코 뜰 사이 없다, 눈에 띄다, 손가락질을 받다, 양다리를 걸치다, 눈 하나 깜짝 안하다, 귀에 못이 박히다’로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 33개 중 14개가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이다.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는 신체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를 일으킬 때

사람들은 체득된 경험에 의해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구조의 역할과 기능은 같기 때문에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는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도 관용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중국인 학습자가 제일 많이 이해한 관용구는 ‘꿈을 깨다’이다. 단어가 쉽고 ‘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꿈’이 ‘깨다’와 합이 되어 ‘희망이 깨지다’란 의미가 되었다. 미래의 일이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꿈을 깨다’라는 관용구가 쓰인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해한 관용구로 조사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어 관용구에도 같은 형태이면서 같은 의미의 관용구가 있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꿈을 깨다’ 이외에도 같은 형태이면서 같은 의미의 관용구에는 ‘귀가 얇다, 신경을 쓰다, 그림의 떡, 색안경을 쓰다, 귀를 기울이다, 콩밥을 먹다, 눈에 띄다, 구경도 못하다, 국물도 없다, 눈 하나 깜짝 안하다, 주머니 사정이나쁘다’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게는 어려운 단어 ‘떡, 국물, 콩밥, 바가지’가 문화권이 같은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나타났다. 이해도가 높은 수준의 관용구에 유래가 있는 ‘콩밥을 먹다’는 중국어 관용구에도 같은 형태이면서 같은 의미의 관용구가 있다. ‘바가지를 쓰다’, ‘같은 값이면’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하고 ‘바가지를 쓰다’는 개화기 이후 중국에서 ‘십인계’라는 노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래된 말이다.

‘콩밥을 먹다’는 ‘감옥살이를 하다’는 뜻이다. 감옥에서 좁은 구멍을 통하여 죄수에게 넘어주는 밥을 구메밥이라 한다. ‘구메밥을 먹다’는 ‘감옥살이’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 때는 구메밥에 콩이 섞여 나온 모양인지 ‘감옥살이 한다’는 뜻으로 ‘콩밥을 먹다’가 생성되었다.⁴⁴⁾

그룹 I의 관용구에 나타난 유래담이 있는 관용구는 총 3개이다. 이와 같이 관용구와 관련된 유래담의 설명을 듣고 외국인 학습자는 쉽게 관용구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44) 김충실 외(2006:25), 『관용어를 배우는 한국어』

3.3.2. 이해도가 중간인 관용구의 특성

중국인 학습자가 선택한 이해도가 중간인 관용구는 관용구를 구성하는 어휘가 초급에 비해 어려워졌고 축자적 의미만으로 관용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없는 경우가 초급에 비해 많아졌다. 또한 한국어 관용구와 중국어 관용구가 동형동의(同形同意)인 형태가 그룹 I에 비해 적어졌고 다양한 신체어가 나타났다.

이해도가 중급인 수준의 관용구에 ‘안면’, ‘떡따다’, ‘바르다’, ‘명함’, ‘팔자’란 어려운 어휘가 많아졌다. ‘떡’은 목의 앞쪽을 뜻하고 ‘떡따다’는 칼 따위로 짐승의 떡을 찌르거나 자르다의 뜻이다. ‘팔자’는 사람의 한 평생 운수’를 뜻한다. ‘입에 발리다’에서 ‘발리다’의 원형은 ‘바르다’인데 여기서 ‘바르다’는 뼈에서 살을, 살 등에서 가시 등을 제거하는 뜻이다. 이해도가 중간인 관용구는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가 10개로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슴, 등, 허리 등과 같이 신체부위는 좀 더 다양해졌다. 또한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구로 ‘간이 콩알만 하다, 간이 붓다, 속이 보이다, 안면을 바꾸다, 눈이 빠다, 가슴이 찢리다, 금이 가다, 등을 돌리다, 다리를 뺏고 자다, 개가 쏘아지다, 입에 발린 소리, 가슴에 새기다, 쥐구멍을 찾다, 코웃음을 치다’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 유래를 갖고 있는 ‘개가 쏘아지다’에 대한 설명을 할 경우 문화권이 같은 중국인 학습자는 쉽게 이해할 것이다.

3.3.3. 이해도가 낮은 관용구의 특성

그룹 III에서는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 관용구가 9개로 많이 나타났고 단어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 또한 사용빈도가 낮고 의미의 불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체어의 수가 그룹 I과 그룹 II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이해도가 낮은 관용구는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가 4개뿐이다. ‘어깨’ 빼고 ‘가랑이, 주둥이, 입방아’ 등 신체와 관련된 어휘가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렵고 생소하다. ‘가랑이’는 바지 따위에서 다리가 들어가도록 된 부분이고 ‘주둥

이'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이다. 입'은 쉬운 어휘이지만 '방아'는 곡식 따위를 찧거나 뺨는 옛날에 쓰던 기구로 중국인 학습자가 합성어 '입방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고급수준의 관용구에 나타난 어휘는 훨씬 어려워졌다. '독(항아리), 녹초, 파김치, 상다리, 적, 쥐뿔, 구색, 볼 장, 줌, 알랑방귀, 오지랖, 어림, 반 푼 어치, 줌, 종지부, 골수'등 모어화자조차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어휘들이 나온다.

이해도가 낮은 관용구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관용구가 많고 일상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휘와 한자어, 비속어, 예전에 쓰던 단위가 나타났다. 한국 문화와 관련된 '감투, 삐대, 북장단, 뒷짐'등의 어휘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문화와 관련된 어휘는 문화교육을 하여 이해시키고 어휘가 어려울 때는 관용구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어휘의 뜻을 먼저 교육하는 것이 관용구를 교육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확한 어휘를 아는 것이 관용구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이다.⁴⁵⁾ 이해도가 낮은 수준의 관용구는 단어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인 뜻을 알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휘를 제대로 알고 관용구를 이해하는 것이 관용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감투'의 정확한 뜻을 알면 '감투를 쓰다'라는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이다. 이렇듯 단어의 뜻을 알고 관용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의 뜻을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관용구를 학습해야 한다.

이해도가 낮은 관용구에는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래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볼 장 다 보다, 쥐뿔도 없다, 파김치가 되다' 등이 있다. '볼 장 다 보다'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봐야 할 장을 다 둘러보았다는 뜻이다.⁴⁶⁾ '쥐뿔도 없다'는 쥐에게는 뿔이 없는데 '쥐뿔'이라 하였다. '쥐뿔같다'라고 하면 '아주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조차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⁴⁷⁾ 이렇듯 관습적으로 내려 온

45) 박영순(1998:201)은 ① 지시적 의미, ② 개념적 의미, ③ 상황적 의미, ④ 의도적 의미, ⑤ 관용적 의미, ⑥ 은유적 의미로 분류하였고 앞쪽의 의미에서부터 뒤쪽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더욱 더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 교수 현장에서도 교수방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46) 이재운·박순희 편저, 『뜻도 모르고 자주 쓰이는 우리말 1000가지』, 2008.

47) 이재운·구미라·이인옥 편저, 『우리말 속어 1000가지』, 2008.

말이기 때문에 모어화자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관용구의 유래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모어화자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관습적으로 익힌 관용구의 뜻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는 모어화자와 달리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휘로 이루어진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⁴⁸⁾ 관용구를 구성하는 어휘는 의미의 전이나 관용의미를 유추하는 단서가 되고 완전히 다른 제3의 의미를 생성하여도 기본적으로 관용구를 구성하는 어휘를 학습하는 것은 관용구 교육의 기본이고 장기 기억에도 도움을 준다.

3.3.4.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서의 관용구 이해도 분석결과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서의 관용구 난이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모어화자에게 관용구의 난이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교육할 때는 난이도에 따라 관용구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구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학습자가 선택한 초급에 해당하는 관용구는 관용구를 구성하는 단어가 쉽고 축자적 의미만으로 관용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얼굴과 연관이 있는 눈, 코, 입, 귀와 관련된 관용구가 많은 것은 눈, 코, 입, 귀 등 각각 신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를 일으킬 때 사람들은 체득된 경험에 의해 뜻을 감지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체의 역할과 기능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와 관련된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도 관용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관용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해도가 중급인 수준의 관용구는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서 단어가 좀 더 어려워졌고 한국문화와 관련된 단어도 이해도가 높은 수준의 관용구에 나타난 한국문화와 관련된 단어보다 어렵고 많다. 이해도가 높은 수준의 관용구에서 유래를 포함한 '콩밥을 먹다'는 단어의 구성이 쉽고 유래담도 쉬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양념으

48) 조현용(1999:271-274)은 각 단계별로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 확대하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관용구 자체의 빈도수는 높지만 관용구를 구성하는 어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용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르치되 무조건 암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로 쓰이는 ‘개’와 한민족만의 민족성이 나타나는 ‘팔자’타령은 그룹 I 관용구에 나타난 ‘콩밥’과는 문화를 이해하는 깊이의 정도가 다르다. 한국인만의 정서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관용구이기 때문이다. 단어와 이해와 사용이 가장 낮은 관용구는 외국인 학습자의 설문조사 결과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가 가장 적고 어려운 단어는 급격하게 많아졌다. 일상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와 한자어, 비속어, 우리민족만의 전통음식, 예전에 쓰던 돈 단위가 나타났다.

3.3.5. 관용구의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관계

관용구의 의미 이해는 100개의 설문목록 관용구 중 평균적으로 초급학습자는 15개, 중급학습자는 29개 그리고 상급학습자는 52개를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100개 관용구 수준을 고려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일반 단어에 비해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단어의 이해 측면에서 보면 초급학습자는 20개, 중급학습자는 42개, 상급학습자는 55개를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용 측면에서 보면, 초급학습자는 10개, 중급학습자는 15개, 상급학습자는 34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5> 학습자 수준에 따른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에 대한 기술통계량

수준		단어	의미	사용
초급 학습자	평균	19.63	14.63	9.60
	표본수	30	30	30
	표준편차	18.309	12.136	11.007
중급 학습자	평균	42.21	28.62	14.64
	표본수	117	117	117
	표준편차	27.268	16.665	12.252
상급 학습자	평균	55.34	52.17	34.41
	표본수	29	29	29
	표준편차	29.308	25.113	24.459
전체	평균	40.53	30.12	17.04
	표본수	176	176	176
	표준편차	28.266	20.799	16.693

초급과 중급학습자의 경우 관용구에 포함된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급학습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습자의 경우 구성단어를 이해하면, 관용구의 의미 이해가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급학습자라고 하더라도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이유는 관용구의 사용 상황이 항상 학습자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과의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늘리더라도 한국인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관용구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의 단계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용구의 의미 이해에 있어서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단어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관용구의 의미 이해에 있어서 구성단어의 이해가 어느 정도로 필수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어화자라도 ‘오지랴이 넓다’라는 관용구에 포함된 ‘오지랴’의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이를 보면 구성단어의 이해가 관용구의 의미 이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관용구의 뜻을 이해하는데 구성 단어의 이해를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성 분석을 하였다.

구성단어의 이해가 관용구의 의미 이해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단어 이해와 의미 이해 사이의 인과성을 전제로 한 상관성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꿈을 깨다’라는 관용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꿈’과 ‘깨다’라는 구성단어의 이해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오지랴이 넓다’라는 관용구에 포함된 ‘오지랴’의 단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인 대부분은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단어의 뜻을 몰라도 관용구의 의미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외국인 학습자들도 과연 구성단어의 뜻을 몰라도 관용구 자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관용구 구성단어와 관용구 뜻의 이해 그리고 관용구 사용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3-6> 관용구 구성단어, 관용구 뜻의 이해, 관용구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단어	이해	사용
단어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이해	Pearson 상관계수	.634**	1	
	유의확률(양쪽)	.000		
사용	Pearson 상관계수	.516**	.818**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분석기법 중의 하나로 변수 간의 선형관계(linear relationship)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 예를 들어 광고나 인건비 등이 매출액과 선형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들 중에 어느 것이 매출액과 더 일차적인 연관관계가 강한 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관분석은 이용된다.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 정도와 방향을 계량적인 수치로 정량화하여 표시화한 지수이다.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상관계수가 +1 혹은 -1일 경우에 두 변수는 완전한 양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에,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 때 두 변수는 선형이 아닌 다른 관계이거나 서로 독립적이어서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3-6>에서 보듯이 상관성 분석결과 구성단어의 이해와 의미의 이해와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0.634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⁴⁹⁾ 또한 단어의 이해는 관용구의 사용과도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상관계수는 0.516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어의 이해가 사용과의 상관성보다 의미의 이해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미의 이해와 사용 간의 상관성은 상관계수 0.818로 나타나 관용구의 사용은 관용구를 이해와 관련이 높음을 조사

49)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정(+)의 상관관계를, -1에 가까울수록 부(-)의 상관관계를 0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없는 것이다.

결과 보여준다. 상관계수의 추정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7>에서 보면 관용구에 구성된 단어를 이해하면 의미를 이해할 확률은 70.6%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용구의 뜻을 이해하면 사용할 확률은 57.0%로 조사되었다.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해도 관용구를 일상에서 사용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구성단어의 이해, 의미의 이해, 사용이라는 인과성을 고려한다면 단어의 난이도가 쉬운 관용구부터 사용 환경을 만들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구성단어의 이해 없이 사용을 통해 관용구를 교육시키는 귀납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한국어 교재의 관용구 난이도는 구성단어의 난이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3-7>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관계

관계	확률
구성단어의 이해 → 의미의 이해	70.6%
의미의 이해 → 사용	57.0%

<표3-8> 초급학습자의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단어	이해	사용
단어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이해	Pearson 상관계수	.663**	1	
	유의확률(양쪽)	.000		
사용	Pearson 상관계수	.614**	.651**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상관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초급학습자의 경우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3-8>에 나타나 있다. <표3-8>에서 보듯이 상관성 분석 결과 구성단어의 이해와 의미의 이해와의 상관계수는 0.663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의미의 이해와 사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관계수가 0.614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초급학습자의 경우 의미의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구성단어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이다.

<표3-9> 중급학습자의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단어	이해	사용
단어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이해	Pearson 상관계수	.478**	1	
	유의확률(양쪽)	.000		
사용	Pearson 상관계수	.219*	.684**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 .상관계수는0.01,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중급학습자의 경우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표3-9>에 나타나 있다. <표3-9>에서 보듯이 상관성 분석결과 구성단어의 이해와 의미의 이해와의 상관계수는 0.478로 다소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단어의미 이해와 사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관계수가 0.219로 낮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중급 사용자의 경우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해도 사용하는 데는 매우 제약이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용구에 나타난 구성단어나 의미는 이해해도 사용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초급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이해와 사용에 있어서 구성단어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는 유사하지만, 중급학습자의 경우 관용구 사용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표3-10> 상급학습자의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단어	이해	사용
단어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이해	Pearson 상관계수	.453**	1	
	유의확률(양쪽)	.000		
사용	Pearson 상관계수	.589**	.761**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급학습자의 경우 관용구 구성단어, 의미의 이해, 사용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표3-10>에 나타나 있다. <표3-10>에서 보듯이 상관성 분석결과 구성 단어의 이해와 의미의 이해와의 상관계수는 0.453으로 다소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중급학습자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의미의 이해와 사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관계수가 0.589로 중급학습자와 달리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중급학습자의 경우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해도 사용하는 데는 매우 제약이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급학습자의 경우는 관용구의 의미 이해가 되면 상대적으로 사용을 하는 빈도가 중급학습자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급학습자일수록 한국 생활에 노출이 많고 한국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관용구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용구의 이해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용구의 이해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의 단어의 이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관용구의 이해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한 변수로 학습기간, 체류기간과 더불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인 나이, 성별 역시 영향요인의 변수로 도입하였다. 추가적으로 학습자의 수준 역시 중요한 변수라는 가정 하에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도입된 분석방법은 회귀분석모형(regression model)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3-11>과 같다. 학습기간은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단어의 이해, 관용구의 의미 이해, 사용 모두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습기간이 길수록 관용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관용구의 의미 이해와의 관계가 높았다. 나이와 학습자의 수준 역시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단어의 이해, 관용구의 의미 이해, 사용 모두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란 변수들 간의 함수적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2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회귀분석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이라 한다. 예를 들어, 광고의 숫자와 매출액의 관계나 인건비와 생산량의 관계 그리고 자동차판매량과 폐암환자수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회귀분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광고의 숫자와 인건비 그리고 자동차판매량처럼 독립적으로 변하며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라 하고, 매출액과 생산량 그리고 폐암환자수처럼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아 종속적으로 변하는 변수를 종속변수 또는 반응변수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이다.

관용구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관용구의 의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용구에 포함된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관용구의 의미 이해 정도와 사용 정도로 구분하였으며, 모델 I 과 모델 II의 차이는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성별을 넣은 것이다.

<표3-11> 관용구의 이해와 사용에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관용구 의미 이해		관용구의 사용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단어 이해	0.326** (6.697)	0.332** (6.733)		
의미 이해			0.656** (12.241)	0.656** (12.192)
학습자 수준	9.410** (3.646)	9.802** (3.727)	0.087 (0.046)	0.039 (0.020)
학습기간	-0.032 (-0.380)	-0.037 (-0.438)	-0.100 (-1.701)	-0.099 (-1.685)
체류기간	0.071 (0.740)	0.059 (0.608)	0.031 (0.455)	0.032 (0.466)
연령	1.188** (3.037)	1.135** (2.860)	0.437 (1.547)	0.443 (1.539)
성별		-2.355 (-0.801)		0.233 (0.910)
adj R ²	0.474	0.473	0.619	0.616
F값	25.15**	21.01**	44.54**	36.83**

** . 회귀계수는0.01, *.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수준이나 연령도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기간과 체류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용구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용구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관용구의 사용은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관용구를 사용하는데 까지는 많은 시간과 관용구 사용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 결과 알 수 있다. 관용구의 사용에는 학습자 수준, 학습기간, 체류기간, 연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관용구를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에게 타국 언어학습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단계이다. 관용구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외국인들은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용구를 학습자 수준별로 구성단어의 이해, 의미의 이해, 사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차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표3-12> 학습자 수준별 관용구 이해에 따른 차이분석

분산분석(ANOVA)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단어 수준	집단-간 (조합)	19796.681	2	9898.341	14.267	.000
	집단-내	120025.177	173	693.787		
	합계	139821.858	175			
이해 수준	집단-간 (조합)	21559.937	2	10779.968	34.444	.000
	집단-내	54144.558	173	312.974		
	합계	75704.494	175			
사용 수준	집단-간 (조합)	11087.564	2	5543.782	25.455	.000
	집단-내	37677.158	173	217.787		
	합계	48764.722	175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은 다수의 집단간의 평균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집단의 평균값이 상이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집단⁵⁰⁾들의 평균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들의 분산이 크면 클수록 집단 간의 평균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집단 간 평균들의 분산이 클수록 평균들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집단 평균들의 분산으로 집단 간 평균들이 서로 어느 정도 다른지를 알 수 있다. 평균값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산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즉, 측정단위와 측정내용에 무관하게 집단 평균들의 분산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상대적 평가기준으로는 각 집단 내에 속해 있는 관측치들이 해당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집단 내 분산, 다른 말로 집단 내 평균제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내 평균제곱의 크기와 집단 간 평균의 분산을 나타내는 집단 간 평균제곱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다.⁵¹⁾

50)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초급, 중급, 고급학습자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분산분석은 과학고, 외국어고, 일반고 3그룹의 수능성적 평균이 같은가를 검증할 때 이용한다.

51) 이들 평균제곱값 간의 상대적 크기는 두 값의 비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

<표3-12>는 학습자 수준별 관용구 이해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산분석에서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 즉 독립변수를 요인이라 하고, 이러한 요인의 수준 또는 범주 수에 따라 종속변수는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관용구 구성단어의 이해, 의미의 이해 그리고 사용에 대해 학습자의 모든 학습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학습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는 구성단어의 이해와 의미의 이해 그리고 사용 정도가 모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구성단어 이해, 관용구에 대한 뜻의 이해 그리고 사용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4. 한·중 관용구의 유사성과 이해도의 관계

설문 목록의 관용구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용구를 비교함으로써, 선행적으로 모어화자가 자국의 관용구를 이해하고 있을 때 타국 관용구의 이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 지식을 갖고 한국어에 적용한다면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모국어의 지식이 방해가 된다면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⁵²⁾ 부정적 전이는 간섭(interference)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모국어의 어휘, 유형, 또는 문법규칙이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에 미쳐서 오류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정적 전이는 학습 초기단계에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학습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부정적 전이가 크며, 한국어와 중국어 또는 일본어의 경우는 긍정적 전이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과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어 언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유사한 것도 이러한 긍정적 전이에 일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평균제곱값들을 표본으로부터 구했을 경우 표본분산의 비는 통계량 F값이 된다. 통계량 F값을 검정통계량으로 하여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는 것이 바로 분산분석이다.

52) 박덕제·박성현(2011:42)

<표3-13>은 한국 관용구와 중국 관용구의 유사성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관용구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⁵³⁾ 첫째는 중국어 중에서 같은 관용구가 있다. 중국어 중 같은 관용구가 있는 경우이다(同形同意). 둘째는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경우이다(異形同意). 셋째는 같은 표현은 있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은 관용구이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모국어의 관용구 이해가 한국어 관용구 이해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관용어 대조 분석을 통한 연구로는 한국어와 영어 관용구를 대조 분석한 이양금(2010)의 연구, 한국어와 일본어 신체 관용구를 대조 분석한 하수정(2006)의 연구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신체 관용구를 대조 분석한 이남(2010)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사성이 있는 관용구를 대조 분석하여 교육함으로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표3-13> 한국 관용구와 중국 관용구의 유사성 비교

100개의 한국어 관용구에서 중국어 관용구는 다음 4가지 사항 중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①중국어중 같은 말이 있다. ②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하다. ③같은 표현이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 ④중국어중 이런 말이 없다

순번	관용어	중국어 표현	해당 관용구 표기
1	꿈을 깨다	如夢方醒	①
2	귀가 얇다	耳根軟	①
3	머리가 복잡하다	頭腦複雜	③
4	손이 크다	出手大方/大手大腳	②
5	눈이 맞다	情投意合	②
6	신경을 쓰다	操心	①
7	귀가 아프다	耳朵磨出茧子	②
8	입을 맞추다	統一口徑	②
9	그림의 떡	畫中之餅 畫餅充飢望梅止渴	①

53) 관용구의 유사성 비교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인을 심층 면접하여 파악하였으며,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한국어와 중국어가 유창한 다른 중국인에게 조사결과를 확인하였다.

10	같은 값이면	既然如此 / 既然一樣 / 既然...就應當...	②	
11	말을 잃다	瞠目結舌	②	
12	그림이 좋다			④
13	이야기가 다르다	前後不搭	②	
14	사람 죽이다			④
15	바람이 들다	糠 / (事情) 出岔子 功亏一篑	②	
16	색안경을 쓰다	戴着有色眼鏡	①	
17	간이 떨어지다	嚇人一跳, 嚇破了胆	②	
18	자리가 잡히다	上手 / 安定下來 步入正軌	②	
19	말을 돌리다	拐彎抹角	②	
20	귀를 기울이다	側耳傾听	①	
21	눈코 뜰 사이 없다	忙得不可開交	②	
22	눈에 띄다	引人注目, 突出顯眼 鶴立雞群	①	
23	구경도 못하다	連見都沒見過	①	
24	국물도 없다	撈不到油水	①	
25	고사를 지내다			④
26	손가락질을 받다	受指, 戳脊梁, 說閑話	②	
27	콩밥을 먹다	坐牢 (吃囚飯)	①	
28	양다리를 걸치다	腳踩兩只船	②	
29	눈 하나 깜짝 안하다	連眼睛都不眨一下 <u>泰然處之</u> , 泰然自若	①	
30	바가지를 쓰다	被宰了	②	
31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	囊中羞澀	①	
32	귀에 못이 박히다	耳朵听出茧子	②	
33	별 볼 일 없다	毫无用處, 一无是處	②	
34	가슴이 찢리다	內疚	②	
35	다리를 놓다	牽線搭橋	①	
36	속이 보이다			④
37	가슴에 새기다	銘記在心	①	
38	팔자에 없다			④
39	피땀을 흘리다		③	

40	웬 떡이나	哪儿來的飛來之福。 哪儿來的橫財。 天上掉下來的餡餅		②	
41	금이 가다	隔膜, 裂縫 出現裂痕		②	
42	가면을 벗다	撕下假面具	①		
43	둘도 없다	獨一無二	①		
44	머리를 맞대다				④
45	안면을 바꾸다	翻臉不認人		②	
46	허리띠를 졸라매다	勒緊腰帶	①		
47	뒤를 거두다				④
48	등을 돌리다	斷絕關係, 排斥 分道揚鑣		②	
49	눈이 빠다	看走眼, 瞎了眼	①		
50	쥐구멍을 찾다	恨不得找個地縫兒鑽進去 恨不得找個老鼠洞鑽進去	①		
51	발 등에 불 떨어지다	火燒眉毛		②	
52	손을 벌리다	(向別人)伸手		②	
53	코웃음을 치다	嗤之以鼻	①		
54	뼈와 살이 되다	精神支柱		②	
55	허리가 휘다				④
56	다리를 뻗고 자다	放心睡大覺, 睡個安心覺		②	
57	깨가 쏟아지다	和和美美		②	
58	밑도 끝도 없다	沒頭沒腦 冷不丁		②	
59	명함을 내밀다				④
60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	咬字眼兒	①		
61	입에 발린 소리	虛情假意的話		②	
62	바닥을 기다				④
63	간이 콩알만 하다	胆小如鼠		②	
64	한 우물을 파다	一心一意, 專心致志		②	
65	돼지 먹따는 소리				④
66	간이 붓다	吃了豹子胆		②	
67	돈방석에 앉다				④
68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竹籃打水一場空		②	

69	어깨를 겨루다	媲美		②	
70	간에 기별도 안 간다	不够塞牙縫		②	
71	무게를 잡다	玩儿深沉		②	
72	녹초가 되다	癱軟无力, 精疲力竭		②	
73	맏고 끊다	斬釘截鐵, 干脆利落		②	
74	파김치가 되다	筋疲力竭, 筋疲力盡		②	
75	상다리가 휘어지다				④
76	콩가루가 되다				④
77	가랑이가 찢어지다				④
78	엎지른 물	覆水難收	①		
79	적을 두다				④
80	뒷짐을 지다	隔岸觀火		②	
81	볼 장 다 보다	無能爲力		②	
82	취뽀도 없다	一無所有		②	
83	감투를 쓰다	一步登天, 官運亨通 飛黃騰達		②	
84	구색이 맞다				④
85	복장단을 치다				④
86	짜을 밟다	扼殺在搖籃里, 消滅在萌芽狀態	①		
87	주둥이를 놀리다				④
88	알랑방귀를 뀌다	拍馬屁		②	
89	입방아를 찧다	說三道四, 說長道短		②	
90	좀이 쑤시다	心里痒痒 忐忑不安, 熱鍋上的螞蟻		②	
91	총대를 메다				④
92	칼자루를 쥐다	掌握實權		②	
93	뼈대가 있다	有主心骨。有志气。	①		
94	낙동강 오리알				④
95	등골이 오싹하다	毛骨悚然	①		
96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不着邊		②	
97	썩수가 노랗다	希望渺茫		②	
98	중지부를 찍다	畫上終止符	①		
99	골수에 맺히다	耿耿于怀。刻骨銘心	①		
100	오지랖이 넓다	愛管閑事		②	

‘꿈을 깨다’라는 관용구는 중국어에서 ‘如夢方醒’로 같은 형태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인 관용구 이해는 매우 쉬워진다. 또한 설문조사 목록 관용구에서 두 번째로 쉽다고 응답한 ‘귀가 얇다’라는 관용구 역시 중국에서 ‘耳根軟’로 같은 형태와 같은 의미로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어화자의 모국어 관용구 이해와 타국어 관용구 이해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3-14> 한국어 관용구와 중국어 관용구의 유사성과 이해도

그룹	같은 형태 같은 의미의 관용구	다른 형태 같은 의미의 관용구	같은 표현은 있지만 의미가 다름	중국어에는 존재하는 없음
이해도가 높은 그룹 (33개)	12	17	1	3
이해도가 중간인 그룹(34개)	9	15	1	9
이해도가 낮은 그룹(33개)	6	18	0	9
총 100개	27	50	2	21

<표3-14>는 한국과 중국의 관용구 유사성과 이해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같은 형태와 같은 의미의 관용구는 설문목록 관용구 100개중에서 27개로 나타났으며, 다른 형태 같은 의미의 관용구는 50개로 조사되었다. 같은 표현은 있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는 2개였으며,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용구는 21개였다. 약 27%가 같은 형태 같은 의미로 중국에도 유사 관용구가 존재하였으며, 형태가 다른 것까지 포함하여 같은 의미를 기준으로 볼 때는 77%의 관용구가 중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형태이지만 의미가 다르거나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 관용구는 23%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관용구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국어의 관용구 이해는 한국어의 관용구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 그룹에서 모국어에 같은 형태 같은 의미의 관용구가 있는 경우가 12개로 이해도가 낮은 그룹에서의 6개 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러나 형태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관용구의 경우는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해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그룹에서는 높은 그룹에 비해 한국에는 존재하나 중국에 존재하는 않는 관용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용구 교육 방안에서 관용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국어 관용구를 제시하여 함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V.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방안

배규범(2010:78)은 언어교육학적 관점에서 관용구 교육은 어휘학습의 일환이고 관용구는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가졌던 축자의미의 유연성을 다양한 변화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관용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어휘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특별한 교육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결과들과 언어교육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용구 교육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관용구 교육방안과 관련한 교육 이론과 교수법의 전개과정 등을 설명하고, 뒷부분에는 실제적인 수준별 관용구 수업 지도안을 제시한다.

4.1. 관용구 교육 방안

4.1.1. 언어교육 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구 교육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단어 학습 차원에서의 연구는 영어를 비롯한 다수의 언어 영역에서 많았으나, 관용구를 별도로 교육하는 이론적 연구는 부족하여 단어 학습 이론을 차용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단어와 문법 연구를 비교하면, 단어 학습은 문법 학습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다. 문법이 언어 학습의 출발점이라 믿으며, 행동주의적 심리학에서 빌려 온 학습이 습관 형성의 문제라는 견해를 채택하고, 청화식 교수법은 문장의 형식과 발음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문법과 음운 구조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할 때만 새로운 단어가 소개되는 등 단어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취급되어져야 했다.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교수법이 등장하는데, 이는 정확성보다 유창함을 향상시키고 문장 수준의 형태에서 담화 수준의 기능으로 초점을 옮긴다. 그러나 여전히 단어는 문법에 비해 2차적인 지위를 받으며 주로 기능적으로 언어 사용을 보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

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단어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자들이 어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가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실제 언어 사용에서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어 사용되는지에 대한 분석 정보와 단일 단어 항목으로서 담화에서 기능을 갖는 단어보다 더 큰 단위 수준에서의 의미 정보, 문어와 구어 의사소통의 차이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심리언어학적 연구가 어휘 학습에 관련된 정신적 과정인 기억, 저장, 검색에 통찰력을 공급하여 왔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어휘 교수 및 학습전략을 발전시켜왔다.⁵⁴⁾

1990년 이후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재나 교수법이 전통적인 교수모형인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t) 모형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활동중심인 TTT(Task-Teach-Task) 모형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였다.⁵⁵⁾ 하지만 제2언어 습득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낯선 언어이고 한국어는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와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 TTT(과제1-교육-과제2) 모형을 사용하기보다 PPP(제시-연습-산출)모형이 명시적인 형태 교육에 기반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어 한국어 교육에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⁵⁶⁾ 하지만 고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TTT 모형으로 교육하여도 무방하다.⁵⁷⁾

PPP(제시-연습-산출)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도입한 어휘 교육이론의 하나인 버나드 실(Bernard. D Seal, 1991)의 3단계 접근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버나드 실의 3단계 접근법은 어휘교육이론으로 단어학습을 계획

54) Decarrico, J.S.(200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M., Celce-Murcia (3rd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285-289. Boston, MA: Heinle.

55)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t) 모형은 '학습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새로운 지식을 채워주는 교육모형이다. 이와는 달리 TTT(Task-Teach-Task)모형은 '학습자에게 언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시도에 근거한다.

56) 박영순 외(2010:288-293)

57) 김충실(2008:106-107)은 고급 단계에서의 학습자는 학습을 수행하게 교사가 도와주고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자가 집중력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한 단어학습과 계획하지 않은 단어학습으로 나뉜다. 계획하지 않은 단어학습은 즉흥적으로 가르치고, 학습을 계획한 단어학습은 단어를 준비하여 학습 단계를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의미전달단계, 2단계는 확인연습단계, 3단계는 통합활용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교육이론의 하나인 버나드 실(Bernard D. Seal)의 3단계 접근법을 도입하여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⁵⁸⁾ 관용구는 2개 이상의 단어들에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실제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므로 단위 학습이론을 가져와 분석할 수 있다.

Seal(1991)은 3C접근법(또는 3단계접근법)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의미전달단계(Convey meaning)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시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제시 도구는 몸짓(mime), 유의어(synonym), 일화(anecdote) 등이다. 즉 시각적 도구(visual aids), 단어 관계(word relations), 사진 등과 같은 시각적 자료(pictorial schemata), 단어의 정의·설명·예·일화(definition, explanation, examples and anecdotes),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도구, 단어의 어근(roots)이나 접두사(affixes)를 활용하는 것 등이다. 2단계는 확인연습단계(Checking understanding)로 학습자가 제대로 단어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관계에서는 교수자(teacher)와 학습자(student) 간의 질의응답 과정이 포함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 단어와 관련된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연습방법은 빈칸 채우기, 단어의미 연결짓기, 단어정리하기, 그림 맞추기 등이 있다. 3단계는 통합활용단계(Consolidation)로 2단계에서 확인된 단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단어를 학습자 자신의 환경에 적응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어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어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연습방법은 문제풀이, 대화 작성, 토의와 역할극 등이다.

4.1.2. 학습자 수준별 관용구 난이도 설정

58) Seal, B. D.(199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M. Celce-Murcia (2nd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296-311. Boston, MA: Newbury House.

관용구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준별 관용구 교수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임혜진(2007)은 사용빈도와 의미의 투명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관용구를 구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빈도와 의미의 투명도에 따라 관용구 교육 수준을 정하기보다는 관용구에 포함된 어휘의 수준과 의미의 투명도를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 관용구를 구분하고자 한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등급⁵⁹⁾과 의미 투명성의 정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는 관용구 100개를 초급 관용구, 중급 관용구, 고급 관용구로 구분하였다. 우선 각 관용구에 포함된 어휘의 등급 또는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어휘수준은 ‘상’, ‘중’, ‘하’로 구별하였는데, ‘어휘수준 상’은 국립국어원 어휘등급 기준 C에 해당하거나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어휘를 포함한 경우와 복합어로 구성된 관용구 중에 복합어 구성 어휘 중에서 B나 C에 해당하는 어휘를 포함한 경우이다. ‘어휘수준 중’은 국립국어원 어휘등급 기준 B에 해당하는 어휘를 포함한 경우이다. 만약 ‘꿈을 깨다’라는 관용구에서 ‘꿈’은 어휘등급 A이고 ‘깨다’는 B이다. 이러한 경우 B등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어휘수준 중’으로 분류된다. ‘어휘수준 하’는 국립국어원 어휘등급 기준 A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관용구 100개에 포함된 어휘를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용 어휘 등급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꿈(A)을 깨다(B), 귀(A)가 앓다(B), 머리(A)가 복잡하다(A), 손(A)이 크다(A), 눈(A)이 맞다(B), 신경(C)을 쓰다(A), 귀(A)가 아프다(A), 입(A)을 맞추다(B), 그림(A)의 떡(A), 같은(A) 값(A)이면, 말(A)을 잃다(A), 그림(A)이 좋다(A), 이야기(A)가 다르다(A), 사람(A) 죽이다(B), 바람(A)이 들다(A), 색안경을 쓰다(A), 간(C)이 떨어지다(B), 자리(C)가 잡히다(B), 말(A)을 돌리다(B), 귀(A)를 기울이다(C), 눈코 뜰 사이(A) 없다(A), 눈(A)에 띄다(C), 구경(A)도 못하다(A), 국물(B)도 없다(A), 고사를 지내다(A), 손가락질을 받다(A), 콩밥을 먹다(A), 양다리를 걸치다(C), 눈(A) 하나(A) 깜짝(B) 안하다(A), 바가지(C)를 쓰다, 주머니(B) 사정(C)이 나쁘다(A), 귀(A)에 못이 박히다(C), 별(B) 불일(B) 없다(A), 가슴(A)이 찢리다(B), 다리(A)를 놓다(A), 속

59) 한재영 외(2010:364-431)에서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에 따라 어휘 등급을 A,B,C로 분류하였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에서 복합어는 어휘선정에서 제외되었고, ‘고사, 알량방귀, 쑤시다, 낙동강, 오리알, 가랑이, 우물, 독, 녹초, 감투, 어림’ 등 현재 잘 쓰이지 않는 어휘도 어휘선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A)이 보이다(B), 가슴(A)에 새기다(C), 팔자에 없다(A), 피땀을 흘리다(B), 웬 떡(A)이나, 금(C)이 가다(C), 가면을 벗다(A), 둘(A)도 없다(A), 머리(A)를 맞대다, 안면을 바꾸다(A), 허리띠를 졸라매다, 뒤(A)를 거두다(B), 등(B)을 돌리다(B), 눈(A)이 빠다, 쥐구멍을 찾다(A), 발등(B)에 불(A) 떨어지다(B), 손(A)을 벌리다(B), 코웃음을 치다(A), 뼈(A)와 살(B)이 되다(A), 허리(A)가 휘다, 다리(A)를 뺏고(B) 자다(A), 깨가 쏟아지다(B), 밑(A)도 끝(A)도 없다(A), 명함(B)을 내밀다(B), 말꼬리를 물고(B) 늘어지다(C), 입(A)에 발린 소리(B), 바닥(B)을 기다(C), 간(B)이 콩알만 하다(A), 한(A) 우물을 파다(C), 돼지(A) 먹파는 소리(B), 간(C)이 붓다(B), 돈방석에 앉다(A), 밑(A) 빠진(B) 독에 물(A) 붓기(B), 어깨(A)를 겨루다, 간(A)에 기별도 안 간다(A), 무게(B)를 잡다(A), 녹초가 되다(A), 맺고(C) 끊다(B), 파김치가 되다(A), 상다리가 휘어지다, 콩가루가 되다(A), 가랑이가 찢어지다(C), 얼지른 물(A), 적을 두다(B), 뒷짐을 지다(B), 불 장 다(A) 보다(A), 쥐뿔도 없다(A), 감투를 쓰다(A), 구색이 맞다(B), 북장단을 치다(A), 싹을 밟다(B), 주둥이를 놀리다(C), 알랑방귀를 뀌다, 입방아를 찧다, 좁이 썬시다, 총대를 메다(B), 칼자루를 쥐다(B), 뼈대가 있다(A), 낙동강 오리알, 등골이 오싹하다, 어렵 반(A) 푼어치도 없다(A), 싹수가 노랗다(B), 종지부를 찍다(A), 골수에 맺히다, 오지랖이 넓다(A)

관용구에 포함된 어휘의 수준과 의미 투명성에 따라 어휘 난이도와 의미 투명도에 따른 관용구 난이도 설정을 하여 9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어휘수준은 상, 중, 하로, 의미 투명성은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으로 나누었다. 초급은 어휘수준 하-반투명, 중급은 어휘수준 하-반불투명, 어휘수준 중-반투명, 어휘수준 중-반불투명의 조합이다. 고급은 어휘수준 하-불투명, 어휘수준 중-불투명, 어휘수준 상-반투명, 어휘수준 상-반불투명, 어휘수준 상-불투명의 조합이다.

<표4-1> 어휘 난이도와 의미 투명도에 따른 관용구 난이도 설정

기준	어휘수준 하	어휘수준 중	어휘수준 상
반투명	초급	중급	고급
반불투명	중급	중급	고급
불투명	고급	고급	고급

초급으로 분류된 관용구는 어휘수준 하-반투명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어휘수준이 낮고 관용성이 낮은 조합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용구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은데, 그에 해당하는 관용구는 ‘머리가 복잡하다’, ‘손이 크다’, ‘눈이 맞다’, ‘귀가 아프다’, ‘구경도 못하다’가 이에 해당한다. 초급 관용구에 나타난 어휘인 ‘머리’, ‘복잡하다’, ‘손’, ‘크다’, ‘눈’, ‘맞다’, ‘귀’, ‘아프다’, ‘구경’, ‘못하다’는 모두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에 따른 분류에서 A등급으로 분류된 어휘들이다. 초급에 포함된 관용구들을 의미투명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반투명에 해당한다. 반투명은 관용성이 가장 약하다. ‘머리가 복잡하다’는 외국인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만 안다면 충분히 관용구 의미가 유추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4-2> 어휘 수준과 의미 투명도에 따른 초급 관용구 목록

수준	기준	관용구	빈도수
초급 (5)	어휘수준(하)-반투명	머리가 복잡하다, 손이 크다, 눈이 맞다, 귀가 아프다, 구경도 못하다	5

중급 관용구는 대체로 초급 관용구에 비해 의미투명성이 약해지고, 어휘의 수준도 초급에 비해 높다. 어휘수준이 낮아도 의미투명성은 반불투명한 조합과 어휘수준이 중간 정도 수준이면서 반투명이거나 반불투명한 조합이다. ‘같은 값이면’이나 ‘그림이 좋다’는 관용구의 어휘수준은 낮지만 의미투명성이 반불투명하다.

<표4-3> 어휘 수준과 의미 투명도에 따른 중급 관용구 목록

수준	기준	관용구	빈도수
중급 (30)	어휘수준(하) -반불투명	같은 값이면, 말을 잃다, 그림이 좋다, 이야기가 다르다, 바람이 들다, 다리를 놓다, 속이 보이다, 밀도 끝도 없다, 그림의 떡	9
	어휘수준(중) -반투명	꿈을 깨다, 귀가 얇다, 색안경을 쓰다, 눈코 뜰 사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코웃음을 치다, 다리를 뺏고 자다	7
	어휘수준(중) -반불투명	입을 맞추다, 사람 죽이다, 발을 돌리다, 국물도 없다, 눈 하나 깜짝 안하다, 가슴이 찢리다, 머리를 맞대다, 등을 돌리다, 발등에 불 떨어지다, 손을 벌리다, 뺨와 살이 되다, 허리가 휘다, 명함을 내밀다, 간이 콩알만 하다	14

고급으로 분류된 관용구는 초·중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수준이 높고 의미 투명성이 반불투명하거나 불투명한 경우이다.

<표4-4> 어휘 수준과 의미 투명도에 따른 고급 관용구 목록

수준	기준	관용구	빈도수
고급 (65)	어휘수준(하) -불투명	-	0
	어휘수준(중) -불투명	무개를 잡다, 파김치가 되다	2
	어휘수준(상) -반투명	신경을 쓰다, 귀를 기울이다, 눈에 띄다, 손가락질을 받다,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 가슴에 새기다, 가면을 벗다, 둘도 없다, 돈방석에 앉다, 알랑방귀를 뀌다, 종지부를 찍다	11
	어휘수준(상) -반불투명	간이 떨어지다, 자리가 잡히다, 고사를 지내다, 양다리를 걸치다, 귀에 못이 박히다, 팔자에 없다, 피땀을 흘리다, 금이 가다, 안면을 바꾸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뒤를 거두다, 눈이 빠다, 쥐구멍을 찾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 입에 발린 소리, 바닥을 기다, 한 우물을 파다, 돼지 먹따는 소리, 간이 붓다, 밭 빠진 독에 물 붓기, 어깨를 겨루다, 간에 기별도 안가다, 녹초가 되다, 맺고 끊다, 상다리가 휘어지다, 엷지른 물, 적을 두다, 뒷짐을 지다, 불장다 보다, 감투를 쓰다, 구색이 맞다, 복장단을 치다, 싹을 밟다, 주둥이를 놀리다, 입방아를 찧다, 좁이 썬시다, 총대를 메다, 칼자루를 쥐다, 뼈대가 있다, 등골이 오싹하다, 싹수가 노랗다, 골수에 맺히다, 가랑이가 찢어지다, 오지랴이 넓다	45
	어휘수준(상) -불투명	바가지를 쓰다, 웬 떡이나, 깨가 쏟아지다, 콩가루가 되다, 쥐뿔도 없다, 낙동강 오리알,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다,	7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교육의 목표이다. 의사소통은 언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발화되는 것이다.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관용구의 뜻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초급 관용구는 하나의 의미단위를 구성하는 단어가 쉽고 관용의미와 직설의미와의 상관성이 높은 관용구이다. 그러므로 초급 관용구는 어휘 의미를 활용한 관용구

교육을 하고자 한다. 직역의 의미로 그 뜻을 추측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만으로 관용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⁶⁰⁾

어휘 학습의 전략적 차원에서 Decarrico(2001)는 맥락에서 의미 추측하기, 기억술, 단어공책정리 등의 학습전략을 제시하였다. 맥락에서 의미 추측하기는 기존 문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전략중의 하나이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맥락에서 어휘 의미를 추측하는 단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억술은 목표단어를 보거나 들을 때 핵심어를 즉각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목표 단어와 핵심어간의 강한 연상관계를 구축하여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기술이다. 끝으로 단어공책정리는 바인더나 인덱스카드 파일에 단어와 관련된 유사 단어, 시각화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 학습은 거의 대부분 관용구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용구 역시 어휘 학습의 범주에서의 교육과 유사하므로 어휘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비격식적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모어 화자와의 일상 커뮤니케이션에서 더욱 필요하다.

어휘 의미를 활용한 관용구 교육을 할 때 용언은 명사의 상태에 따라 변화함으로 사물의 특성에 의해 의미의 전이를 유추할 수 있는 동일한 명사로 구성된 관용구를 먼저 교육하고, 그 다음 동일한 용언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을 하고자 한다.⁶¹⁾

어휘 의미를 활용한 관용구 교육은 외국인 학습자도 비교적 단기간에 어휘와 관용구를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만으로 관용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하여도 어휘의 난이도와 이해도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오지랖이 넓다’는 ‘오지랖’과 ‘넓다’는 어휘의 뜻이 어렵고 어휘의 뜻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어휘의 뜻으로 관용의미를 유추할 수는 있어도 의

60) 조현용(1999)은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교육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이 중시되는 요즘 어휘교육이 중요하다. 초급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휘가 출발점이 되고 고급단계는 정확한 한국어 사용을 위해 어휘가 마지막 단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용구를 교육하는데도 어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습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61) 윤병달(2009:19-23)사물에 대응하는 문법 범주가 명사이고 동사는 이러한 사물에 시간에 따른 역동성이 추가되어 동사는 명사를 전제로 한다.

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관용구이다. ‘오지랖이 넓다’는 고급 관용구로 선정되어 학습해야 한다.

중급 관용구는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가 줄어들었지만 신체 부위가 다양해졌다. 관용구를 이루는 어휘도 조금 어려워졌고 기분이나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구가 많아졌다. 중급 관용구 교육은 직역이나 의미 전이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으로 문맥에 따라 독자적인 의미와 관용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관용구는 새로운 관용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새로운 언어형식을 만들지 않고 직설의미로 사용됐던 기존의 언어형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중의성⁶²⁾을 갖게 된다. 중의성은 문맥의 전후 상황과 화자의 발화상황에 의해 뜻이 달라진다. 화자의 발화를 통해 청자는 발화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발화를 해야 한다. Hall(1976)은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상황과 문화적 의미사이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low-context culture의 의사소통은 대부분의 메시지가 규칙화되고 명확한 언어로 전달되는데 비해 high-context culture는 대개의 정보가 물리적 상황이나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⁶³⁾ 한국문화는 high-context culture로 상황에 따라 문장의 의미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맥을 활용한 관용구교육이 필요하다.

어휘의 수준이 높고 문맥을 파악해야만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관용구는 고급단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급 관용구는 생소한 한국문화와 관련된 어휘나 고어, 비어로 대부분 이루어졌고 어휘의 수준 역시 훨씬 어렵다. 여기에는 모어화자조차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어휘가 꽤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용구는 난이도가 높아 어휘의 뜻과 유래를 제대로 학습시켜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여야 한다.

김충실(2008)⁶⁴⁾은 한국어 교수법이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에 따라

62) 강위규(1990), 관용구의 성립요건은 차용성, 동의성, 은유성, 대중성, 고정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언어에서 차용된 관용구는 중의성을 갖게 되었다.

63) 송혜원(2005:22) 재인용.

64) 김충실(2008)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방법 연구』에서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의 단어의 사용 용례를 전부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한국어의 단어교육에서 단어 해석은 한국어로 해야 한다 ③ 중국인들의 실제와 맞는 단어와 단어양을 선정해야 한다 ④ 단원의 주제를 생활언어와 연결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든다 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문화를 배우는 목적은 본국의 학습자들이 배우는 문화와는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⑥ 외국어 학습의 오류현상

교수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 관용구 교육은 한국의 사회문화와 풍속 관계를 결합하여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였다. 한국의 용기문화 중에서 독(항아리)은 한국여성들의 정취가 묻어 있고, 규범문화는 제도, 관습, 법률, 한국의 혼인제도, 가족제도, 교육제도 등이 있고 관념문화는 전통문화라고도 하여 한국의 음식 김치, 송늬, 팔죽, 삼계탕 등 왜 그것을 먹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흥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관용구를 교육하기 위해서 첫째, 어휘 중심적 차원인 어휘 의미를 활용한 관용구 교육, 둘째, 문맥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 셋째,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한국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관용구를 설명하여 한국의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 설명을 통한 관용구 교육 등을 기본적인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⁶⁵⁾

4.1.3. 관용구 교수 학습 단계

효과적인 교안을 만들기 위해서 의미전달단계, 확인학습단계, 통합활용단계를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한 기존 연구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버나드 실(1991)의 이론과 기존 관용구 교안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교안에 포함될 내용 구성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교수 학습 설계는 버나드 실(1991)의 3단계 이론을 응용한 도입단계, 제시단계, 연습단계, 활용단계, 마무리 단계로 이어지는 교수법이 대부분이다.⁶⁶⁾ <표4-1>은 연구자별 관용구 교수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은 학습자에게 좋은 영향이 더 크므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오류현상을 분석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인류학의 분류방식에 근거하여 용기문화, 규범문화, 관념문화로 나누었다.

65) Cooper(1999)는 '관용구가 가진 문자 그대로의 표면적 의미를 활용하는 책략, 부가적 정보를 활용하는 책략, 모국어 관용구를 참조하는 책략, 문맥으로부터의 유추, 문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책략, 반복과 바꿔 말하기 책략,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책략'이 있다고 하였다. 송현아(2008:28 재인용)

66) 우혜(2011)는 관용구 교수 단계를 도입, 제시, 연습 및 활용, 정리로 분류하였다.

<표4-5> 연구자별 관용구 교수 단계

연구자	단계
유덕자(1998)	제시, 설명, 반복, 응용 및 전이
김부경(2004)	제시단계, 설명단계, 활용단계
박용배(2006)	도입단계, 제시단계(의미전달단계), 연습단계(확인연습단계), 활용단계(통합활용단계), 마무리 단계
송현아(2008)	도입, 의미제시 및 설명, 연습, 활용
신혜인(2010)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형재연(2010)	도입, 예시문, 관용표현, 과제1 과제2, 마무리
이양금(2010)	도입단계, 제시단계, 연습단계, 활용단계, 마무리 단계

신혜인(2010)의 연구에서 관용구의 교수 방안은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단계로 전개하였다. 도입 단계는 주제 제시, 배경지식, 시각적인 자료, 그림, 사진, 비디오 등으로 이해 도모의 내용을, 제시 단계에서는 관용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미 확인을, 연습 단계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습을, 활용 단계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연계하여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박용배(2006)는 단어 교육의 하나인 버나드 실의 3단계 접근법을 도입하여 1단계는 의미전달 단계, 2단계는 확인연습 단계, 3단계는 통합활용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 의미전달 단계는 그림, 몸짓, 실물, 설명 등 다양한 방법을 갖고 학습자에게 낱말의 의미를 알려주는 단계이고 교수법으로 마임, 유사어, 일화 등을 통해 낱말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시각적인 제시나 설명을 통한 제시를 하고 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설명·제시했던 질문을 한다. 그 단어를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3단계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할수록 하는 단계이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단어와 사적인 경험을 관련시켜 의미를 알게 하는 단계이다.

이양금(2010)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은 일반 한국어 수업과 같이 도입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 마무리 단계로 제시하고, 도입 단계는 주제가 되는 관용구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 제시 단계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인지능력을 활용하여 학습 전략을 개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습 단계는 배운 관용구를 사용할 수 있게 연습하고, 활용 단계는 생활과 관련지어서 말할 수 있게 이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는 배운 관용구의 의미를 확인하는 순으로 교안을 마련하였다.

송현아(2008)는 관용구 교육 단계를 도입, 의미제시 및 설명, 연습, 활용의 4단계로 나누었다. 도입은 관련 그림이나 삽화, 비디오, 또는 목표 관용구와 관련된 이야기와 짧은 대화문으로 흥미 유도, 의미제시 및 설명은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단계, 연습단계는 배운 관용표현 활용으로 나아가는 단계, 활용의 단계는 실생활에 표현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학습목표와 동기부여, 관용구에 대한 간단한 배경지식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의미전달단계에서는 학습 관용구의 그림, 만화,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 제시, 학습 관용구의 구성어휘 설명, 학습 관용구의 의미 설명 및 예문 제시, 학습 관용구의 중국 유사 관용구 제시, 학습 관용구에 포함된 명사 관련 표현 학습을 실시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확인연습단계에서는 표현 짝짓기나 대화 빈칸 채워넣기 그리고 단어 낱말카드 맞추기 등을 통해 제시된 관용구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통합활용 단계에서는 관용 표현 상황 만들기, 두세 명씩 일상 대화 만들기 그리고 토론하기 등을 통해 관용구의 이해를 강화한다. 정리단계에서는 교실 밖의 과제를 제시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이러한 각 단계 별 교수 내용은 초급, 중급, 고급 관용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4.2. 관용구 단계별 학습 교육 방안

관용구 교안 작성부문에서는 난이도에 따른 관용구를 선정하고 버나드 실 I(1991)의 이론을 적용,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용구는 언어 교육 중에서 문법 교육 부문보다는 어휘 교육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관용구는 어휘의 결합 형태이기 때문이다.

관용구는 모어화자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대상이다. 모어화자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관습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나라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관용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교안의 작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서 무엇이 관용구 이해의 중요한 초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안 작성은 기본적으로 어휘의 수준과 이해도 그리고 의미 투명성 등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 관용구를 활용하여 수업 지도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수업 지도안을 마련하는 것은 관용구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즉 초급 학습자에게 일상적이고 구성단어가 쉬우며, 의미 투명성이 높은 관용구를, 고급 학습자에게는 구성단어가 어렵고 역사와 문화 등의 배경지식이 필요한 의미 투명성 측면에서 불투명한 관용구를 등급별로 나누어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2.1. 초급 단계 : 어휘 의미를 활용한 관용구 교육

초급 관용구 교안의 작성 방향은 제3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중심적 교수법의 채택과 관용구에 포함된 명사나 용언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초급 단계에 있는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문맥 파악과 상황 인식이 부족하고 역사나 문화적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용구에 포함된 기본적인 명사나 용언을 활용하여 관용구를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성 단어의 축자적 의미와 더불어 단어만으로 관용적 해석이 가능한 목록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용배(2006)에 의하면, 초급 학습단계에서는 단어 자체의 난이도가 낮고 반투명 관용 의미를 갖는 관용구를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단어 자체의 난이도가 낮은 관용구를 우선 교육한다.⁶⁷⁾

67) 박소연(2007)의 연구에서 초급은 단어 학습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기도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관용구를 학습하기란 어렵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모국어에서 비슷한 의미의 뜻이 있는 관용구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표4-6> 초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

학습 관용구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크다, 머리를 쓰다, 귀가 아프다, 입만 아프다	관용구 수준	초급
학습 목표	1) 관용구의 개념을 익힌다. 2)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크다, 머리를 쓰다, 귀가 아프다, 입만 아프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게 한다. 3) 동일한 명사와 동일한 용언을 활용하여 관용의미를 유추해본다. 4) '머리가 크다, 귀가 아프다, 입만 아프다'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뜻을 설명해준다.		
단계	학습활동		지도상 유의점 및 준비물
도입	1) 학습할 관용구와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 학습에 필요한 과제와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 시킨다. 3) 학습자에게 관용구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동요 '머리, 어깨, 무릎, 발'을 율동과 함께 배워본다. 4) 관용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동요가사 머리,어깨,무릎, 발, 무릎, 발 머리,어깨,무릎, 발, 무릎, 발 머리,어깨,발,무 릎, 발 머리,어깨,무릎, 귀,코,귀
의미 전달	1) 학습 관용구의 사진, 그림, 만화자료, 동화의 내용 등을 제시하고 설명. 초급자들에게는 특히 동화나 만화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 관용구의 구성단어 설명 학습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단어에 대한 기초적 의미를 설명 3) 학습 관용구의 의미 설명 및 예문 제시 (1) 관용구의 의미 설명 관용구의 의미 설명 (2) 예문 제시 관용구를 포함하는 완전한 문장이나 대화를 제시 4) 학습 관용구의 중국 유사 관용구 제시 ⁶⁸⁾ 모어화자의 해당 국가에 유사관용구가 있는 경우 제시 5) 학습 관용구에 포함된 명사와 용언 관련 표현 학습		<준비물> 구성 단어 관련 사진 및 기타 자료, 관용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 사진 및 그림 자료 <유의점> 학습자가 한국어 전반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교수자(교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한

	(1) 관용구에 포함된 명사의 활용을 통한 교육 동일한 명사 '머리'로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크다', '머리를 쓰다'의 관용의미를 유추해본다. (2) 관용구에 포함된 용언의 활용을 통한 교육 동일한 용언 '아프다'로 '귀가 아프다', '입만 아프다'의 관용의미를 유추해본다	다. 실제 초급 학습자는 문법 실력과 단어 실력이 부족하다.
확인 연습	1) 표현 짝짓기 표현 짝짓기는 초급자에게 적합한 비교적 쉬운 문제형태이고, 다른 관용구를 학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대화 빈칸 채워넣기 초급에서는 1:1의 대화 문장을 다루고 객관식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문제풀이 부담을 덜 수 있다.	
통합 활용	1) 관용 표현 상황 만들기 관용구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하는 것을 학습시킨다.	
정리	1) 과제를 제시한다. 초급자에게는 다른 언어 영역과 배경 지식에 대한 부족함이 있으므로, 해당 학습의 결과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마무리 인사를 한다.	

초급 관용구 교안의 구성은 도입-의미전달-연습-활용-정리 단계를 거치며 관용구를 학습한다. 도입 부분은 학습자를 동기 부여시키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초급 관용구를 학습하는 수준에 비추어볼 때 도입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관용구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관용구는 모어 화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려운 언어 학습이기 때문이다.

의미전달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관용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초급의 경우 의미전달 단계에서 관용구 교육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관용구를 이해시키기 전에 해당 관용구와 관련된

68) 이양금(2010)연구에서는 대조를 통한 관용구 교육 원리로 학습자 관용구와 한국어 관용구를 대조하여 흥미유발, 언어권 별로 분리해서 교육, 관용구를 배우는 반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교실환경, 관용구의 난이도 고려, 유의미한 상황별로 관용구 제시, 관용구 개념 설명, 문화적 배경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림, 만화, 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교적 짧은 이야기의 전개를 가지고 있는 동화나 만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학습의 지루함을 달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구성단어를 철저히 학습시키는 것이다. 관용구에 이해에 있어서 구성단어의 사전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제3장에서 언급하였지만, 초급 단계에서도 구성단어의 이해는 관용구의 이해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는 초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는 문법과 더불어 단어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명사를 활용한 관용구 교육은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체계가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명사의 분류체계에서 파악된 의미정보가 구나 문장의 형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⁶⁹⁾ 때문에 동일한 명사 ‘머리’와 관련하여 관용구를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관용구를 구성하는 용언의 경우도 관용구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 동기를 부여하여 관용의 의미를 유추하는데 상관성을 갖는다.

초급 관용구 수업 지도는 명사나 용언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으로 어휘를 산발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의미상으로 범주화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동일한 명사를 활용한 관용구 교육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크다’, ‘머리를 쓰다’, 동일한 용언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으로는 ‘귀가 아프다’, ‘입만 아프다’를 교육하고자 한다.

‘머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뇌와 중추 신경 따위가 들어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⁷⁰⁾ ‘머리’의 의미가 전이되어 사상이나 인습을 나타내거나 생각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프다’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다치거나 맞거나 자극을 받아 괴로움을 느끼다’, ‘몸이 병이 나거나 앓는 상태에 있다’, (‘머리’를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복잡한 문제로 생각을 하기 어렵거나 괴로운 상태를 말한다, ‘아프다’는 신체의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의미가 전이되기도 한다.

69) 최경봉 「명사 의미구조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 『형태론』 11권 1호, 2009, p136.

7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을 참조하였다.

초급에서 학습하는 학습관용구 ‘머리가 크다’의 활용예문을 통해 관용의미를 파악하고 직설의미로 사용하는 예도 들어본다.

[활용 예문 1]

1. 자식도 머리가 크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네.
2. 머리가 커서 그런지 예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네.
3.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머리가 컸네.

질문에 답하세요.

1. ‘진짜 머리가 크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초급에서 학습하는 학습관용구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를 쓰다, 귀가 아프다, 입만 아프다’의 활용예문을 제시하였다.

[활용 예문 2]

1.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네요.
2.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만 외우면 어떻게 해? 머리를 써야지.
3. 사장님이 하루 종일 옆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시니 귀가 아프네요.
4. 몇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내 사정을 그렇게 얘기해주었는데도 도무지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니 입만 아프네요.

이 과정에서는 단어의 이해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학습자가 간단히 예문의 문맥을 통해 관용구를 학습해 보게 한다.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 관용구와 비교 설명을 하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동형동어의 관용구를 소개한다. 끝으로 관용구의 구성단어에 포함된 명사에 관련된 다른 관용구를 2~3개를 함께 제시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인학습 단계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풀게 한다. 아직 문법이나 단어 실력이 취약한 초급자는 관용구 이외의 많은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현 짝짓기와 대화 빈칸 채워 넣기는 초급

자에게 적합한 확인학습방법이다. 대화 빈칸 채워 넣기 역시 대화문이 4~5개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화문이 길어지면 대화문 속에 포함된 모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래의 목표 관용구에 대한 학습을 저해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은 관용구의 구성단어에 포함된 명사와 용언과 관련된 다른 관용구 2~3개를 함께 제시하여 표현작짓기와 대화 빈칸 채워 넣기의 예이다.

1. 다음의 관용구와 뜻풀이를 연결하십시오.

① 머리가 복잡하다	·	·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② 머리가 크다	·	· 어떤 일에 대해 이모저모 깊게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쓰다
③ 머리를 쓰다	·	·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
④ 귀가 아프다	·	· 어른처럼 생각하거나 판단하게 되다
⑤ 입만 아프다	·	· 고민이 많다

2.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것은?
 A : 선생님께서 나만 보면 훈계를 하시네.
 B : 그건 아무것도 아냐. 근수한테는 교무실로 불러 매일 한 시간 넘게 훈계를 하신데.
 A :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을 텐데. 선생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수는 _____ .

① 꿈을 꾸었구나	② 머리를 써야지
③ 귀가 얇아서 그래	④ 귀 아프겠다

3.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것은?
 A : 지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해?
 B : 죄송해요. 늦잠을 자서..... .
 A: 그제도, 어제도 지각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

- _____.
- ① 내 입만 아프다 ② 내 머리만 가볍다
 ③ 내 귀만 아프다 ④ 내 입만 무겁다

통합활용 단계에서는 관용구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학습한다. 즉 관용구를 다른 언어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특히, 듣기나 말하기 상황에서 발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일상생활 중심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예를 만들어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관용구로 표현해본다. 초급 관용구 교육에서 발화상황 만들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혼내기도 했는데 이제 머리가 크니 예전처럼 혼낼 수가 없네.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하니 내 입만 아프지. 용돈을 줄 때만 집안일을 도와주는 척 머리를 쓰는 거야. 오히려 아이들은 엄마가 하루 종일 잔소리한다며 귀가 아프다고 해. 요즘 내가 논문 쓰느라 머리가 복잡해서 잔소리가 심해지긴 했지만 좀 서운했어.

질문에 답하세요.

1.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왜 혼내기가 어려울까요?
2. 엄마는 무슨 일로 머리가 복잡할까요?
3. 아이들은 왜 귀가 아팠을까요?
4. 엄마는 왜 입만 아팠을까요?
5. 머리를 써서 무엇을 얻어냈을까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단어의 이해가 부족하고 다른 언어 영역이나 배경 지식이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머리가 크다,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를 쓰다, 귀가 아프다, 입만 아프다’를 사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 오세요.

질문에 답하세요.

1. 머리가 컸다고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머리가 컸다고 느낀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 요즘 머리가 복잡한 일이 있나요?
3. 어떤 일에 머리를 써서 손해나 이득을 본 일이 있나요?
4. 수업시간 내내 관용구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입만 아팠을까요? 아니면 귀가 아팠을까요?

끝으로 초급 단계에서는 관용구를 교육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시간 안배를 충분히 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관용구를 구성하는 용언이 같으면 의미를 추측하기가 쉽고 반의어와 함께 익힌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동일한 명사와 용언을 활용하여 관용의미를 유추하였다. 명사와 용언을 따로 분석하였지만 명사와 용언이 상호작용할 때 관용구의 뜻을 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4.2.2. 중급 단계 : 문맥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

중급 관용구 수업지도안의 작성 방향은 초급 관용구 수업지도안과 마찬가지로 어휘 중심적 교수법의 채택을 기본으로 한다. 어휘의 수준이 중급 수준이며, 의미의 투명성도 초급에 비해 투명도가 떨어진다. 중급 학습단계에서는 어휘 자체의 수준도 초급에 비해 약간 높아지고 더불어 관용성이 중간 단계인 반불투명 관용구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는 관용구의 의미가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맥과 상황과 함께 학습관용구를 설명하고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4-7> 중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

학습 관용구	그림이 좋다, 속이 보이다, 다리를 놓다, 가슴이 찢리다, 명함을 내밀다	관용구 수준	중급
학습 목표	'가슴이 찢리다, 명함을 내밀다, 그림이 좋다, 속이 보이다. 다리를 놓다'를 확실히 이해하여 문맥의 전후 상황이나 발화상황에 따라 직설의미와 관용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학습한다.		
단계	학습활동		지도상 유의점 및 준비물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할 관용구와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 학습에 필요한 과제와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3) 학습자에게 관용구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명함을 만들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명함'의 뜻 을 확실히 알게 한다. 4) 관용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준비물> 명함을 만들 수 있는 종이 를 각자 준비 한다.
의미 전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 관용구의 사진이나 그림의 내용 등을 제시하고 설명 중급자들에게는 한국의 실생활 장면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맥과 상황에 따른 관용구 교 육이 필요하다. (중의적 사례를 함께 설명) 2) 학습 관용구의 구성단어 설명 3) 학습 관용구의 의미 설명 및 예문 제시 (1) 관용구의 의미 설명 : 축자적 의미 설명과 병행 (2) 예문 제시 : 응용 예문 4) 학습 관용구의 중국 유사 관용구 제시 '다리를 놓다(牽線搭橋)'는 중국어 중 같은 말이 있다. '가 슴이 찢리다(內疚)'는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하다. 5) 학습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단어의 변형을 학습 		구성 단어 관련 사진 및 기타 자료, 관용구의 이해를 돕기 위 한 사진 및 그 림 자료, 단어 낱말카드 등 <유의점> 관용구의 중의 성을 자세히 설 명
확인 연습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축자적 의미와 관용의미가 같이 들어간 대화내용을 다룬 다.(축자적 의미가 없는 경우는 관용의미만의 대화 내용 전개) 7) 단어 낱말카드 맞추기 단어를 나열하고 문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중급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한다. 		

통합 활용	1) 관용구 표현을 위한 상황 만들기 축자적 의미와 사용과 관용의미의 비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용구 표현을 실시한다. 2) 두세 명씩 일상 대화 만들기 두세 명이 한조가 되어 예시문을 만들게 하고 서로 대화하는 연습을 한다.	
정리	1) 과제를 제시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용구 표현을 만드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2) 마무리 인사를 한다.	

중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의 구성은 초급과 마찬가지로 도입-의미전달-연습-활용-정리 단계를 거치며 관용구를 학습한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학습내용은 당연히 초급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도입 부분은 학습자에게 초급 단계에서 보다 많은 관용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학습목표 역시 학습 관용구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발화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해와 더불어 사용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중급 관용구를 학습하는 수준에 비추어볼 때 도입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초급과 마찬가지로 관용구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의미전달 단계에서는 주로 관용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만화나 동화의 수준 보다는 다양한 사진 자료나 시사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습 관용구의 구성단어에 대한 설명은 초급과 마찬가지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급 관용구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문맥과 상황을 통해 관용구를 학습시키는 것인데, 이는 중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문맥에 나타난 어휘의 이해도가 초급에 비해 높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초급과 마찬가지로 학습 관용구의 체언과 용언의 변화를 주어 연관 관용구의 이해를 통해 관용구 지식습득의 확장을 시도한다. 그리고 명사와 용언에 붙는 조사의 달라지는 예문도 도입한다.

중급 학습관용구의 어휘의 뜻과 관용의미를 설명한 다음 사전적인 의미와 관용의미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학습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단어의 변형을 함께 학습한다.

가. 그림이 좋다

‘그림이 좋다’는 함께 있는 ‘남녀가 잘 어울림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 ① 이 그림 좋은데. (사전적 의미)
- ② 저 연인들 좀 봐. 그림이 아주 좋은데? (관용적 의미)
- ③ 내가 애인하고 걸어가는데 건달들이 “그림 좋은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용적 의미)

나. 다리를 놓다

‘다리를 놓다’는 ‘상대편과 관련을 짓기 위하여 중간에 다른 사람을 놓다’는 뜻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준다’는 의미도 있다. 사전적 의미는 물이나 벼랑이 가로놓여 건너갈 수 없거나 건너가기 불편한 곳을 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이 ‘다리’이다. 비유적으로 사람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때 쓰인다.

- ① 작년에 폭우로 유실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사전적 의미)
- ②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줄 테니 이번에는 일을 꼭 성사시켜요. (관용적 의미)
- ③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있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니 내가 다리를 놓을 수 밖에. (관용적 의미)
- ④ 남북이 지금은 대치상태이지만 평화의 다리가 놓여 질 날이 멀지 않았다. (관용적 의미)

다. 속이 보이다

‘속’은 ‘거죽이나 껍질로 둘러싸인 몸체의 안쪽 부분’,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품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 ‘어떤 현상이나 상황, 일의 안이나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다. ‘속’은 원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이다’라고 했으니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된다.

‘속이 보이다’는 ‘엇끔한 마음이 들여다보이다’는 뜻이다.

- ① 바지가 흰색이라 속이 보이니 입지마. (사전적 의미)
- ② 우리가 뻔히 자네 마음을 아는데 이제 그 속 보이는 소리는 그만 집어치우게. (관용적 의미)
- ③ “오늘따라 내게 애교를 부리는 걸 보니 용돈이 필요한 가보군. 속 보인다. 속 보여.”(관용적 의미)

라. 명함을 내밀다

‘명함을 내밀다’는 존재를 드러내어 보이다’는 뜻이다. ‘명함’의 직역의미는 ‘성명, 주소, 직업, 신분 따위를 적은 네모난 종이쪽 또는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 ① 컴퓨터 수리를 끝낸 직원은 명함을 내밀며 다음에 또 고장이 나면 연락하라고 하였다. (사전적 의미)
- ② 취직한 나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밀었다. (사전적 의미)
- ③ 예술계에 처음으로 명함을 내밀다. (관용적 의미)

마. 가슴이 찢리다

‘가슴이 찢리다’의 관용의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다’이다. ‘가슴’이 ‘양심’과 ‘마음’으로 의미가 전이되었지만 ‘찢리다’만으로 관용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다.

- ① 거짓말을 했더니 가슴이 찢리네. (관용적 의미)
- ②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 들어왔는데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신 걸 보니 가슴이 찢리네. (관용적 의미)
- ③ 회식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를 업고 저녁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쁜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리네. (관용적 의미)

확인학습 단계에서는 축자적 의미와 관용의미가 같이 들어간 대화내용을 다루고 대화 문장의 수도 늘린다. 축자적 의미와 관용의미의 비교를 하나의 대화창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학습관용구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받게 하고 일상에서 사용할 때 헛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맥과 상황에 따라 관용의미와 축자적 의미의 뜻을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속이 보인다'의 뜻을 말해보세요.

A : 눈이 많이 쌓였네.

B : 우리 눈사람 만들까?

A : 좋아.

C : (지나가던 친구) 그림 좋은데.

A : 잘 어울리는 연인 같지?

C : (장난스럽게 웃으며) 속 보인다. 속보여.

A : 어 정말? 눈사람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 옷이 올라갈 줄도 몰랐나봐.

C : (머리를 긁적이며) 그게 아닌데.

낱말 맞추기로 관용구를 포함한 문장을 만들어본다.

예 : 가슴에, 일부러, 핸드폰을, 찢렸다, 받지 않아, 나는
 나는 핸드폰을 일부러 받지 않아 가슴에 찢렸다

서로에게, 두 사람이, 다리를, 마음이, 놓아주었다, 있어

통합활용 단계에서는 관용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2~3명이 1조가 되어 예시문을 만들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문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쉬트를 제공하고 빈칸을 채우게 한다.

관용구 표현을 위한 상황을 만들어보고 서로 대화하는 연습을 한다.

학습 관용구 : 다리를 놓다	조원이름 :
<p>● 다음의 빈칸에 대화록을 작성하시오.</p> <p>A :</p> <p>B :</p> <p>.....</p> <p>.....</p> <p>.....</p>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용구 표현을 만들어 관용의미와 사전적인 의미를 파악해 본다.

신인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예술계에 명함을 내밀게 되었다. 신인 미술가의 그림을 우연히 관람하던 미술평론가가 신인 미술가에게 명함을 내밀고는 한 번 찾아오라고 하였다. 며칠 후에 미술평론가를 찾아갔더니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후원할 사람을 찾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신인 미술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후원을 받는 것이 가슴에 찢렸지만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다리를 놓아주면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려 더 훌륭한 미술가가 되겠다고 하였다.

질문에 답하세요.

1. 신인 미술가에게 후원할 사람을 찾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 그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 예술계에 명함을 내밀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신인 미술가가 가슴에 찢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리 단계에서는 위의 예처럼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개별적으로 과제 형태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관용구 ‘가슴이 찢리다, 그림이 좋다, 속이 보이다, 명함을 내밀다, 다리를 놓다’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오는 과제를 내준다.

직설의미와 관용의미가 동시에 존재함으로 문맥의 전후 상황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문맥과 발화상황을 활용한 관용구 교육은 영화, 드라마, 만화 등 보다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면 학습자가 문맥이나 발화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다.

4.2.3. 고급 단계: 문화 배경 설명을 통한 관용구 교육

김정숙(1997:211)은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기능수행이라고 볼 때 언어와 문화를 통합해 교육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관용구에는 한국문화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자가 목표어를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화적 숙달도 없이는 원만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⁷¹⁾ 그러므로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에서 관용구교육은 어휘의 뜻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 역사, 민족성에 대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어 학습자가 문화와 관련된 지식이 없을 경우 쉬운 과제도 수행하기 어렵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관습화되어 내려온 관용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구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문화와 관련된 관용구는 이해도가 낮은 그룹에서 많이 나타났고 이해도가 낮은 그룹을 분석해보면 단어가 어렵고 문화와 관련된 단어와 문화와 관련된 유래담이 많이 나타났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한 것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타 문화와 달리 인식되는 한국문화의 문화적 배경을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가 반영되는 문학작품에서 관용구가 생성되어 한국인만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민속적 배경이나 유래를 관용구의 상황에 맞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관용구의 생성배경을 통해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⁷²⁾ 『홍부전』 나오는 등장인물에서 유래된 ‘놀부 심보’와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우리민족은 ‘남이 잘 되는 것에 심술을 내다’는 민족처럼 보이기 위해 뜻을 바꾸어버린 ‘배가 아프다’의 유래⁷³⁾를 살펴보고 난 후 본고의 관용구목록 100개중에 문화가 가 가 내포된 언어와 유래담이 있는 관용구를 선정하여 고급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홍부전』에 나오는 놀부는 심술로 유명하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초

71) 박영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2002, p.13.

72) 윤지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7.

73) 박영숙(2010:61)에서 ‘배가 아프다’의 유래를 참조하였다.

상 난 데 춤추기, 남의 집 빼앗기, 호박에 말뚝 박기, 똥 누는 놈 주저앉히기, 비 오는 날에 장독 열기'등 심술을 해야될 수가 없다. 여기서 유래된 '놀부 심보'는 '인색하고 심술궂은 마음씨'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문학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에서 유래된 관용구로 『춘향전』에서 유래된 '억지춘향'과 『심청전』에서 유래된 '뽕덕 어미 같다'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관용구의 유래가 된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소설 『홍부전』, 『춘향전』, 『심청전』을 간략하게라도 학습한다면 한국의 역사, 문화배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옛 조상의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이처럼 관용구는 한국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함께 유래를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의미가 변화되기도 한다. 의미가 변한 유래담으로 '배가 아프다'가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 한다'는 원래의 의미는 가진 것은 없으나 사촌이 땅을 샀으니 배라도 아파 설사를 해 거름이라도 하게 하려는 좋은 뜻이었다 하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한국인의 민족성을 왜곡하기 위해 '남이 잘 되는 것에 심술을 내다'는 뜻으로 바꾸어버렸는데 이 뜻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유래담이 있는 관용구는 문화 배경 설명을 필요로 하고 문화 배경 지식을 배움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왜곡된 민족성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한국의 역사도 알 배울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한 관용구는 현재 생성된 관용구보다 전통문화에 의해 생겨난 관용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⁷⁴⁾ 김정숙(1997)은 문화교육의 목표는 언어에 반영된 문화적 함축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및 감정까지 포괄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문화내용은 한국문화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생활습관이 나타나는 일상문화도 소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상문화와 관련된 관용구도 함께 교육받아야 할 것이다.

고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 학습관용구는 어휘의 수준이 높고 의미의 투명성은 반불투명하거나 불투명한 경우이다.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 관용구는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74) 이런 문화교육을 조항록(2005)은 자칫 한국어 교육은 전통문화와 규범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4-8> 고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

관용구	파김치가 되다, 바가지를 쓰다, 웬 떡이나, 깨가 쏟아지다, 오지랖이 넓다	관용구 수준	고급
학습 목표	1) 관용구의 유래담을 설명한다. 2) '깨, 오지랖, 파김치, 바가지, 떡'의 단어를 설명하고 관용구에 나타난 한국문화도 함께 알아본다. 3) '깨가 쏟아지다, 오지랖이 넓다, 파김치가 되다, 바가지를 쓰다, 웬 떡이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게 한다.		
단계	학습활동	지도상 유의점 및 준비물	
도입	1) 학습할 관용구와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 학습에 필요한 과제와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3) 학습자에게 관용구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고전소설에서 유래된 '놀부 심보'와 '배가 아프다'의 유래담을 들려준다. 4)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관용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 숙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의미 전달	1) 학습 관용구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등 제시하고 설명.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문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등에 나타난 장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 관용구의 의미 설명 및 예문 제시 (1) 관용구의 의미 설명 (2) 예문 제시 : 응용 예문 3)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을 설명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지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준비물> 구성 어휘 관련 사진 및 기타 자료, 관용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동영상 자료의 경우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구할 수 있음.	
확인 연습	1) 대화 내용 이해하기 : 드라마, 동영상 자료 축자적 의미와 관용의미가 같이 들어간 대화내용을 다룬다.(축자적 의미가 없는 경우는 관용의미만의 대화 내용 전개) 2) 다양한 문화체험학습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관용구 이해에 도움을 준다.	<준비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통합	1) 관용 표현 상황 만들기		

활용	<p>다양한 상황에서의 관용구 표현을 실시한다.</p> <p>2) 토론하기</p> <p>3인 이상의 그룹이 학습 관용구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과 배경지식에 대하여 토론한다. 또한 유사한 모국 관용구를 제시하기도 한다.</p> <p>학습 관용구 ‘바가지를 쓰다(被宰了), 깨가 쏟아지다(和和美美), 웬 떡이냐(哪儿來的飛來之福。哪儿來的橫財。天上掉下來的餡餅), 파김치가 되다(筋疲力竭, 筋疲力盡), 오지랖이 넓다(愛管閑事)’는 중국 관용구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하다.</p>	
정리	<p>1) 과제를 제시한다.</p> <p>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용구 표현을 만드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p> <p>2) 마무리 인사를 한다.</p>	

고급 관용구 수업 지도안의 작성방향과 구성은 초급과 마찬가지로 도입-의미전달-연습-활용-정리 단계를 거치며 관용구를 학습한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학습내용은 당연히 초급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 관용구를 이해시키거나 상황과의 유사성에서 생성된 배경을 학습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축어성이 약하더라도 축자적 의미를 통한 추측 역시 설명되어져야 한다.

도입 부분은 학습자에게 초급 단계에서보다 많은 관용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학습목표 역시 학습 관용구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발화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해와 더불어 사용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중급 관용구를 학습하는 수준에 비추어볼 때 도입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초급과 마찬가지로 관용구의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의미전달 단계에서는 주로 관용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 관용적 의미가 강해서 어휘로만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사진 자료나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습 관용구의 구성단어 역시 모어화자도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한 관용구에 복합어가 포함되거나 문법 구조가 복잡할 수 있어 문법적 내용을 포함한 세심한 설명이 요구된다. 해당 학습자의 모국에 존재하지 않는 관용구가 많아 관용구와 관련된 문화나 역사적 배경지식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또한 중급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 관용구의 체언과 용언의 변화를 주어 연관 관용구의 이해를 통해 관용구 지식습득의 확장을 시도한다.

관용구와 관련된 문화나 역사적 배경지식, 유래담을 설명해준다.

가. 웬 떡이야⁷⁵⁾

농경문화로 쌀로 뜸을 들여 밥을 짓고, 쌀로 떡을 만들고, 죽을 찌는 과정에서 쌀과 관련된 관용구가 많이 생성되었다.

‘웬’은 ‘어찌된, 어떤’이란 뜻이다. 떡이란 예전에는 몹시 귀한 음식이다. 식량이 부족해 이런 귀한 음식을 이웃, 친지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이때 떡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나에게까지 몹이 돌아 오냐고 기쁨에 겨워 묻던 말이다. 관용구의 뜻은 ‘뜻밖의 행운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말이다.

나. 오지랖이 넓다⁷⁶⁾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이다. ‘오지랖’은 ‘웃웃이나 윗도리에 입는 겂옷의 앞자락’으로 ‘오지랖’은 거추장스러워 움직일 때 오물이 묻거나 해질 수가 있다. 넓은 오지랖이 이곳저곳 끌고 다니듯 관여해서는 안되는 일에 참견하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다. 파김치가 되다⁷⁷⁾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종류도 다양하다. 김치에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 등 다양하다. 지금도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은 우리만의 문화이고 풍습이다.

파는 원래 잎이 뾰뾰하고 기운이 세어 만지면 툭툭 부러지지만, 소금기와 함께 여러 양념을 해두면 서서히 기운이 죽어 부드럽게 된다. 처음에는 힘이 있어 강건하던 사람도 일을 많이 하거나 오래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행동도 느리게 된다. 그래서 일은 너무 많이 하거나 힘이 들어 기운이 쭉 빠진 것을 의미한다.

라. 깨가 쏟아지다⁷⁸⁾

‘깨가 쏟아지다’는 ‘몹시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나다’의 뜻이다. ‘깨’는 참깨, 들깨 등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깨를 추수할 때 한 번 살짝 털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진다. 깨를 털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니 그 재미가 쏠쏠하고 쏟아지는 깨에서 고소한 냄새까지 난다. 이 고소하고 행복한 기운이 신혼초기 부부들에게 난다는 의미로 흔히 쓰는 표현이다.

마. 바가지를 쓰다⁷⁹⁾

‘바가지를 쓰다’는 개화기 이후 중국에서 ‘십인계’라는 노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래된 말이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바가지를 얹어놓고 그 노름판을 이끄는 사람이 숫자 하나를 대며 그 숫자가 쓰인 바가지를 알아맞히라고 한다. 만약 숫자를 맞히면 돈을 벌지만 못 맞힐 경우 노름을 이끄는 사람이 돈을 몽땅 갖는다. 그래서 손해를 볼 때 ‘바가지 썼다’고 하였다.

확인학습 단계에서는 축자적 의미와 관용의미가 같이 들어간 대화내용을 다루고 대화 문장의 수도 늘려야하며, 동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기초 단어와 회화가 가능하므로 동영상 청취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청각적 효과가 큰 동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최근 유튜브(Youtube)와 같은 무료 동영상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고 수업교실 역시 멀티미디어시설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확인학습 단계에서는 축자적 의미와 관용의미가 같이 들어간 대화내용을 다루고 대화 문장의 수도 늘려야한다.

‘바가지를 쓰다’의 축자적 의미와 관용의미의 예를 들어본다. 관용구의 생략은 관용구가 문장에서 활용될 때 관용구의 일부가 생략되는 것을 말한다.

75) 김충실·이길연·양동연, 『관용어로 배우는 한국어』, 박이정, 2006, p40.

76) 김상규, 『우리말 잡학사전』, 푸른길, 2011, p.320.

77) 김충실·이길연·양동연(2006:45)

78) 이재훈·박숙희 편저,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1000가지』, p.128.

79) 박영수, 『유래를 알면 헛갈리지 않는 우리말 뉴앙스 사전』, 북로드, 2011. pp.199-200.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들이 관용구의 일부가 생략되어도 ④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관용구의 뜻이 상실되지 않는다.

- [활용예문]
- ① 비 맞지 않으려고 바가지를 쓴 거야? (축자적 의미)
 - ②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 나와 버렸다. (관용의미)
 - ③ 해수욕장에서 상인들은 성수기를 맞아 피서객에게 바가지를 썩웠다. (관용의미)
 - ④ 왜 아침부터 바가지야? (관용의미)

기본적으로 학습 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예문을 만들어 그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3]은 학습자들이 만들어보고 토론한다.

학습 관용구	해당 상황
오지랖이 넓다	상황1 :술에 취한 취객을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것인가요?
	상황2 :옆집 부부가 싸울 경우 도와주려고 참견하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것인가요?
	상황3 :

통합활용 단계에서는 관용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는 연습과 더불어 그와 관련된 관용구를 사용하여 토론을 해본다.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준이 높은 외국인 학습자들끼리의 토론은 관용구 학습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2~3명이 1조가 되어 예시문을 만들고 서로 토론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단계에서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개별적으로 과제 형태로 제시한다.

관용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용구로 표현해본다.

[상황설정1]

머리에 바가지를 쓰고 ‘바가지 사세요’ 를 외치니 금세 바가지가 동이 났다. 바가지가 의외로 잘 팔리는 게 신기했다. 주인은 미국으로 이민 가기 때문에 아깝지만 가게를 내놨다고 말하였다. 주인은 나에게 싼 값에 해줄 테니 가게를 인수하라고 하였다. 귀가 얇은 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그 가게를 샀다. 첫 날은 그럭저럭 장사가 되었는데 갈수록 장사가 안 되었다. 알고 보니 이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 늘 파리만 날리는 가게였다는 것이다. 가게도 싸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바가지를 썼고 장사가 잘되어 바가지가 동이 났었던 것은 가게를 팔기 위해 주인이 사람들을 사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 하였다.

[상황설정2]

옆집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참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이다. 오늘 그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하여 음식을 준비했다. 파김치도 담고, 떡도 만들었더니 손님들이 올 때쯤 파김치가 되었다. 힘들었지만 딸이 도와주어 저녁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맛있는 식사를 마쳤고 나는 부부에게 커피도 대접했다. 커피를 마시는데 그 집 신랑이 내가 만든 음식 칭찬을 하며 새댁의 음식은 맛이 없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들이 갈 때쯤 오늘 한 음식을 골고루 다 싸주었다. 옆에 있던 신랑은 ‘웬 떡이냐’는 표정이었다.

질문에 답하세요.

1. 신혼부부를 위해 저녁준비를 하던 나는 힘들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2. 신혼부부들이 재미있고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 위의 문장에서 찾아 쓰세요?
3. 음식을 골고루 싸 주었을 때 신랑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위의 문장에서 찾아 쓰세요.

위의 예처럼 살아오면서 바가지를 쓴 경우나 횡재로 뜻하지 않은 행운이나 좋은 일이 있었던 일을 ‘바가지를 쓰다’와 ‘웬 떡이냐’의 관용구를 사용하여 경험담을 써오는 과제를 제시한다.

문화 배경 설명을 통한 관용구 교육은 문화적으로 전승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나서 관용구를 학습하게 된다면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해소할 수 있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관용구 교육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V. 결 론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관용구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관용구는 우리말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일상어이며, 이러한 관용구를 한국어 학습자가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말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관점에서의 관용구 교육을 위한 관용구의 이해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관용구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및 정리된 바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학 교재에 실린 관용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대학 교재 분석결과 관용구 교육내용이 대학 교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았다.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이 초급 교재에서는 각 대학 교재별로 통일감 있게 다루어졌지만, 중급과 고급 교재에서는 관용구의 난이도와 학습해야 할 관용구 수가 각 대학별로 차이가 많았다. 관용구 교육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각 대학의 상이한 기준과 관용구 이외의 다른 언어 교육 내용과의 조화 등의 문제 때문에 대학별로 통일된 표준 관용구 교육은 실행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대학 교재에서 관용구를 교육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 풀어야 할 난이도의 문제와 학습 관용구의 수 결정 그리고 교육방안의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장에서는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수요자인 한국어 학습자 관점에서 관용구의 이해도를 설문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 단어의 이해도가 관용구의 이해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구성 단어의 수준이 어려우면 관용구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어화자는 관용구를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구성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관용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구성 단어의 뜻을 모르면 관용구를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의 의의는 기존의 모어화자 관점에

서의 관용구 학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구 학습과는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용구에 포함된 구성단어의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고, 사용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관용구의 관용적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구의 구성단어를 학습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통문장식으로 관용구를 이해시키는 것은 모어화자 관점에서의 관용구 교육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모어화자는 관용 표현을 일상에서 많이 접하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정도가 미진하거나 역사, 문화적 배경지식이 부족한 한국어 학습자는 구성단어를 선행적으로 학습하고 관용구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관용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관용구의 의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학습자의 수준, 연령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기간, 체류기간, 성별 등은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관점에서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의 특성은 신체와 관련된 단어가 많고 사전적인 의미와 관용의미와의 관계성이 강하여 관용구의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관용구를 구성하는 단어가 쉬웠다. 이해도가 중간 정도 되는 관용구의 특성은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는 초급수준의 관용구보다 적지만 다양한 신체부위가 관용구의 구성단어 속에 나타났다. 구성 단어는 좀 더 어려워졌고 사전적인 의미와 관용의미사이의 관계성이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보다 약해졌다. 이해도가 낮은 관용구의 특성은 신체와 관련된 관용구가 현저히 적어지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내포하는 어려운 단어가 많아졌다. 이러한 관용구 이해도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관용구 교육에 있어서 수준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3장의 마지막 절에서 한국어 관용구와 중국어 관용구의 대조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관용구와 중국어 관용구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이해도가 높은 관용구는 중국에도 같은 형태 같은 의미를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해도가 낮은 관용구는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 관용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대학별 교재분석 그리

고 기존 관용구에 대한 선행연구 등에 근거하여 관용구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을 실시하였다. 관용구의 난이도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빈도와 의미 투명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 사전 의미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용구의 난이도 설정기준을 어휘의 난이도와 의미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초급으로 분류된 관용구는 어휘수준 하와 반투명의 조합에 해당한다. 즉 어휘수준이 낮고 관용성이 낮은 조합이다. 중급 관용구는 대체로 초급 관용구에 비해 의미 투명성이 약해지고, 어휘의 수준도 초급에 비해 높다. 어휘수준이 낮아도 의미 투명성은 반불투명한 조합과 어휘수준이 중간 정도 수준이면서 반투명이거나 반불투명한 조합이다. 고급으로 분류된 관용구는 초·중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수준이 높고 의미 투명성이 반불투명하거나 불투명한 경우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용구 난이도의 기준 마련은 본 연구의 중요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4장에서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용구 교수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버나드 실의 3단계 모형을 도입하였다. 단계별 교수방안은 도입 - 의미 전달 - 확인 연습 - 통합 활용 - 정리 단계로 전개하였다. 도입 단계에서 학습목표와 동기부여에 초점을 둔다. 의미 전달 단계에서는 학습 관용구의 그림, 만화,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 제시, 학습 관용구의 구성단어 설명, 학습 관용구의 의미 설명 및 예문 제시, 학습 관용구의 중국 유사 관용구 제시, 학습 관용구에 포함된 명사 관련 표현 학습을 실시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연습단계에서는 표현 짝짓기나 대화 빈칸 채워넣기 그리고 낱말카드 맞추기 등을 통해 제시된 관용구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활용단계에서는 관용 표현 상황 만들기, 두 세명씩 일상 대화 만들기 그리고 토론하기 등을 통해 관용어의 이해를 강화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과제를 제시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이러한 각 단계별 교수 내용은 초급, 중급, 고급 관용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해야 할 관용구는 우선 어휘 난이도와 의미 투명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각 교수단계별로 초급자는 어휘 중심, 중급자는 문맥과 상황 중심, 고급자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중심

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관용구는 한국고유의 언어이고 문화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 한국어 학습자는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어휘이고 유창한 한국말을 하려면 꼭 필요한 언어표현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관용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앞으로 관용구 교육은 다른 문화권의 배경지식과 함께 한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관용구를 교육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용구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의식과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에 관용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 관용구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뜻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생성, 소멸되는 변화를 연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고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어화자도 관용구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외국인 관점에서의 관용구 이해도 분석과 난이도 설정 그리고 교수방안을 통하여 한국어 교수자들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어휘 중심의 관용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관용구 목록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관용구의 일부는 기존의 문헌들을 참고하였으나 나머지 일부 관용구는 임의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분석의 목적상 다양한 관용구 목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00개의 관용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해야할 대표 관용구가 아니라 본 연구에서 관용구 이해도와 교수방안을 위해 필요한 분석 목적용 관용구임을 밝혀둔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강승혜 외,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2010.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지침Ⅱ』, 계문사, 2000.
- 곽지영,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출판부, 2011.
- 김선정·강현자·김경하·류선영,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한글파크, 2007.
- 김정화·최은규, 『한국어 속담100 관용어100』, 국제교육진흥원, 2002.
- 김진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박이정, 2008.
- 김영운 외, 한국전통음악대전집 『한국국악의 향연 3 정가·판소리·민요』, 중앙일보사, 1988.
- 김한란 외 옮김,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유럽평의회 편, 한국문화사, 2007.
- 김충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방법 연구』, 2008.
- 김충실·이길연·양동훈, 『관용어로 배우는 한국어』, 2006.
- 김향숙,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3.
- 박덕재·박성현, 『외국어습득론과 한국어교수』, 박이정, 2011.
- 박영수, 『유래를 알면 헷갈리지 않는 우리말 낱어사전』, 북로드, 2011.
- 박영순, 『한국어 문법교육론』, 박이정, 1998.
- 박영순 외,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2008.
- 박영준·최경봉 편저, 『관용어사전』, 태학사, 1995.
- 배규원·주옥파,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문화 300 취미』, 외어교학어연구출판사, 2010.
- 오정란·교지연, 『외국어로서의 한·중 언어 문화 비교』, 박이정, 2011.
- 윤병달, 『언어와 의미』, 동인, 2009.
- 이재운·구미라·이인옥,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속어 1000가지』, 위즈덤하우스, 2010.
- 임병빈 외, 『교사를 위한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문사, 2008.
- 최지훈,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혜안, 2010.
- 한재영 외,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2010.

2. 학술논문

- 강위규, 「우리말 관용표현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강현화, 「국어 속어표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고광주, 「관용어의 논항구조와 형성제약」,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0.
- 구효진,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권경일, 「감정표현 관용구의 의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법교육』 제11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09.
- 권순희, 「다문화시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국어교육연구』 제38집, 국어교육학회, 2010.
- 김문창, 「국어 관용어의 연구」, 『국어교육』 제30호, 국어연구회, 1974.
- 김미라, 「한국어 말하기 교재의 과제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민정,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부경,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 방안」,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선정·강현자,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회』, 2006
- 김영철, 「국어 관용어에 관한 고찰」, 『국어문학』 35집, 국어문학회, 2000.
- 김은경,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정숙,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1997.
- 김종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의 수준별 목록 선정 방법」,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종택, 「이디엄 (idom) 연구」, 『어문학』 25, 한국어문학, 1971.
- 김지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진해, 「관용어 수식과 해석」, 『한국어의미학』, 한국어의미학회, 2010.

- 김홍범, 「‘상징어 사전’에서 관용어 처리 문제」, 『한말연구』 제21호, 한말연구학회2007.
- 남명애·김영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국어교육』 132, 2010.
- 막효퇴,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문금현,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문금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제』 15호, 이중언어학회, 1998.
-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이중언어학』 제30권, 이중언어학회, 2006.
- 박문자,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수법과 학습법의 상관관계 연구」, 『중국조선어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0.
- 박민진, 「주석이 한국어 관용어의 우연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소연,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영숙, 「관용어의 유래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영순, 「관용어에 대하여」, 『선암 이을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5.
- 박영순,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회지』 5, 1989.
- 박지현, 「어휘 주석이 한국어 우연적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교육』 18-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박진수, 「국어 관용구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영준, 「남북한 관용어 비교 연구」, 『새국어교육』 제5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0.
- 박용배,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창균, 「문화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 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화법연구』, 한국 화법학회, 2009.
- 배규범,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실상과 방향

-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 서춘희,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관용어 실태와 그 교수방안」, 『중국 조선어문』 제3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1.
- 성광수, 「한국어 문법의 내용과 설명」, 『말』 13, 연세대 한국어학당, 1995.
- 손재은, 「한국어 교육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연구」, 『이중언어학』 제39호, 이중언어학회, 2009.
- 송현아,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송혜원,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과 지도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혜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및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심재기,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 1986.
- 심재기, 「한국문화와 관용표현」, 『한국어의미학』 13, 2003.
-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안경화, 「한국어 속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양영희, 「관용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 26집, 국어학회, 1995.
- 오제운, 「우리말 관용어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용은미, 「국어 분노 표현 관용어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왕보하, 「한·중 관용어의 의미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우혜, 「동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웅계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체 관련 관용어 대조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유덕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남, 「한·중 신체 관련 관용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양금, 「대조를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영숙, 「신체 관용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외국어로서

- 의 한국어교육』, 1992.
- 이영제, 「구적 관용구의 통사적 구성과 의미-NV형 관용어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9.
- 이재춘, 「관용구를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진숙·박소영, 「관용어의 친숙도, 성별, 학업성취도가 관용어 이해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0.
- 이훈중, 「관용구와 그 배경 민담」, 『국어국문학』 24, 국어국문학회, 1961.
- 임지룡,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학교 국어연구회, 1991
- 임천택, 「국어과 멀티미디어 자료의 특성과 활용 방안」, 『어문학교육』 제23집, 한국어문교육학회, 2001.
- 임혜진, 「학습자 수준별 관용표현 교수항목에 대한 연구: 의미 투영도와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장세희·장경희, 「국어 관용어에 관한 연구 :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한양대학교』 25, 1994.
- 장정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의 수준별 목록 선정 방법」,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전은지, 「한국어 은유의 교육방법 연구: 사람의 성격 은유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전혜영,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방안」, 『한국어교육학회』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 정옥주, 「한국어 관용어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정지도, 「현대조선말 성구에 대하여」, 『언어학론문집』 8,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90.
- 조윤경, 「교사에서 학습자 모국어 사용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제44호, 이중언어학회, 2010.
- 조향록,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5.

- 조현용,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1999.
- 조현용,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 학회, 2003.
- 조현용, 「비언어적 행위 관련한 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14-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조현용,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7.
- 주영진,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 되기 원리」, 『동남어문논집』 제12집, 2001.
- 최경봉, 「국어 관용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최경봉, 「관용어의 의미구조」, 『어문논집』 33,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94.
- 최경봉, 「관용어의 구성형식과 의미구조」, 『한국언어문학제』 45집, 2000.
- 최경봉, 「명사 의미구조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 『형태론』 11권1호, 2009.
- 최석재, 「감정동사의 유형과 그 의미특성」, 『어문논집』, 민속어문학회, 2008.
- 최석재 외 3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감정표현의 관용구의 의미」, 『한국어의 미학』, 한국어의 의미학회, 2011.
- 최인자,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방법」, 『어문학교육』 제2집, 한국어 문교육학회, 2004.
- 최혜령,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하수정,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신체 관용어 이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황정아, 「한중 관용어의 표현양상과 내포 문화비교」,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황희영, 「한국 관용어 연구」, 『성곡논총』 9, 성곡학술 문화재단 2006.
- Shao Juan,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Bialystock, E. 1982, A theoretical model of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8:69-83.
- Carrell, P. 1984. Evidence of a formal schema in second language

-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34: 87-111.
- Decarrico, J.S. 200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M., Celce-Murcia (3rd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85-289. Boston, MA: Heinle.
- Gibbs, R. 1994. *The Poetics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익주 역. 2003. 『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언어·이해』, 한국문화사)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e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기우 역. 1994.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 Seal, B. D. 199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M., Celce-Murcia (2nd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96-311. Boston, MA: Newbury House.
-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3. 기타 사전 및 교재자료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1』, 교보문고, 2008.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2』, 교보문고, 2009.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3』, 교보문고, 2010.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4』, 교보문고, 2010.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5』, 교보문고, 2010.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6』, 교보문고, 2010.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초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0.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초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1.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중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2.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중급Ⅱ』,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2.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고급Ⅰ』,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3.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고급Ⅱ』,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3.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1A』, 하우, 2008.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2B』, 하우, 2008.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2A』, 하우, 2008.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2B』, 하우, 2008.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3A』, 하우, 2008.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3B』, 하우, 2008.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4A』, 하우, 2006.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4B』, 하우, 2006.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5A』, 하우, 2007.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5B』, 하우, 2007.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1』, 문진미디어, 2000.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2』, 문진미디어, 2000.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3』, 문진미디어, 2000.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4』, 문진미디어, 2000.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2』,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3』,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4』,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5』,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ABSTRACT

**An Analysis of the Understanding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nd the Proposal of a New Teaching Method
— Based on the Survey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

Jung, Eun M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t is a very important dimen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develop an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of teach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simply idioms) to those who learn Korean.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re everyday expressions that reflect, and have been influenced by,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us, the fact that Korean language learners understand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nd use them appropriately in everyday life means that they possess a good command of Korea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at (i) analyzing factors affect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from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point of view and (ii) proposing a new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of teach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The analyses and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analyze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being taught by major Korean universities' language institutes by examining five major universities' Korean language textbooks. From the analysis, I find that idiomatic expressions make up only a small part of the whole of those textbooks. I also find that in the beginner-level textbooks, the difficulty level of Korean

idioms being taught is consistent across universities, but that in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level textbooks, the difficulty level and the number of Korean idioms being taught differ greatly across universities.

Second, I survey a group of Korean language learners on the understanding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with a goal to set up a new criterion for classifying the difficulty level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Specifically, I survey two hundred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on the understanding of one hundred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chosen carefully. From the analysis of the survey, I find that the understanding of component words that comprise a particular idiom play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ole in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whole idiom. This result tells us that there is a limit to what learners can understand and use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unless they understand component words that comprise idioms. This is usually not the case for native speakers who use idioms frequently in everyday life and thus know the meaning of idioms even though they don't know the exact meaning of component words that comprise idioms. This aspect highlights the difference in learning idiomatic expressions between native speakers and foreign language learners.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re lack of knowledge on Korean culture and history and who do not use idioms frequently in everyday life, it is recommended to learn component words that comprise idioms before they learn the full meaning of particular idioms.

Third, I examine wha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learners affect the extent to which they understand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From the analysis, I find that the age and level of the learn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hereas the gender of learners and the length of their staying in Korea and learning Korean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Fourth, with a goal to propose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of teach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to foreign learners, I first evaluate

the difficulty level of one hundred idioms that I use in our survey. The majority of existing literature classifies the difficulty level of an idiom based on the usage frequency and the degree of semantic transparency. In the current study, however, I classify the difficulty level of an idiom based on the difficulty level of component words—easy, medium, and difficult—and the degree of semantic transparency—semi-transparent, semi-opaque, and opaque—because I put an emphasis on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required or essential for foreign learners to know the meaning of component word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n idiom. Based on our new criterion, idioms of a (easy words, semantically semi-transparent) combination are classified into the beginners' level; idioms either of a (easy or medium words, semantically semi-opaque) combination or of a (medium words, semantically semi-transparent or semi-opaque) combination are classified into the intermediate level; idioms of the remaining combinations are classified into the advanced level. Proposing this new criterion for classifying idioms into different difficulty levels is another important contribution of this study.

Fifth, and finally, I propose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of teach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to foreign learners based on the three-stage model of Bernard Seal (1991) and our new criterion for classifying the difficulty level of idioms. The proposed teaching method consists of four stages: introduction, validation exercise, integrative applications, and summary stages. The teaching contents of each stage should be appropriately chosen depending on the difficulty level of idioms being taught. In summary, idioms being taught to each level of learners should be selected appropriately based on the difficulty level of component words and the degree of semantic transparency, and teaching should focus on the meaning of component words for beginners, on the applications in various contextual situations for intermediate-level learners, and o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for advanced-level learners.

For foreigners who wish to have a good command of Korean, it is

essential to learn and use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in an appropriate manner.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re mostly unique to Korean culture and history and thus teaching idiomatic expressions require different approaches from teaching 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 need to put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to developing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of teach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to those who learn Korean. Specifically, this study sets up a new criterion for classifying the difficulty level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nd provides a basis for new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s of teaching idiomatic expressions.

This study is not free from limitations. The major limitation may stem from the list of one hundred idioms used in the survey of this study. The selection of 100 idioms is somewhat arbitrary since they are taken 'randomly' from the pool of idioms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university-level textbooks I examined. As such, it should be noted that the 100 idioms used in this study are not representative of idioms that Korean learners should learn.

* 부 록

问卷调查序号		-			
--------	--	---	--	--	--

以中国人为对象的韩语惯用语难易度调查

大家好? 感谢参与该问卷调查。

本问卷是为了调查中国人对韩语惯用语(idiom)的难易度理解程度而设计的。

在此声明本问卷调查不用做研究以外的其他用途, 问卷调查的部分内容不会对外公开。

本问卷由100个惯用语难易度问题和调查参与者的个人信息两部分组成。只有答完每一道题, 资料的有效性才能得到提高。希望大家能够按照自己的理解真实的作答。谢谢。

诚信女子大学 一般大学院 国文专业 在读博士

정은미

电子邮箱 :

在做问卷之前请参看以下内容, 然后再进行作答, 谢谢。

下列内容是针对调查参与者对韩语惯用语的理解和使用情况而设定的选项, 请参照该选项内容进行作答, 谢谢。

* 问卷调查的标记方法

1. **理解** : 该惯用语的意思知道的情况下标记为 (0), 不知道的情况下标记为 (x)。
2. **使用** : 该惯用语在日常生活中使用过的情况下标记为 (0), 没有使用过的情况下标记为 (x)。
3. **单词** : 该惯用语中所包含的单词知道其意思的情况下标记为 (0), 一个也不知道的情况下标记为 (x)。

* 问卷调查表的作答实例和说明

惯用语	理解	使用	单词	对标记内容的说明
바가지를 긁다	0	0	0	理解该惯用语的意思并使用过
눈이 높다	0	x		理解该惯用语的意思但没有使用过
마음에 들다	x	x		不知道该惯用语的意思也没有使用过
화축을 밝히다	x	x	x	不知道该惯用语的意思, 也没有使用过, 也不知道各个单词的意思
시치미를 떼다	0	0	x	不知道每个单词的意思, 但是知道该惯用语的意思并使用过
웬 떡이야	0	x	x	知道该惯用语的意思但是没有使用过, 也不知道每个单词的意思

I. 针对惯用语难易程度的调查内容

* 请在以下惯用语后的标记栏中标记难易度。

* 在 理解, 使用, 单词 空格中填上 O 或者 x。

惯用语	理 解	使 用	单 词	惯用语	理 解	使 用	单 词
1. 가랑이가 찢어지다				36. 둘도 없다			
2. 가면을 벗다				37. 뒤를 거두다			
3. 가슴에 새기다				38. 뒷짐을 지다			
4. 가슴이 찢리다				39. 등골이 오싹하다			
5. 간에 기별도 안 가다				40. 등을 돌리다			
6. 간이 떨어지다				41.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			
7. 간이 붓다				42. 말을 돌리다			
8. 간이 콩알만 하다				43. 말을 잃다			
9. 감투를 쓰다				44. 맺고 끊다			
10. 같은 값이면				45. 머리가 복잡하다			
11. 고사를 지내다				46. 머리를 맞대다			
12. 골수에 맺히다				47. 명함을 내밀다			
13. 구경도 못하다				48. 무게를 잡다			
14. 구색이 맞다				49.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5. 국물도 없다				50. 밑도 끝도 없다			
16. 귀가 아프다				51. 바가지를 쓰다			
17. 귀가 얇다				52. 바닥을 기다			
18. 귀를 기울이다				53. 바람이 들다			
19. 귀에 못이 박히다				54. 발등에 불 떨어지다			
20. 그림의 떡				55. 별 볼 일 없다			
21. 그림이 좋다				56. 볼 장 다 보다			
22. 금이 가다				57. 복장단을 치다			
23. 깨가 쏟아지다				58. 뼈대가 있다			
24. 꿈을 깨다				59. 뼈와 살이 되다			
25. 낙동강 오리알				60. 사람 죽이다			
26. 녹초가 되다				61. 상다리가 휘어지다			
27. 눈 하다 깜짝 안하다				62. 색안경을 쓰다			
28. 눈에 띄다				63. 속이 보이다			
29. 눈이 맞다				64. 손가락질을 받다			
30. 눈이 빠다				65. 손을 벌리다			
31. 눈코 뜰 사이 없다				66. 손이 크다			
32. 다리를 놓다				67. 신경을 쓰다			
33. 다리를 뺏고 자다				68. 싹수가 노랗다			
34. 돈방석에 앉다				69. 싹을 밟다			
35. 돼지 먹따는 소리				70. 안면을 바꾸다			

接上页

惯用语	理 解	使 用	单 词	惯用语	理 解	使 用	单 词
71. 알랑방귀를 쐬다				86. 주둥이를 놀리다			
72. 양다리를 걸치다				87.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			
73. 어깨를 겨루다				88. 쥐구멍을 찾다			
74.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89. 쥐빨도 없다			
75. 얼지른 물				90. 총대를 메다			
76. 오지랖이 넓다				91. 칼자루를 쥐다			
77. 웬 떡이나				92. 코웃음을 치다			
78. 이야기가 다르다				93. 콩가루가 되다			
79. 입방아를 찧다				94. 콩밥을 먹다			
80. 입에 발린 소리				95. 파김치가 되다			
81. 입을 맞추다				96. 팔자에 없다			
82. 자리가 잡히다				97. 피땀을 흘리다			
83. 적을 두다				98. 한 우물을 파다			
84. 줌이 쭈시다				99. 허리가 휘다			
85. 종지부를 찍다				100. 허리띠를 졸라매다			

II. 调查参与者的基本情况

<p>1. 现住所：</p> <p>2. 从事职业：</p> <p>3. 中国居住地(只写到城市即可)：</p> <p>4. 韩语学习时间：</p> <p>5. 主要在哪里学习的韩语：()</p> <p>5. 韩国滞留时间：</p> <p>6. 年龄：</p> <p>7. 性别：① 男 ② 女</p> <p>8. 民族：</p> <p>9. 韩语能力考试 (TOPIK)等级：① 1级, ②2级, ③3级, ④4级, ⑤5级, ⑥6级 (若没有TOPIK成绩, 请判断自己的韩语水平：① 初级 ② 中级 ③ 高级)</p>

* 感谢您对本问卷调查的参与